

연구보고 2012-09

아동발달관점에서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 스트레스호르몬 조사를 중심으로

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나지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2012년 5세 누리과정 및 영아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OECD 국가들은 미래 인적자원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생애초기 보편적 보육·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책무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아동발달에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는 여전히 분분하다. 생애초기 보육·교육 서비스의 효과는 적정한 이용시간과 서비스의 양, 그리고 서비스 질의 요건이 선행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긴 서비스의 이용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견해와, 양질의 서비스는 아동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논의 속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시점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트레스호르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43명과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영아 20명을 대상으로 2일간 총 6회의 타액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적정한 이용시간과 시기, 그 양과 질에 대해 논의하고 이용설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 설계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코티졸 조사의 진행을 위해 섭외와 협조의 도움을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 그리고 반복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무더운 여름 코티졸 조사를 위해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조사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4. 연구의 특성 및 제한점	16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8
1.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연구	18
2. 스트레스 연구	24
3. 육아지원기간 이용시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28
III.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및 변화	32
1. 조사대상 아동의 특성	32
2. 스트레스호르몬 조사 결과	60
3. 스트레스호르몬 변화 패턴의 유형	74
IV. 기관이용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수준 및 변화 관련 요인	85
1. 전체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5
2. 만 2세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8
V.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조사 결과 시사점 및 제언	109
1.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과 아동의 스트레스, 부모 및 가족 특성과의 관계	109
2.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 및 이용시간 설계에의 제언	114
참고문헌	118
Abstract	125
부록	127
부록 1. 주요변인간 상관관계	128

부록 2. 코티졸 패턴의 유형(A, B, C, D, E, Z형)	131
부록 3.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교사용-개별이동)	138
부록 4.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교사용)	142
부록 5.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부모용)	144

표 차례

〈표 I-3- 1〉 기관 및 기관유형별 조사참여 아동 수	13
〈표 I-3- 2〉 교사 조사내용	15
〈표 I-3- 3〉 부모 조사내용	15
〈표 II-1- 1〉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 유형 및 이용 현황	18
〈표 III-1- 1〉 아동 특성	34
〈표 III-1- 2〉 부모 및 가족 특성	34
〈표 III-1- 3〉 아동의 발달수준 전반 - 모 평정	37
〈표 III-1- 4〉 아동의 발달수준 전반 - 교사 평정	37
〈표 III-1- 5〉 아동의 발달수준(전체) 모/교사평정 평균	38
〈표 III-1- 6〉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 모 평정	39
〈표 III-1- 7〉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 교사 평정	39
〈표 III-1- 8〉 사회정서행동(전체) 모/교사평정 평균	40
〈표 III-1- 9〉 친사회적행동 모/교사평정 평균	41
〈표 III-1-10〉 내재적 문제행동 모/교사평정 평균	43
〈표 III-1-11〉 외현적 문제행동 모/교사평정 평균	44
〈표 III-1-12〉 사회적 유능성 - 교사평정	45
〈표 III-1-13〉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 모 평정	47
〈표 III-1-14〉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 교사 평정	47
〈표 III-1-15〉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전체) 모/교사평정 평균비교	49
〈표 III-1-16〉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모/교사평정 평균비교	50
〈표 III-1-17〉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모/교사평정 평균비교	51
〈표 III-1-18〉 조사일 어린이집 이용시간	52
〈표 III-1-19〉 아동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구분	52
〈표 III-1-20〉 어린이집 등하원 및 하루이용시간(부모응답기준)	53
〈표 III-1-21〉 현재 어린이집 이용 이유	53
〈표 III-1-22〉 모의 기관만족도 평가	53
〈표 III-1-23〉 교사의 근무기관 만족도 평가	54
〈표 III-1-24〉 현재 어린이집 외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시간	55

〈표 III-1-25〉 현재 이용하는 다른 서비스 유형(중복응답)	55
〈표 III-1-26〉 육아지원서비스 최초 이용시기 및 기간/시간 평균	56
〈표 III-1-27〉 육아지원서비스 최초 이용시기(조부모 포함)	56
〈표 III-1-28〉 과거 이용한 육아지원서비스 수	57
〈표 III-1-29〉 과거 육아지원서비스 종류(중복응답)	57
〈표 III-1-30〉 모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58
〈표 III-1-31〉 모의 양육행동 - 모 평정	59
〈표 III-1-32〉 부모-자녀 시간 특성	59
〈표 III-2- 1〉 코티졸 평균 - 전체	61
〈표 III-2- 2〉 코티졸 평균 비교 - 아동연령	62
〈표 III-2- 3〉 코티졸 변화 비교 - 아동연령	63
〈표 III-2- 4〉 코티졸 평균 비교 - 성별	63
〈표 III-2- 5〉 코티졸 변화 비교 - 성별	64
〈표 III-2- 6〉 코티졸 평균 비교 - 기관이용 여부	65
〈표 III-2- 7〉 코티졸 평균 비교 - 이용시간 및 시간연장 여부	68
〈표 III-2- 8〉 코티졸 평균 비교 - 가구소득 및 모 취업 여부	70
〈표 III-2- 9〉 코티졸 변화 비교 - 이용시간, 기관이용 여부 등	72
〈표 III-3- 1〉 코티졸 패턴유형	74
〈표 III-3- 2〉 Z패턴 유형분포 - 2일 총패턴	76
〈표 III-3- 3〉 코티졸 패턴별 평균 비교	76
〈표 III-3- 4〉 코티졸 패턴별 평균변화(오후활성화) 비교	78
〈표 III-3- 5〉 코티졸 패턴별 오전-오후-저녁/서비스총량 평균 비교	79
〈표 III-3- 6〉 코티졸 패턴별 기관이용 및 이용시간특성 비교	80
〈표 III-3- 7〉 코티졸 패턴별 사회인구학적특성 비교	81
〈표 III-3- 8〉 코티졸 패턴별 부모시간특성 비교	81
〈표 III-3- 9〉 코티졸 패턴별 모평정 모/자 특성 비교	82
〈표 III-3-10〉 코티졸 패턴별 교사평정 아동/기관/교사 특성비교	83
〈표 IV-1- 1〉 이용시간과 코티졸결과 상관관계	85
〈표 IV-1- 2〉 이용시간과 코티졸변화량 상관관계	86
〈표 IV-1- 3〉 기관이용 및 이용시간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87
〈표 IV-1- 4〉 이용시간, 코티졸양, 코티졸패턴간 상관관계 - 전체아동	88

〈표 IV-1- 5〉 자녀 스트레스 및 모 양육행동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90
〈표 IV-1- 6〉 모 평정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91
〈표 IV-1- 7〉 교사 평정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91
〈표 IV-1- 8〉 교사 평정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92
〈표 IV-1- 9〉 교사 평정 근로/기관만족도 관련 상관표-전체아동	93
〈표 IV-1-10〉 코티졸 총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①	94
〈표 IV-1-11〉 코티졸 총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②	94
〈표 IV-1-12〉 코티졸 총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③	95
〈표 IV-1-13〉 AA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①	95
〈표 IV-1-14〉 AA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②	96
〈표 IV-1-15〉 AA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③	96
〈표 IV-1-16〉 DE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①	96
〈표 IV-1-17〉 DE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②	97
〈표 IV-1-18〉 DE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③	97
〈표 IV-1-19〉 DE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④	97
〈표 IV-1-20〉 코티졸 총량, 패턴 설명을 위한 회귀분석 유의변수(전체아동)	98
〈표 IV-2- 1〉 기관이용 및 이용시간 관련 전체 상관표 - 만2세 아동	100
〈표 IV-2- 2〉 자녀 스트레스 행동 및 모 양육행동 관련 상관표 - 만2세아동	101
〈표 IV-2- 3〉 모 평정 아동행동 관련 상관표① - 만2세아동	101
〈표 IV-2- 4〉 모 평정 사회정서행동 관련 상관표② - 만2세아동	101
〈표 IV-2- 5〉 교사 평정 사회정서행동 관련 상관표③ - 만2세아동	102
〈표 IV-2- 6〉 교사 평정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관련 상관표 - 만2세아동	102
〈표 IV-2- 7〉 교사 평정 근로/기관만족도 관련 상관표 - 만2세아동	103
〈표 IV-2- 8〉 이용시간, 코티졸 양, 패턴간 상관표 - 만2세아동	103
〈표 IV-2- 9〉 AB 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만2세 아동	104
〈표 IV-2-10〉 코티졸 총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만2세 아동	104
〈표 IV-2-11〉 Z 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만2세 아동	105
〈표 IV-2-12〉 코티졸 총량, 패턴 설명을 위한 회귀분석 유의변수 - 만2세 아동	105
〈표 IV-2-13〉 영유아의 적정한 기관이용 시작 시기	106
〈표 IV-2-14〉 영유아의 적정 이용시간 의견	106
〈표 IV-2-15〉 이용시간 관련 정책 의견	108

그림 차례

[그림 III-1- 1] 아동의 발달수준 전반 : 모/교사 평정 비교	37
[그림 III-1- 2]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모/교사 평정 비교	39
[그림 III-1- 3] 아동의 스트레스행동 및 수준 모/교사 평정 비교	47
[그림 III-1- 4] 모/교사 평정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우울감 비교	48
[그림 III-2- 1] 시간대별 전체 코티졸 수준 및 차이 평균	61
[그림 III-2- 2] 아동연령별 코티졸 수준	62
[그림 III-2- 3] 아동성별 코티졸 수준	64
[그림 III-2- 4] 기관이용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전체 아동)	65
[그림 III-2- 5] 기관이용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3~30개월 아동)	65
[그림 III-2- 6] 기관만족도에 따른 코티졸 수준	66
[그림 III-2- 7] 기관유형별 코티졸 수준	67
[그림 III-2- 8] 이용시간별 코티졸 수준	69
[그림 III-2- 9] 시간연장 이용 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1 - 월 3회이상	70
[그림 III-2-10] 시간연장 이용 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2 - 1주 3시간 이상	70
[그림 III-2-11] 가구소득에 따른 코티졸 수준	71
[그림 III-2-12] 모 취업학업훈련 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	71
[그림 III-2-13] 모 전일취업에 따른 코티졸 수준	72
[그림 III-3- 1] 코티졸 패턴별 평균 비교	78
[그림 III-3- 2] 코티졸 패턴별 서비스총량 평균 비교	79
[그림 III-3- 3] 코티졸 패턴별 특성비교	83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이 증가일로이고 생애초기 미래인적자원에의 투자와 균등출발에의 공평성 확보의 노력이 지속됨. 이로 인해 영유아기 교육·보육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 아동이 가정이 아닌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 각종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 취업모의 증가와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린 아동이 가정 외 기관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를 가져왔으므로, 이러한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아동발달에의 영향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종일반 중심의 육아지원 및 보육·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양부처의 정책 수행에 있어, 이러한 종일반 중심의 이용시간 설계가 실제 서비스 수혜자인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 특히 영유아기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생리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스트레스 수준 및 변화와 기관 이용시간과의 관계
 - 영유아의 스트레스 및 기관이용 특성(예: 이용시간, 기관이용 시작연령, 주양육자), 가정환경(예: 모 취업여부, 소득), 아동특성(예: 발달전반, 문제행동, 스트레스호르몬 분비), 기관 특성(예: 유형/규모, 서비스 만족도)과의 관계 분석
-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이용시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보육·교육 과정 운영에의 제언

다. 연구방법 및 설계

- 문현연구
- 아동 스트레스호르몬 타액 검사
- 부모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

라. 연구의 특성 및 제한점

- 아동연령별, 기관유형별 할당을 고려한 유의표집으로 기관이용 영유아 모집 단을 대표하는 데에 제한을 가짐.
-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유형이 오후 5시 전후 귀가로 유사하여 이용시간 변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음.
- 스트레스호르몬 분석방법이 duplicate method가 아닌, single method인 점에 근거함.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연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간의 이용시간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요자 부모의 보다 긴 시간, 맞춤형 지원으로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제 보육·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간 설계로 확대됨.
 - 부모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육은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간제 일시보육의 제공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서문희 외, 2011).
- 아동연령별로 살펴 본 결과에서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1일 평균 7시간 42분, 유아 7시간 48분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이용시간 분포상 영아가 6시간까지 이용한 단시간 이용자 비율과 9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자 비율에서 모두 유아보다 높게 나타남. 유치원 이용 유아는 6시간 37분으로 상대적으로 적음(서문희 외, 2009).

-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이 미취업모 자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모의 취업여부가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 가구일수록 이용시간이 길었음.

나. 스트레스 연구

-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행동 관찰 연구와 스트레스호르몬 조사 연구의 두 가지로 구분됨.
 - 스트레스행동 연구에 의하면,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행동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만 3세 이하의 아동이 만 4, 5세 아동보다 스트레스 행동을 더 많이 보임.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은 오전과 오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야간에는 스트레스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김혜경·류왕효, 2006).
 - 저소득이나 빈곤과 같은 고위험군 요소들을 포함한 환경(high risk environment)요인들은 아동에게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함(Evans, 2003).
 - 종일반 유아가 반일반 유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임(김희영, 2001; 오경미, 2002; 진성아, 2006). 종일제 보육을 경험한 영유아가 보다 공격적이고 좌절에 대한 참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김숙령, 1996).
 - 기관 운영시간 유형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이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음(이송희, 2006).
- 스트레스호르몬(코티졸) 수준을 측정한 국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오전보다 오후에 아동의 코티졸 수준이 증가함 (Dettling, Parker, Lane, Sebanc & Gunnar, 2000; Watamura, Sebanc, & Gunnar, 2002).
 - 종일제 어린이집을 경험하는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이 오전에 비해 오후에 증가함(Dettling, Gunnar & Donzella, 1999).
 - 보육경험을 하는 아동의 코티졸 수준이 집에서보다 보육기관에 있을 때에 높음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됨(Geoffroy et al., 2006; Vermeer & van

IJzendoorn, 2006).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미만일수록, 그리고 센터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코티졸 수치가 나타남. 양질의 보육을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의 코티졸 수치보다 낮아(Sims, Guilfoyle, & Perry, 2006), 양질의 보육일수록 아동의 코티졸 수준의 상승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 반일제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관에서 측정한 코티졸이 가정에서 측정한 것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음(Gunnar, Tout, de Haan, Pierce, & Stansbury, 1997).

3.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및 변화

가. 조사대상 아동의 기관이용 특성

- 가정양육사례를 제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243명의 평균 이용시간(편차)는 7.09시간(1.70시간)이었으며, 가정양육을 포함한 전체 263명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은 6.78시간(2.47시간)으로 조사됨.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4.43점/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외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교육 및 보육, 돌봄 서비스(조부모 포함)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5.7%로 약 1/3 이 넘으며, 다양한 시간 분포를 보임.
 -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전에 경험한 육아지원서비스, 즉 비모성양육의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5%(230명)으로 이용 한 적 없다는 12.5%임.

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결과

- 하루 3번 2일의 스트레스호르몬 채취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 263명의 하루 평균 코티졸양이 오전 5.9, 오후 7.7, 저녁 3.9 nmol/l로 나타남.
 - 조사된 코티졸 평균값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영유아가 오후에 스

트레스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는 전형적 패턴을 보임을 나타냄.

- 조사된 코티졸 평균값은 참고기준치의 정상범주에서 높지 않은 수준임.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하루 코티졸 변화의 패턴은 다양한 양상을 보였음.

- 조사일 2일에 걸쳐 코티졸 수치가 오후에 올라갔다가 귀가 후 저녁시간에는 떨어지는 전형적인 기관이용아동의 패턴이 A형(∧형)으로 전체 패턴 중 45~46%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B형(\ 형)이 많았음.
- 비전형적인 패턴으로 오전-오후간에 코티졸 수치가 떨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가는 D형(∨형)과,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는 E형(/ 형)이 약 7% 이상, F형은 오전과 오후에는 변화 없는 양상을 보이다가 저녁에 떨어지거나(8.4%), 오후에 떨어져 저녁까지 이어지는 (4.9%) 등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구간이 비전형적으로 다른 경우임. C형 (—형)은 오전-오후-저녁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경우로 약 4%가 있었음.
- 조사일 2일간 동일하지 않은 패턴이 공존하는 아동이 전체 49.8%로 절반에 해당되었고, 2일간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Z3~Z14형) 아동이 전체 31.6%로, 코티졸 변화의 패턴이 일관되거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함.

4.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스트레스호르몬 관련 주요 요인은 아동의 ‘연령’임.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아동이 성장할수록 기관이용아동의 전형적인 A(∧)패턴을 보이는 비율이 높음.
- 하루 3번 2일의 스트레스호르몬 총량을 비교한 결과, 이용시간이 길수록 분비된 코티졸의 총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9~10시간 이상의 기관 이용이 긴, 정례화된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6~7시간, 8~9시간, 10~12시간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10~12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코티졸 수준과 패턴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오후 활성화의 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 장시간의 이용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유의한 영향을 주나, 이용시간의 영향력이 아동의 연령 등 주요 발달변인과 맞벌이가구 등의 가정환경, 서비스 질 등의 영향을 받으며, 기관이용시간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의 주효과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음.
 - 기관을 지속적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영유아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의 패턴이 다를 수 있으며, 장시간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적을수록 코티졸 분비 총량이 많은 이면에는 ‘기타 다른 서비스의 추가 이용(quantity, stability)’ 및 비모성양육의 육아지원서비스 ‘최초 이용시기(entry of age)’라는 변인이 매개하고 있음.
- 하원 후 다른 교육·보육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여 이용서비스의 양과 기관의 수가 늘어나면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총량이 증가하고, 비전형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D형과 E형, Z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음.
 - 과거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의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과거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이용의 수와 양(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코티졸 분비량과 정적인 관계를 가짐.
- ‘긴 이용시간’의 작용과 ‘시간연장’ 이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이용시간이 길수록 코티졸 총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연장 이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코티졸 총량이 많았음.
- 부모가 관찰한 자녀의 스트레스행동 보고와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수치에 역의 관계가 나타남. 또한 부모가 인식한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스트레스호르몬 수치와 일부 역의 관계를 보임.
-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그리고 부모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 인식수준이 낮은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코티졸 수치는 높은 경향을 보이는 역의 관계가 나타남.
 - 성인의 아동의 스트레스 인식과 아동의 실제 스트레스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즉 겉으로 드러난 자녀의 스트레스행동과 내재된 스트레스호르몬 분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5. 기관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 및 이용시간 설계에의 제언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과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조사 결과 시사점 및 제언

- 서비스 이용에 ‘최초 시작 연령’이 유의한 요인으로, 가능한 한 신생아기 이후로 기관이용의 시작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및 건강한 양육환경의 조성에 바람직함. 만 1세 이하 영아의 기관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설계로 부모 직접 양육의 육아휴직과 가정내 아이돌보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정수준 이상 양질의 기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관 적응, 스트레스 대처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취업모 자녀의 상대적으로 긴 이용시간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대체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으며, 아동의 발달수준과 친사회성, 안정애착의 형성면에서 양호하며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스트레스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취업모의 양육과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선순환하는 기제를 보임.
 - 일가정양립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보임.
 - 본 조사에 의하면 비취업모의 양육의 어려움이 확인된 바, 지역사회 비취업모 대상의 육아지원체계 마련에 정책적으로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는 이용시간 다양화 설계에 선행되어야 함.
 - 또한 보육·교육과정에 아동의 연령 등 발달특성과 이용시간(서비스 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구분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마련이 이용시간 설계에 선행되어야 함. 이용시간을 고려한 고유한 보육·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이용시간 설계 다양화의 정책이 수요자 관점에서 의미를 가짐.

나.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 및 이용시간 설계에의 제언

- 영유아기 아동의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의 종류와 수, 그리고 시간연장형태로의 긴 이용시간은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서

비스 제공의 수와 아동의 안정적 이용을 저해하는 잦은 변동, 시간연장 이용에 대해 아동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고려가 요구됨.

- 어린연령에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긴 이용시간 및 시간연장이용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마련과 이와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강구해야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취학전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이 증가일로이고 미래인적자원에의 투자와 균등출발에의 공평성 확보의 노력으로 영유아기 교육·보육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 아동이 가정이 아닌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시작된 5세 누리과정과 영유기 무상보육의 실시와 2013년부터 실시되는 만 3, 4 세로의 확대는 아동의 출생 직후부터 영유아기 전반에 이르는 이른바 무상 보육·교육체제의 확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유아기 지원체계의 확립이 부모 대상 경제적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 위주로 접근하고 여전히 서비스 이용이 종일제에 근거한 단일 시간 구성에 머물고 있어, 이용시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선택권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5세 누리과정은 3~5시간 구성을 전제로 하는 한편, 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소진을 해결하고 교사 전문성 신장을 고려하는 근로시간의 체계화는 더디다. 무상 보육·교육의 수혜자인 부모 역시 아동 연령별로 보육·교육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과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가정 밖 비모성 육아지원기관에 머물러야 하는 정책의 주체인 영유아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의 진지한 고민은 결여된 상태이다.

각종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 취업모의 증가와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어린 아동이 가정 외 기관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를 가져왔으므로, 이러한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아동발달에의 영향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료·교육비 지원 체계는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는 부모의 근로시간 중심이 아닌, 소득 중심의 지원체계인 관계로 결과적으로 아동의 기관 이용이 부모의 근로시간과 같은 실질적 보육 수요에 의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차원에서 모든 아동을 대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12시간 운영시간이 그대로 아동의 이용시간으로 인식,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의 증가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8, 2010).

영유아기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이 취학전 공평하게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는 공보육·교육 체계의 확립은 OECD 국가의 공통된 어젠다이다(OECD, 2006, 2012). 그러나, 이는 적정시간의 제시 및 이용시간 설계의 다양화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으로, 주5일 종일제 혹은 반일제 기준으로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건강한 삶 보장, 그리고 어린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부모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 교사의 양질의 근로시간 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용시간 설계가 정책적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8시간 준수의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당장에 현장의 어려움과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크고, 무상보육의 확대로 영아의 기관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의 정책 기초 속에서, 부모는 과연 자녀연령에 따라 어느정도의 시간이 적정한 이용시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과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용시간 다양화 설계를 통한 영유아기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에 본 연구의 아동 스트레스호르몬 결과와 같은 과학적 자료가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시간 설계 논의가 교사 및 부모, 가구소득 및 가구유형, 기관의 운영상의 편의와 같은 성인 요구 중심의 논의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과연 이러한 이용시간의 확대 일변도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행동발달을 파악하여 아동 중심의 접근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스트레스 연구는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주관적 지각의 보고 및 행동관찰의 평정에서 나아가, 스트레스호르몬과 같은 계량화된 생리학적 자료를 이용한 스트레스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예: 박경자·최정윤·권연희·김지현, 2007; 이영·신의진·정지나·민성혜·이경숙, 2007; 최정윤, 2008). 그러나 적은 사례수의, 유아에 국한된 경향이 있으며, 연구 결과가 구체적인 이용시간 설계의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종일반 중심의 육아지원 및 보육·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양 부처의 정책 수행에 있어, 이러한 이용시간 설계가 실제 서비스 수혜자인 영유

아의 발달과 건강, 특히 영유아기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서비스 중심의 육아지원체계의 수립에 있어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르는 아동발달 관점의 적정 시간(core time)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별 적정 이용시간 및 이용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장시간 이용이 불가피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기관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반일제/종일제, 시간연장, 24시간 서비스 등 이용시간에 따른 기관 서비스의 다양화가 아동 발달에의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수요자 입장의 이용시간 다양화 논의 및 부모교육, 기관에서의 시간 운용에 참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취학전 영유아기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이용시간 실태와 비용 지원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기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코티졸 검사를 통해 조사, 이것이 기관이용시간 및 관련 특성과 갖는 연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기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스트레스 변화 패턴을 코티졸 수치를 이용하여 분류, 이것이 기관이용시간 및 관련 특성과 갖는 연관성을 분석한다.

넷째,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수준과 변화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한다. 기관 이용시간과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가정환경과 아동 특성, 기관 및 기관이용 특성을 고려한다.

다섯째, 기관이용시간과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적정 시간 및 시간대,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아동의 다양한 발달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이용시간 설계와 보육·교육과정 운영에의 제언을 논의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관련 자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현황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이용시간이 아동 발달과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나. 아동 스트레스호르몬 검사

연구윤리준수 및 부모동의의 과정을 거쳐 어린이집 이용 아동 243명을 대상으로 1주일 간격으로 2일간 기관과 집에서 1일 3회씩 아동 1인당 총 6회의 타액채취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기관특성, 가정환경 특성을 고려한 표집이되, 동시에 최대한 동일조건의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에 국한하여 어린이집 중심의 유의표집으로 진행하였다.

아동연령, 기관유형, 이용시간을 고려한 유의표집 설계로 육아지원기관 이용 아동 243명과 미이용아동 20명의 기관과 집에서의 스트레스호르몬 수치와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조사는 이용시간별(반일제, 종일제, 시간연장/24시간), 이용 시간대별(오전 10시경, 오후 3~4시경, 저녁 8시경), 기관유형별(국공립, 사립/민간, 가정)로 아동의 HPA(the Hypothalamic-Pituitary-Adrenocortical) 스트레스호르몬-코티зол을 타액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1) 연구설계 및 표집

2012년 7~8월 두 달에 걸쳐 서울에 소재한 20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트레스호르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 및 표집 설계의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가 타액 채취 및 부모 동의의 어려움 등으로, 유아에 비해 영아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한 점, 그리고 국내에서 시기적으로 영아 무상 보육의 우선 실시로 인해 어린 영아들이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던 상황에서, 취학전 ECEC 서비스의 이용이 권장되는 유아보다는 영아의 기관 이용시간이 미치는 아동에의 영향에 대한 구

체적 자료와 논의의 요구가 더 많았음을 고려하여, 영아의 표집을 더 많이 하고자 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영아 보육이 아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현재 시점 이용시간에 따른 아동의 구체적 결과물을 실증 데이터에 담은 결과가 없어 아동의 반응을 나타내는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적, 시기적 요구에 부응하여 영유아를 포함하되 영아 위주의 생리적 자료인 태액 스트레스호르몬(코티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많은 코티졸 연구들이 오전-오후의 하루 2번의 채취에 근거하여 오후에 코티졸 수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나, 저녁 시간 가정에 돌아갔을 때의 코티졸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국내연구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국내외적으로 100명 내외의 사례수에 근거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는 가급적 기존 연구에 비해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여 코티졸 수치의 다양한 변이가 타당한 결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둘째, 본 연구는 200명 이상의 영유아에 대한 오전-오후-저녁의 하루 3번의 코티졸 수치를 2일에 걸쳐 총 6번 채취하여 코티졸 패턴의 수준과 변화에 대해 보다 타당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계획에 의해 참여대상 아동은 서울지역에 제한하여 태액검체의 냉동보관과 운송을 용이하게 하되, 기관 유형별로, 지역별로 임의로 균형 배정하여 진행하였다. 서울시 8개구 약 30개 어린이집에 연구참여를 의뢰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연구참여를 희망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조사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님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를 수합한 결과, 서울 중랑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은평구의 6개구에서 총 20개 어린이집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애초에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조사과정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거나 조사일에 결석한 경우, 아동이 거부한 경우, 검체량이 부족하여 판독 불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 완료한 연구기관별 참여아동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1〉 기관 및 기관유형별 조사참여 아동 수

단위: %(명)

연번	기관	아동수	연번	기관	아동수
전체		100.0(263)			
1	중랑구 A어린이집	8.7(23)	11	영등포구 K어린이집	7.6(20)
2	중랑구 B어린이집	3.8(10)	12	영등포구 L어린이집	14.1(37)

(표 I-3-1 계속)

연번	기관	아동수	연번	기관	아동수
3	중랑구 C어린이집	2.3(6)	13	강남구 M어린이집	3.8(10)
4	중랑구 D어린이집	2.3(6)	14	강남구 N어린이집	4.6(12)
5	중랑구 E어린이집	1.1(3)	15	송파구 O어린이집	5.7(15)
6	중랑구 F어린이집	1.1(3)	16	송파구 P어린이집	4.6(12)
7	중랑구 G어린이집	4.2(11)	17	송파구 Q어린이집	4.2(11)
8	은평구 H어린이집	9.9(26)	18	송파구 R어린이집	6.5(17)
9	마포구 I어린이집	1.9(5)	19	송파구 S어린이집	1.9(5)
10	영등포구 J어린이집	1.9(5)	20	송파구 T어린이집	2.3(6)
21	가정양육 영아	20(7.6)			
기관유형별					
국공립어린이집(6개 기관)					
민간·법인어린이집(2개 기관)					
가정어린이집(12개 기관)					
가정양육(20명)					

2) 분석도구 및 방법

코티졸 타액 검사도구와 용기는 미국 Salimetrics사의 타액 코티졸조사를 위해 미국 Salimetrics사의 Salivarycortisol Enzyme Immunoassay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검사용기는 Salimetrics Children's Swab(SCS)와 Swab Storage Tube를 사용하였다. 채취된 검체는 분석기관에서 검체 타액을 1번 관독하는 single method에 의해 분석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분석자의 single method 분석결과와 duplicate method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duplicate method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인 기준 오차범위내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은 점을 확인하여 single method 방법을 적용함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부모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

기관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인특성 및 환경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아동의 가정환경과 양육방식, 아동 사회정서성과 기관적응, 부모와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의 스트레스행동을 평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2〉 교사 조사내용

구 분		항 목
교사 개인 조사	인적사항 기관특성	기관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직위, 경력 -주관적 만족도 조사(근로시간, 근로여건, 보육서비스의 질, 특별활동/특기교육의 진행, 시설설비, 실내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등) -실외활동놀이시간
교사의 개별 아동 평정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SCBE(사회적유능성 행동평가: 친사회성, 내·외현적 문제행동) -SSRS(사회적기술 평정척도: 사회적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관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선생님과의 관계
	가정환경인식	-모의 민감성 및 관심 -양육환경으로서의 가정환경 -부모의 참여 및 협조
	아동발달전반	-신체발달 및 성장, 언어, 인지, 사회정서, 기관적응
	스트레스행동 (CCSBI)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변안 사용)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변안 사용)

주: SCBE(LaFreniere & Dumas, 1996), SSRS(Gresham & Elliott, 1990), CCSBI(Burts et al, 1990, 노정민, 2010 재인용).

〈표 1-3-3〉 부모 조사내용

구 분		항 목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및 이용시기		-서비스유형별 이용기간(아동월령) -서비스유형별 1주 평균이용시간 및 질 만족도 -현재 이용기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 -현재 이용기관의 시간연장보육 이용 여부 -10개 하위항목별,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평정을 통한 기관특성의 파악
현재이용기관 특성 및 질		
현재이용기관 외 기타 서비스이용		-기타 시간제 서비스 이용의 종류 및 총 시간
모 양육특성		-모 양육행동 및 양육방식, 양육스트레스 -모 우울감 -부·모의 근로시간
부모 근로/양육시간 등		-부·모의 양육시간(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아동의 실외놀이활동 시간
부의 스트레스		-모의 부 스트레스 수준 인식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SCBE(친사회성, 내·외현적 문제행동)
아동의 사회적 관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선생님과의 관계

(표 I-3-3 계속)

구 분	항 목
아동의 스트레스행동(CCSBI)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번안 사용)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번안 사용) -부모의 자녀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인식
적정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부모의 영·유아기 적정 기관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이용시간 중심의 정책설계에 대한 의견

주: SCBE(LaFreniere & Dumas, 1996), SSRS(Gresham & Elliott, 1990), CCSBI(Burts et al, 1990, 노정민, 2010 재인용).

라. 자문회의 및 간담회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지 검토, 준실험설계 및 생리학적 검사의 수행,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일과운영과 아동의 기관이용에 대한 배경정보와 현황파악을 위해 교사 및 아동, 부모 대상 간담회를 가졌다.

4. 연구의 특성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시간과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와의 관계를 영아와 유아, 그리고 기관유형과 가정양육의 변인 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설계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아동연령별, 기관유형별 할당을 고려한 유의표집의 한계로 인해 기관이용 영유아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에 제한점을 갖는다. 영유아 대상으로 스트레스호르몬을 채취하는 생리적 검사의 특성상, 부모와 기관장의 참여 허락과 동의가 요구되는 관계로 조사대상 아동의 표집단에서부터 대상참여기관과 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설계이다. 또한 조사참여 기관 및 부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를 희망하고 참여과정에 협조적인 기관과 부모가 표집되는 편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연구참여에 관심이 적은 기관과 부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점이 제한점이라 하겠다.

둘째,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의 근로시간 및 부모의 이용시간이 기관 이용시간인 12시간과 동일시되어 영유아의 어린이집의 이용이 다양하게 설계되어있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이용시간대와 유형을 갖고 있으며 그

편차가 적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이용시간의 변이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전반적인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유형이 오후 5시 전후 귀가로 유사하여 주요 변인의 다양한 변이를 확보하는 데 제한점이 있었다.

셋째, 보다 다양한 지역, 기관유형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생리적 검사의 특성상 많지 않은 사례의 결과를 보다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환경 요인을 일정 수준 통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서울지역 어린이집 이용으로 제한한 점은 이용시간에 따른 코티졸 결과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한 장점임과 동시에, 보다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지 못한 제한점이기도 하다.

넷째, 다양한 보육환경과 이용시간의 아동 사례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권고안인 두 번의 시약검사 방법(duplicate test)이 아닌 한 번의 시약검사 방법(single test)에 의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대로 관련된 제한점을 숙지하고 single method의 방법을 취하면서도 duplicate method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연구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현황 및 지원체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간의 이용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요자 부모의 보다 긴 시간, 맞춤형 지원으로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시간 설계가 확대되고 있다.

2012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현재 어린이집은 연중운영을 기본으로 주중 보육시간은 12시간 종일보육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1일 8시간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탄력근무를 명시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은 12시간(7:30~19:30), 토요일은 8시간(7:30~15:30) 운영하며, 지역 및 기관의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해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12). 부모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대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육은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간제 일시보육의 제공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서문희 외, 2011).

〈표 II-1-1〉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 유형 및 이용 현황

구분	어린이집 수	아동현원	보육교사 수	단위: 개소, 명, %	
				아동 이용률	이동 이용률
시간연장보육	7,844	39,313	5,513	2.9	
휴일보육	238	461	473	0.03	
24시간보육	268	900	293	0.07	

주: 보육교사는 시간연장 및 휴일반을 맡고있는 보육교사, 24시간 보육교사임.

이용률은 (이용아동현원/보육아동총수 1,348,729명)×100

자료: 2011 보육실태(2011. 12. 31. 기준)

2011 보육통계에 의하면,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보육

아동 현원 대비 2.9%, 휴일보육 이용 아동은 0.03%, 24시간보육 이용 아동은 0.07%에 불과하나,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토요보육의 경우 서문희 외(2011) 연구에서 조사참여기관의 82.2%(997개소/1,236개소)에서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육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와 긴 이용시간 외에 연중 방학이 없이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용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아동의 연령을 검토한 결과, 2009 보육실태자료에 의하면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의 연령이 0세 7.8%, 만1세 15.2%, 만2세 19.5%, 만3세 18.3%, 만4세 16.1%, 만5세 3.7%로 영아 평균 이용률(14.2%)이 유아(12.7%)보다 높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하원시각이 오후 3~5시가 48.0%, 오후 5시반 이후가 24.0%를 보인 반면,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시각은 오후 2~4시에 과반(57.7%), 오후 5시 반 이후가 11.2%로 나타나,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보다 적었다(서문희 외, 2009).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의 상한선과 지원단가는 모두 종일제 운영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우리나라의 지원체계가 이용시간에 근거한 설계라 볼 수는 없으나, 시간연장보육의 부모 대상 지원은 소득하위 70% 아동에 대해 시간당 2,700원으로 매월 60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과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인건비 지원이 주를 이룬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민간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간연장보육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 보육을 하거나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시간연장반 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2).

유치원의 이용시간은 2012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반일제, 종일제 개념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이후의 방과후 과정’으로 개편되었다(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은 오전의 3~5시간 동안 운영하는 기본교육과정으로, 유치원의 경우 대개 점심 제공 후 오후 2시 전후하여 수업을 마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12시간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가구소득에 따라 산정되고, 이용시간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아니다.

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관련 요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은 기관종류별, 아동연령별, 모의 취업여부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국 자료에 근거한 연구결과¹⁾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유치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일 어린이집을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45분이고, 유치원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6시간 37분으로 어린이집보다 약 1시간 가량 적었다(서문희 외, 2009). 2004년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어린이집 1일 이용시간이 약 25분(2004년도 7시간 20분), 유치원은 약 45분(2004년도 5시간 15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및 운영시간이 길어진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2시간 종일제 중심의 운영 및 비용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후의 현상임이 지적된 바 있다(서문희 외, 2010). 김은정 외(2011) 연구에서 2008년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주당 약 34시간(평일 환산 6.8시간), 유치원은 약 31시간(평일 환산 6.2시간)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하는 시간은 오전 8시31분부터 9시까지 등원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하원시간은 오후 2시~3시가 21.5%로 가장 많았고 3시~4시, 4~5시 순이었다(서문희 외, 2009). 어린이집이 12시간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12시간을 이용하는 부모(보호자)는 약 4.0%로 소수에 그쳤으며 유치원은 0.2%에 불과했다(서문희 외, 2009).

서문희·박수연 연구(2008)에 의하면, 개원시각과 폐원시각으로 산출한 어린이집 하루 평균 운영시간은 11시간 41분으로 나타난 가운데, 운영시간 분포는 9시간부터 13시간 이상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 기관의 귀가시간 유형을 조사한 결과, 종일제(오후 6시 이후) 귀가 21.0%, 종일제+오후 4~5시 귀가 43.2%, 종일제+오후 2~3시 귀가, 종일제+오후 2~3시 귀가+오후 4~5시 귀가, 19.8%로 나타나, 다양한 이용시간 실태 및 수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5년 유치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치원이 교육과정 운영을 끝내는 시간이 오후 1~3시가 54%로 가장 많고, 3~5시가 17%, 5~7시가 23%로 나타난 가운데, 공립유치원의 끝나는 시간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짧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오후 5~7시 47.3%)가 가장 길었다(나정 외, 2005). 그러나 유아교육선진화사업의 종일제 운영의 확대로 현재 유치원 이용시간에 대한 최신 자료와 논의가 요구된다.

1) 서문희 외(2009).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김은정 외(2011).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형태 분석 및 정책방안

둘째, 기관 설립주체별에 따른 이용시간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10시간 22분로 이용시간이 가장 길며, 가정어린이집 7시간 57분, 국공립어린이집 7시간 51분, 법인 및 기타어린이집은 7시간 28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 분포에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6시간 단시간 이용비율이 27.8%, 9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비율이 31.7%의 이용시간의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6시간 41분, 사립유치원 6시간 35분으로 기관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문희 외, 2009). 그러나 서문희·박수연(2008) 연구에 의하면, 가정어린이집의 기관 '운영'시간이 가장 길게 조사되었다. 영유아의 이용시간과 기관의 운영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연령별로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는 1일 평균 7시간 42분, 유아 7시간 48분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이용시간 분포상으로 영아가 6시간까지 이용한 단시간 이용자 비율과 9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자 비율 모두에서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 유아는 6시간 37분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0세가 8시간 6분으로 다른 전 연령대와 비교해서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다(서문희 외, 2009). 2009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 연령별로 평일 시간대 이용률 변화를 제시하여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오전 9시30분 약4%가 이용하고 오후 2시 약 5%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아는 오전 9시 이후 17.4%, 정오 무렵 25.9%, 죄고 40%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2세아는 오전 11시 어린이집 이용률이 죄고 56.4%, 3시 55%, 5시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아는 오전 10시에 어린이집 이용 60%, 유치원 이용 19.4%, 오후 3시30분 이후에는 어린이집 50%이하, 유치원 10%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이용시간대별 분포와 비율을 제시하였다(서문희 외, 2009). 김은정 외(2011) 연구에서도 1세 이하가 주당 37.9시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길었다. 이처럼 연령이 낮을 수록 평균 이용시간은 길어졌지만, 0세아와 1세아의 이용시간의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영영아기 보육의 수요는 이용시간의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를 내포하고 있음이다.

넷째,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이 미취업모이 자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모의 취업여부가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서문희 외(2009) 연구에서 취업모 아동 8시간 38분, 미취업모 아동 6시간 57분으로 평균 이용시간이 나타났으며, 6시간 단시간 이용비율이 미취업모에게서 많고, 9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 비율은 취업모에게서 더 많았다. 유치원 이용시간도 취업모 자녀 7시간 3분,

미취업모 자녀 6시간 17분으로 모 취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은정 외(2011) 연구에서도 취업모 자녀의 주당 이용시간이 어린이집 37.5시간, 유치원 33.2시간이라면, 미취업모 자녀의 주당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31.8시간, 유치원 29.8시간으로 모 취업 여부와 기관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2008년 출생한 아동 1,802명의 3차년도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의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 하루 이용시간이 전체 평균 7.8시간으로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취업모 자녀 8.7시간, 비취업모 7.0시간), 주당 이용일수는 월~금 5일이 96%로 대다수였다(이정림 외, 2011, 147~148p).

다섯째, 저소득 가구일수록 이용시간이 길었다. 모부재인 경우 상당수의 아동이 9시간 넘게 장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약가정 아동 또한 기관 이용시간이 긴 양상을 보인다(서문희 외, 2009).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김은정 외(2011) 연구에 의하면, 소득하위 30%계층은 중상층보다 가정내양육시간 등의 총양육시간이 유의하게 작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하위계층에서 가정내 양육/보육 시간이 줄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보육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섯째, 지역에 따른 이용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읍·면이 평균 7시간 1분으로 6시간 30분인 도시보다 이용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지역특성상, 아동시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문희·박수연(2008) 연구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이 읍면지역 어린이집에 비해 운영시간이 약간 길었다.

이로써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기관특성과 국공립/사립 등의 기관유형, 아동의 연령, 모 취업 여부, 그리고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용시간에 기초한 육아지원정책

이용시간에 근거한 비용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서문희 외, 2010)에서 2009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추가분석한 결과,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수납에 차등을 두는 시설은 18.7%로 나타났으며, 하원시간은 오후 4시 이전 36.5%, 오후 4~6시 45.2%, 오후 6시 이후 18.4%로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200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의 경우 오후 2시경에 귀가하는 단축형 적용이 보편적이었으나, 이후 종일제 중심의 보육정책이 현재와 같은 종일제 일변도의 이용 양상과 연관이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단축형(오전 9시~오후 3시) 설계의 필요성과 바우처 적용의 구체적 방법이 제기된 바 있다(서문희 외, 2010). 한편 외국의 경우, 영국은 주당 12.5시간이 기본 지원이 되며, 스웨덴의 경우 부모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주당 15시간에 대해 보편 지원을 하며, 취업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당 40시간까지 지원한다. 호주 역시 주당 24시간까지 기본 지원, 기타 수요를 고려하여 50시간 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서문희 외, 2010), 반일제 이하가 보편적 지원의 기준이 되며 이용시간에 따른 영유아기 서비스 비용지원체계가 확립되어있다.

핀란드 위바스필라시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의 등하원시간을 찍는 기계를 이용하여 기록된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에게 보육료를 청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부모들이 아동의 최적의 그리고 최소한의 기관 이용시간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아동이라는 견해가 있다. 외벌이 가정의 이용시간을 종일에서 반일제 5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Helsingin Sanomat, 2011,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재인용). 핀란드 헬싱키시와 반파시에서도 어린이집 출석카드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아이들의 데이케어 시간을 인터넷 상에 기재하고 저장하여 그에 따라 보육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2011년내에 시범운영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시간도 같은 시스템 안에 저장하여, 그에 따라 보육료 청구 및 교사 임금지급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로서는 1~2년 안에 아이들의 등원 및 귀가 시간을 기록 저장하는 전자시스템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의 도입이 현실에 좀 더 적합한 시스템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 혹은 청구하는 시스템의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elsingin Sanomat, 2011,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재인용).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비판과 논쟁 속에서도 만 2세 미만 아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 이용인 경우 최대 23개월까지 일정액의 현금(월 약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르겐 시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근로 시간 관련 인권 보장과 부모-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보장을 위해 아동의 유

치원 이용시간을 최대 9시간으로 제한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준수의 노동복지와 아동권리에 근거한 이용시간에의 제한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럽국가의 영유아기 보육과 교육의 시간에 관한 정책은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근로시간의 다양화에 맞춘 유연한 정책설계에 근거하며, 유럽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서비스의 이용시간 설계가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Hagemann, Jarausch, & Allemann-ghionda, 2011).

2. 스트레스 연구

가. 영유아 스트레스 연구

영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인지적 수행과 발달에 필요하며, 자가면역반응체계를 증진시키는 적응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만성적, 지속적인 스트레스에의 노출은 아동의 적응과 성장을 방해하는 부적 요인으로 작용하여(Segerstrom & Miller, 2004), 말더듬기, 섭식과 수면의 어려움, 초조나 불안과 같은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 질병에 대한 면역 및 저항력을 감퇴시켜 신체질병을 야기하는 등 아동의 건강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은영, 1998; O'Brien, 1988).

아동은 출생과 함께 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며, 이후 성장하면서 보육·교육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며 문제해결의 방법에 미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다. 아동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Honig, 1986), 아동기에 받은 스트레스가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obolewski & Amoto, 2005; Wheaton & Clarke, 2003) 보고도 있다.

아동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동요인(아동의 연령 및 성격, 건강상태, 발달수준, 또래관계, 억제와 문제행동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유형 등), 가정환경요인(가족유형, 가구소득 및 빈곤, 취약특성, 어머니의 맞벌이 여부, 학대/방임 등의 병리적 요인), 가족 밖 생태학적 요인(기관이용의 시작시기와 이용시간, 보육경험의 질,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요인(조기 교육

및 학업성취에의 압력 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먼저 아동 연령과 관련하여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스트레스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만 3세 이하의 아동이 만 4, 5세 아동보다 스트레스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류왕효, 2006).

둘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Chandler, Million, & Shremis, 1985; Evans, 2003), 이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위축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cLoyd, 1998). 빈곤 등으로 인한 취약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적절한 돌봄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양육을 경험하여 자기통제력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게 되어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설명되었다(Conger, Wallace, Sum, Simon, McLoyd & Brody, 2002).

셋째,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관련하여, 생후 1년미만 주당 20시간 이상의 기관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발달적 위기(developmental risk)를 겪게 하며 이는 아동이 취학 전까지 계속된다고 보고하였다(Belsky, 1988). 이 뿐만 아니라 생애 이른 시기의 기관 경험은 아동의 공격성과 반항 등 문제행동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애 이른 시기의 기관경험이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보고되었다(Belsky, 2002). 종일제 보육시설을 경험하는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연구에서 오전에 비해 오후에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결과(Dettling, Gunnar & Donzella, 1999)를 보고되었다.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반과 반일반 이용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종일반의 유아가 반일반 유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희영, 2001; 오경미, 2002; 진성아, 2006), 만 2~4세까지 반일제와 종일제 보육을 경험한 영유아를 각각 비교한 경우, 종일제 보육을 경험한 영유아가 보다 공격적이고 좌절에 대한 참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숙령, 1996). 종일제 보육과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아동을 비교한 경우, 시간연장 보육을 받은 아동이 종일제 보육을 받은 아동보다 전반적인 스트레스 행동이 유의하게 높아 이용시간이 길수록 기관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류왕효, 2006; 노정민, 2010). 그러나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유형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이송희, 2006).

학업성취 압력과 아동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동이 부모의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심리적 안

녕감이 낮다는 보고도 있었다(최경숙, 2007).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스트레스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조절 또는 완화시키는 구체적 환경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육시설의 이용시간과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에 관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이 단순히 보육·교육시설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관의 이용시간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성인의 스트레스 행동 인식 및 평정으로 분석한 것으로 객관적인 생리적 지표인 스트레스호르몬(Cortisol)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스트레스호르몬(Cortisol) 연구

스트레스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의학과 생물학 분야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이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타났으며, 1920년대 정신건강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생리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이 도입되었다(노정민, 2010).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감각 통합, 기억, 주의집중력과 같은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Lupien & McEwen, 1997), 자율신경계, 심혈관계, 소화계,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McEwen, 1998). 많은 연구자들이 스트레스호르몬 코티졸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코티졸이 뇌의 구조 및 신체적 발달,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Gunnar & Cheatham, 2003).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적응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Goodyer, Park & Herbert, 2001)에 따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코티졸

코티졸(cortisol)은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직면하였을 때 반응하여 분비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의 스테로이드성 호르몬(the hypothalamic-pituitary-adrenal(HPA) axis)으로 24시간 주기의 패턴을 가진다. 코티졸은 일반적으로

기상한 30분 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1~2시간 뒤 급격하게 감소하고, 오후와 저녁시간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Kirschbaum, Steyer, Eid, Patalla, Schwenkmezger, & Hellhammer, 1990). 코티졸은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분비되지만 적정량이 아닌 너무 많거나 적은 양은 신체건강에 문제를 유발,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신경체계를 손상시키고 학습과 기억, 정서와 자기조절과 관련된 뇌의 구조를 변형시키기도 한다(Gunnar & Cheatham, 2003).

아동이 가정에 있을 경우와 보육 기관에 있을 경우의 코티졸 수준을 측정한 국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오전보다 오후에 아동의 코티졸 수준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Dettling, Parker, Lane, Sebanc & Gunnar, 2000; Watamura, Sebanc, & Gunnar, 2002). 코티졸 관련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이영 외(2007)는 가정환경에서 유아는 오후에 코티졸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임이 규명되었으며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코티졸 측정 및 분석

과거에는 혈액(plasma)이나 소변(urine)을 통해 코티졸 호르몬을 분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스트레스 관련 행동 특성과 반응, 주관적 지각에 대한 관찰 및 보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신뢰도가 높은 생리학적 도구를 이용한 구체적인 호르몬 수치의 검사, 즉 타액(침, saliva)을 통하여 코티졸 호르몬을 분석할 수 방법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근래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신현종, 2006; 이영, 2007; 박경자 외, 2007; 박희영, 2009; 배예준, 2011). 이러한 체내의 코티졸(cortisol) 호르몬을 채취,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타액을 통한 타액호르몬분석방법(Salivary hormone analysis; SHA)이라고 하는데(배예준, 2011), 이 방법은 대상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고 여러 번 채취할 수 있으며, 실험실이 아닌 집이나 교실 등의 장소에서 채취가 가능하여 어린 아동에게도 간단히 적용할 수 있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적은 양의 타액으로도 코티졸 수준을 분석할 수 있어 심리, 신경 내분비학 분야에서는 타액을 사용한 코티졸 호르몬 분석 방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최정윤, 2008). 이는 아동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인 특성을 정확하게 계량화하고 자극에 의한 아동의 스트레스 반응과 행동 기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돋는다.

타액호르몬분석법은 짧은 시간동안 스트레스에 의한 신체적 변화정도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의 개인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배예준, 2011). 타액호르몬분석시 타액 시료는 연구자가 지정된 시간에 흡수용 솜 막대를 사용하여 약 1분 간 아동의 혀 밑에서 채취하며, 솜 막대에 흡수된 아동의 타액은 채취 직후 바로 -20℃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여 냉동보관 후 원심분리 작업이 이루어진 후 분석된다.

3. 육아지원기간 이용시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된 영유아의 발달 및 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인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및 이용시간의 특성이, 영유아의 발달 및 성장 전반과, 특히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보다 상세히 문헌고찰하였다.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에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외부기관을 접할 기회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때 영유아기 비모성양육, 즉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의 질과 함께 이용 시작 시기와 이용 시간과 같은 '시간' 및 연령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육·교육 기관의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단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실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육아지원기관의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이 아동의 발달(예: 애착, 학업성취, 사회정서성,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궁·부정의 영향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육시설에 다닌 영유아와 그렇지 않은 영유아를 비교한 Clarke-Stewart(1992)의 결과에서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경험한 영유아는 그렇지 않는 영유아보다 IQ 점수가 더 높았으며 눈과 손의 협응이 더 발달되었고 놀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이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하여 더욱 탐구적으로 행동하였고 수학능력이 높았다. 이처럼 대체로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은 아동의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및 이주민 가정의 아동에게 긍정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NICHD ECCRN, 2003, 2004). 그러나 육

아지원기간의 이용시간보다는 질 수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 많았다. 비교적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으며 (NICHD ECCRN, 1997, 2001), 유아기 적정 시간의 이용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교육의 관점에서 학업성취도와 사회정서발달의 중요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유아기 보육의 긍정적 영향력 및 그 지속은 보육의 질과 가정환경, 부모의 민감성, 아동의 성격, 연령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많은 연구들이 보육의 직접적인 긍·부정 효과 중 특히 긴 이용시간이 주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Belsky(1988, 1990, 2001)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긴 보육시간, 구체적으로 생후 1년미만 주당 20시간 이상의 비모성양육은 아동의 애착형성에 부정적이며 공격행동 및 비순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논의되었다. 이스라엘 Haifa 연구에서도 영아기의 낮은 질의 서비스 이용이 부모-자녀간 불안정애착과 상관이 있었는데(Aviezer et al., 2003), 반면에 양질의 이스라엘 Kibbutz의 보육 효과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안정애착 형성과 관련이 있어(Sagi et al., 1994), 이용시간과 서비스 질의 논의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유아기 긴 시간 이용이 아동의 공격성, 내·외적 문제행동, 비순응, 낮은 정서조절력, 비협동의 증가와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Belsky, 2002, 2007; Deborah Lowe Vandell et al, 2010). 또한 영아기에 부모와 떨어져 기관보육에 있는 경우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스트레스 조절에 취약성을 증가시켜 두려움과 행동 및 생리반응 조절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혜경·류왕호, 2006; 김희영, 2001; 오경미, 2002; Tout, Campbell, & Gunnar, 1998; Geoffroy, Cote, Parent, & Seguin, 2006; Vermeer & van IJzendoorn, 2006; Watamura et al., 2003).

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이 아동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보육경험을 하는 아동이 코티졸 수준이 집에서 보다 보육기관에 있을 때에 전반적으로 더 높음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Geffroy et al., 2006; Vermeer & van IJzendoorn, 2006).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미만일수록, 그리고 센터보육인 경우에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Vermeer & van IJzendoorn, 2006). 보육의 질이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코티졸) 분비에 영향을 주어 양질의 보육을 경험한 아동

이 그렇지 않은 아동의 코티졸 수치보다 낮았으며(Sims, Guilfoyle, & Perry, 2006), 양질의 보육일수록 아동의 코티졸 수준의 상승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 해된다. 또한 반일제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측정한 코티졸이 가정에서 측정한 것보다 오히려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Gunnar, Tout, de Haan, Pierce, & Stansbury, 1997) 있다.

1주일에 2~3일 가량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네덜란드의 코티졸 연구에 의하면(Groeneveld, Vermeer, van IJzendoorn, & Linting, 2010),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기관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코티졸 수준을 비교한 결과, 가정보육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기관보육의 경우보다 낮았다. 가정보육시설에서의 보육교사 민감성 수준이 높고 소음수준이 낮은 보다 양질의 환경을 가진 것과 관련이 있어보인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보육경험의 정도 및 보육유형에 상관없이 집보다 보육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정보육의 경우 보육교사 민감성 수준이, 기관보육의 경우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이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보육의 질이 아동의 코티졸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보고되며,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도 보육교사의 민감성 및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관계,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양육자/교사의 민감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생애초기 어머니 양육의 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아동이 스트레스 대처 및 적응을 원활히 하여 양육자와 교사의 민감성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Roiseman et al., 2009).

가정보육이 기관보육의 비해 아동의 코티졸 상승이 적다는 보고는 해외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예: Dettling et al., 2000), 가정보육의 경우 질이 낮은 경우에 한해 아동의 코티졸 상승이 발견되었다면, 기관보육의 경우 서비스의 질과 상관 없이 일관되게 아동의 코티졸 상승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원인으로 어린 아동은 대집단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Legendre(2003)은 아동의 코티졸 상승이 보육환경의 구조적 특성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어, 한 반에 아동이 15명이상 있는 대집단 보육인 경우, 한 반의 혼합연령구성에서 아동간 연령의 차이가 6개월 이상 나는 경우, 놀이환경에서 이용가능한 공간의 협소함, 한 반에 성인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아동의 보육환경에서의 코티졸 수치가 상승한다고 하였다.

한편 종일제 가정보육을 이용하는 만 3~4세 아동의 오전-오후 코티졸 변화를 측정한 결과(Gunnar, Kryzer, Van Ryzin & Phillips, 2010) 어린이집에서도 다수의 아동에게서 보육으로 인한 오전-오후 코티졸 상승은 유의하게 발견되어, 통계적으로 종일제 가정보육 아동의 10%가 오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오후에는 아동의 40%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관보육에서 대집단 크기가 아동의 집중된 상호작용과 긴장완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대집단 가설(Social Complexity hypothesis)을 반박한 바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의 마련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가운데, 국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의 재반 특성(이용시간, 질, 시작연령)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기관이용 아동의 코티졸 스트레스 수치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 상호작용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최정윤, 2008),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에 차이가 있어 저소득층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중류층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코티졸 수치의 오전-오후 시간대별 변화는 보육시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방식이 거부, 방임에 가까울수록 아동의 코티졸 수준이 오전에서 오후로 감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불안, 위축 등의 내현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회적 유능성이 적은 아동일수록 코티졸 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정환경에 따라 유아가 보이는 스트레스호르몬(코티졸) 수준과 그 변화의 양상이 달라져 오후에 줄어드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임이 규명되었으며 아동의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이영 외, 2007). 동 연구에서 가정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억제 성향과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과 같은 아동의 개인 내적인 특성이 코티졸 과잉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기질적으로 행동억제 성향이 많은 아동과 아동의 우울, 불안, 두려움과 같은 내재적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티졸 분비를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화 더 큰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문제행동 특성과의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보육기관 이용 아동에게서 오후 시간 주기적인 코티졸 증가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이용시간의 양이 오후의 코티졸 수준과 연관되어 있음(박경자 외, 2007)이 보고된 바 있다.

III.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및 변화

1. 조사대상 아동의 특성

서울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취학전 영유아 243명과 이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집에서 양육되는 아동(영아) 20명에 대해 하루 3번씩(오전, 오후, 저녁) 2일에 걸쳐 스트레스호르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일 2일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약 1주일 간격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총 263명에 대한 1,576건의 타액 코티졸 수치를 얻었다. 조사 및 분석과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및 분석과정

타액 코티졸 조사는 영유아가 가장 평상시와 같은 상황에서 혀 밑에 솜을 1분 이상 물도록 하여 약 5cm 가량의 솜이 침에 젖도록 한 후, 타액에 젖은 솜을 바로 밀폐용기에 넣어 눌히지 않고 세워서 -20도 이하로 냉동보관한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기관에 보내지도록 하였다. 채취상황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외놀이활동을 막 끝내고 돌아온 뒤나,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음식을 먹은 후, 홍분하거나 울고 난 후 등을 피해 채취하도록 하였다. 영유아가 낯선 사람을 꺼려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아 채취하였다. 채취과정에서 아이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상당시간 물고 있었음에도 침이 잘 나오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정량을 채취하였으나 타액량이 검사량에 못 미치거나 검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일부 사례는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오전 채취는 어린이집에서 대체로 10시경 ~ 10시반경에 이루어졌으며, 간혹 10시반 ~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오후 채취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 일정시간이 경과한 4시경에 어린이집에서 채취한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일부 일찍 귀가한 아동은 집에서 채취하였다. 대체로 오후 3시반~4시반 사이에

이루어졌다. 저녁 채취는 대부분의 아동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녁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사이 시간으로 저녁 8시경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시간의 편차는 있었다.

오후에 하원할 때, 참여아동 부모님 대상으로 조사원이 조사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검사도구와 용기를 드라이아이스팩이 들어있는 보냉백에 넣어, 부모 설문지와 함께 들려 보냈다. 각 부모님은 저녁에 집에서 안내받은 대로 자녀의 타액을 채취한 후 냉동 드라이아이스 팩에 넣어 냉동보관한 후, 다음 날 등원시 어린이집에서 조사원에게 설문지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약 1주일 후 동일하게 반복되어 총 2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나. 조사대상 아동 특성

1) 아동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263명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아동발달상의 특징, 그리고 가족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 44.0%, 여아 50.4%로 표집되었다. 아동 연령별로는 36개월 미만 영아가 72.7%(186명), 36개월 이상 유아가 29.3%(77명)으로 유아보다는 영아가, 그 중에서도 만 1~2세 아동이 많이 표집된 특성을 보인다. 전체 아동의 평균연령은 2.01세(표준편차 1.18년)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로는 첫째아가 조사대상 아동의 약 56%를 보였으며, 둘째아 33.8%, 셋째아 이상 9.5%였다.

조사가 진행된 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6곳에서 81명으로 조사대상 아동의 30.8%, 법인어린이집 2곳에서 57명(21.7%), 가정어린이집 12곳에서 105명(39.9%),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참여한 가정양육의 영영아가 총 20사례(7.6%)로 표집되었다. 영아 위주의 표집을 진행한 관계로,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조사가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가족특성을 살펴본 결과, 약 79%에 해당하는 가족이 부부+자녀의 핵가족 유형을 보였으며, 그 외 한부모 가족 3.8%, 조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가족 14.0%였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48.7%, 1명인 경우는 35.0%였으며, 3명 이상인 경우도 15.6%를 보였다.

〈표 III-1-1〉 아동 특성

구분	%(%)	단위: %(명)
전체	100.0(263)	
성별		
남아	44.0(198)	
여아	50.4(227)	
무응답	5.6(25)	
연령		
만0세	6.1(16)	
만1세	26.6(70)	
만2세	38.0(100)	
만3세	13.7(36)	
만4세	12.9(34)	
만5세	2.7(7)	
출생순위		
첫째아	55.9(147)	
둘째아	33.8(89)	
셋째아	9.1(24)	
넷째아	0.4(1)	
무응답	0.8(2)	
재원기관유형		
국공립어린이집(6곳)	30.8(81)	
법인어린이집(2곳)	21.7(57)	
가정어린이집(12곳)	39.9(105)	
가정양육	7.6(20)	

조사대상 아동의 부모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의 학력이 부 9.9%, 모 12.9%, 취업률(전일제+시간제)이 부 92.7%, 모 62.7%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서의 표집 등으로 상대적으로 다자녀, 취업모 가정이 좀 더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월가구소득 수준이 2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표 III-1-2〉 부모 및 가족 특성

구분	%(%)	단위: %(명)
전체	100.0(263)	
가족유형		
부부+자녀	79.1(208)	
조부모+부모+자녀	14.0(37)	

(표 III-1-2 계속)

구분	% (수)	
한부모+자녀	3.8(10)	
기타	1.5(4)	
무응답	1.5(4)	
자녀수		
1명	35.0(92)	
2명	48.7(128)	
3명	14.8(39)	
4명	0.8(2)	
무응답	0.8(2)	
출생순위		
첫째아	55.9(147)	
둘째아	33.8(89)	
셋째아	9.1(24)	
넷째아	0.4(1)	
무응답	0.8(2)	
응답자 모 연령		
20대	3.5(9)	
30대	80.0(208)	
40세 이상	15.6(41)	
무응답	1.9(5)	
부모 학력	부	모
고졸이하	9.9(26)	12.9(34)
초대졸	19.8(52)	27.8(73)
4년대졸	48.3(127)	45.2(119)
대학원이상	20.9(55)	13.3(35)
무응답	1.2(3)	0.8(2)
부모 취업특성	부	모
전일제취업	91.6(241)	50.2(132)
시간제취업	1.1(3)	12.5(33)
학업/취업훈련	1.1(3)	1.1(3)
휴직/출산휴가	0.4(1)	12.2(32)
전업주부	0.4(1)	22.1(58)
비해당/무응답	5.3(14)	1.9(5)
월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2(19)	
200~300만원 미만	12.9(34)	
300~400만원 미만	17.5(46)	
400~500만원 미만	17.9(47)	
500~600만원 미만	14.4(38)	
600만원 이상	27.0(71)	
무응답	3.1(8)	

2) 아동의 발달 특성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경향 및 평소의 스트레스 행동, 그리고 자녀의 사회정서 행동에 관해 4점 척도로 체크하게 한 결과, 전반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교사의 평정에서 문제행동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고 긍정적인 발달특성에의 응답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한 가운데, 부정적 정서 기질과 스트레스 행동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대체로 그렇지않다는 부정응답이 많았으며, 친사회적 행동에서는 대체로 그림함의 3점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모-자녀 관계와 전반적인 사회관계, 발달수준 평정에서는 대체로 그림함의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발달 특성과 스트레스 및 사회정서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아동의 발달수준 전반

조사대상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3점 내외로 양호한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평정이 교사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인 가운데, ‘인지발달’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어머니는 자녀의 기관적응에서, 교사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에서 가장 낮았다.

남아에 비해 여아의 발달평정이 높았으며, 교사 평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에 대한 발달평정이 높았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정과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정 그리고 부 학력이 고졸이하의 저학력과 대학원이상의 고학력 가정의 아동에 대한 발달평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사의 의하면 (전일)취업모의 자녀일수록, 시간연장서비스를 이용할수록,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병행이용하지 않을수록 발달평정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대상 아동의 발달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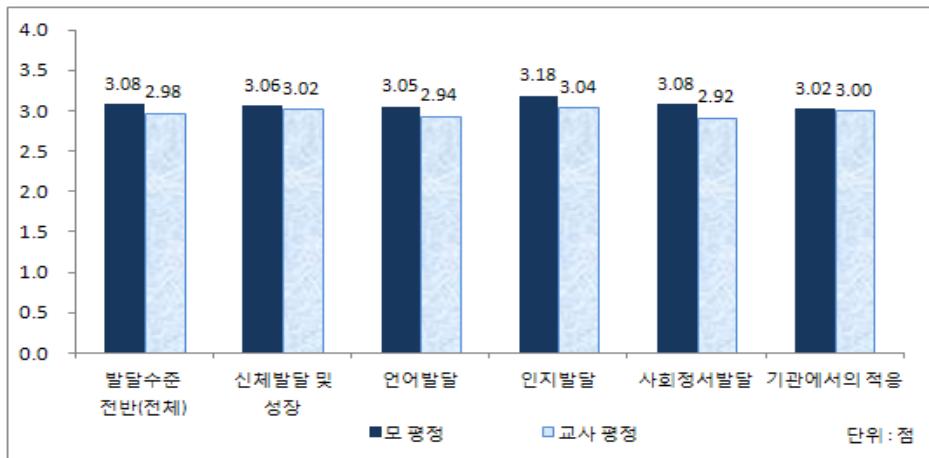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모 평정에서도 상기한 아동의 발달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 평정에 의하면, 기관유형별로 자녀의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발달평정이 가장 높았다.

〈표 III-1-3〉 아동의 발달수준 전반 - 모 평정

	상당히 지연됨	약간 지연됨	양호합- 정상발달	발달이 빠름	결측치	계(수)	평균 (표준편차)
발달수준 전반(전체)	-	19.0	70.7	0.8	9.5	100.0(263)	3.08(.34)
신체발달 및 성장	2.3	8.7	68.1	19.0	1.9	100.0(263)	3.06(.61)
언어발달	2.3	11.4	60.8	20.9	4.6	100.0(263)	3.05(.66)
인지발달	-	5.3	67.7	22.8	4.2	100.0(263)	3.18(.51)
사회정서발달	-	4.9	77.2	12.5	5.3	100.0(263)	3.08(.42)
기관에서의 적응	1.1	7.6	71.9	11.4	8.0	100.0(263)	3.02(.51)

〈표 III-1-4〉 아동의 발달수준 전반 - 교사 평정

	상당히 지연됨	약간 지연됨	양호합- 정상발달	발달이 빠름	결측치	계(수)	평균 (표준편차)
발달수준 전반(전체)	1.5	21.7	64.6	1.1	11.0	100.0(263)	2.98(.40)
신체발달 및 성장	1.5	4.9	73.4	9.5	10.6	100.0(263)	3.02(.48)
언어발달	3.4	14.4	55.9	15.6	10.6	100.0(263)	2.94(.70)
인지발달	1.1	7.2	67.3	13.3	11.0	100.0(263)	3.04(.53)
사회정서발달	1.5	9.9	71.9	6.1	10.6	100.0(263)	2.92(.49)
기관에서의 적응	0.8	8.4	70.7	9.5	10.6	100.0(263)	3.00(.48)



[그림 III-1-1] 아동의 발달수준 전반 : 모/교사 평정 비교

〈표 III-1-5〉 아동의 발달수준(전체) 모/교사평정 평균

단위: %(명)

구분	모 평정			교사 평정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전체)	3.08(.34)	263		2.98(.40)	263	
성별						
남아	3.04(.36)	127	-1.99(236)*	2.91(.43)	125	
여아	3.13(.32)	111		3.07(.34)	109	-3.13(232)**
이용시간						
0시간	3.03(.39)	6		-	-	
2~5시간	3.15(.31)	22		2.80(.47)	25	
6~7시간	3.07(.35)	125	.27(4)	2.94(.38)	122	5.35(3)**
8~9시간	3.09(.30)	67		3.09(.38)	69	
10~12시간	3.06(.49)	18		3.16(.38)	1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05(.37)	16		2.92(.44)	17	
200~399만원	3.03(.36)	73	1.31(3)	3.00(.44)	72	2.12(3) [†]
400~599만원	3.08(.32)	79		3.05(.39)	79	
600만원 이상	3.15(.36)	65		2.89(.34)	60	
부 학력						
고졸이하	3.05(.47)	21		2.89(.40)	25	
초대졸	3.10(.39)	50		3.06(.40)	51	
4년제졸	3.08(.32)	116	.13(3)	3.01(.40)	108	2.85(3)*
대학원이상	3.09(.29)	50		2.86(.36)	48	
모 취업여부						
취업	3.10(.35)	161	1.30(233)	3.04(.35)	158	
미취업	3.04(.34)	74		2.87(.47)	72	3.13(228)**
모 전일취업여부						
전일제취업	3.10(.34)	127	1.11(233)	3.05(.37)	126	
전일제취업아님	3.05(.35)	108		2.91(.42)	104	2.70(228)**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3.12(.38)	89		2.91(.39)	90	
미이용	3.05(.33)	121	1.51(208)	3.01(.42)	120	-1.77(208) [†]
시간 연장 이용여부						
이용	3.13(.39)	35		3.09(.32)	35	
미이용	3.08(.33)	199	.78(232)	2.96(.41)	199	1.74(232) [†]
기관유형						
국공립	3.17(.35)	79		3.04(.37)	78	
민간·법인	3.04(.32)	55		2.90(.42)	56	
가정어린이집	3.03(.34)	98	2.86(5)*	2.98(.41)	100	2.02(2)
가정양육	3.03(.39)	6		-	-	

+ p <.10, * p <.05, ** p < .01, *** p < .001

나)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정서행동을 친사회성,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II-1-6〉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 모 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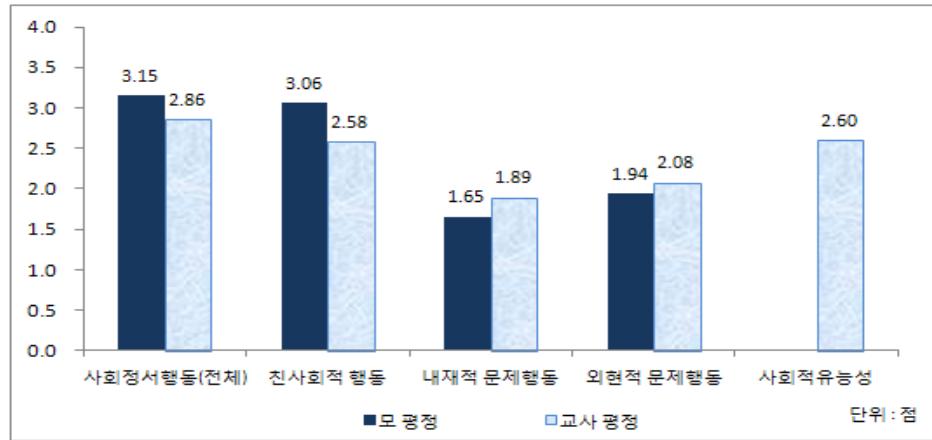
	전혀 아님	대체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결측치	계(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정서행동(전체)	-	13.3	30.4	-	56.3	100.0(263)	3.15(.29)
친사회적 행동	-	16.3	30.8	0.4	52.5	100.0(263)	3.06(.37)
내재적 문제행동	43.3	12.9	-	-	43.7	100.0(263)	1.65(.40)
외현적 문제행동	32.3	32.7	0.4	-	34.6	100.0(263)	1.94(.41)

주: 해당항목을 합친 후 평균값을 4점대로 재분류한 것임.

〈표 III-1-7〉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 교사 평정

	전혀 아님	대체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결측치	계(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정서행동(전체)	0.8	44.9	26.2	-	28.1	100.0(263)	2.86(.42)
친사회적 행동	11.4	46.0	18.3	-	24.3	100.0(263)	2.58(.52)
내재적 문제행동	44.5	33.5	1.9	-	20.2	100.0(263)	1.89(.56)
외현적 문제행동	36.1	38.4	8.7	-	16.7	100.0(263)	2.08(.63)
사회적유능성	6.5	48.3	16.3	-	28.9	100.0(263)	2.60(.52)

주: 해당항목을 합친 후 평균값을 4점대로 재분류한 것임.



[그림 III-1-2]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모/교사 평정 비교

대체로 모의 궁정 평정이 교사에 비해 높은 가운데, 어머니와 교사 모두 아동의 사회정서행동을 평균 3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내재적 문제 행동보다 외현적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평정하였다(표 III-1-6~7).

한편, 아동이 불안해하고 잠을 잘 못자는 등의 부정적 정서 기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균 2점 미만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어머니(1.89점)의 부정적 인식이 교사(1.78점)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III-1-8〉 사회정서행동(전체) 모/교사평정 평균

단위: %(명)

구분	모 평정			교사 평정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전체)	3.15(.29)	263		2.86(.42)	263	
아동 연령						
0~만1세	3.17(.35)	10		2.66(.33)	41	
만2세	3.10(.22)	43		2.88(.44)	76	
만3세	3.23(.35)	23	1.03(3)	2.92(.49)	33	5.09(3)**
만4세	3.14(.30)	39		3.00(.35)	39	
기관유형						
국공립	3.19(.33)	37		2.84(.43)	54	
민간·법인	3.13(.30)	39		2.74(.43)	54	
가정어린이집	3.13(.24)	37	.43(3)	2.96(.40)	81	4.31(2)*
가정양육	3.05(.29)	2		-	-	
코티졸 2페턴						
전형적	3.18(.29)	78		2.89(.42)	127	
비전형적	3.07(.26)	37	1.94(113)†	2.81(.42)	61	1.26(186)
코티졸 4페턴						
A형	3.19(.33)	42		2.88(.46)	73	
B형	3.18(.26)	12		2.95(.32)	16	
D형	3.19(.13)	2	.50(3)	2.61(.46)	5	2.55(3)†
E형	2.91(.57)	2		2.41(.18)	5	

+ p < .10, * p < .05, ** p < .01

사회정서행동(전체)에 대한 교사 평정을 살펴보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정서행동 발달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발달 경향을 보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의 순으로 아동에 대한 교사의 사회정서행동(전체) 평정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 스트레스호르몬의 변화 패턴 유형별로는 전형적 패턴에 해당하는 A, B형의 경우가 비전형

적 패턴인 D, E형에 비해서 사회정서행동(전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²⁾. 이는 어머니의 패턴 분류에서도 나타났다(표 III-1-8).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정서행동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친사회성을 살펴본 결과, 교사평정에 의하면 남아에 비해 여아가, 그리고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사회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용시간에 따른 친사회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친사회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이 높아지나, 대학원이 상의 고학력인 경우가 가장 높은 친사회성 점수를 보이지는 않았다. 모 취업여부와 아동의 현재 어린이집 외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아동의 친사회성에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연장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평정한 친사회성에 차이가 있어 시간연장이용 아동의 친사회성이 미이용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티졸 변화 패턴에 있어 A, B 형의 전형적 패턴을 보이는 아동의 친사회성이 D, E 형의 비전형적 패턴을 보이는 아동에 비해 친사회성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III-1-9).

〈표 III-1-9〉 친사회적행동 모/교사평정 평균

구분	모 평정			교사 평정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전체)	3.06(.37)	263		2.58(.52)	263		
성별							
남아	3.05(.37)	70		2.52(.50)	110		
여아	3.07(.37)	55	-.39(123)	2.66(.54)	89	-1.99(197)*	

2) 본 조사에 의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하루(오전-오후-저녁) 코티졸 변화의 패턴은 A~F, Z 형으로 명명, 분류하였음.

-A형(∧형)은 코티졸 수치가 오후에 올라갔다가 귀가 후 저녁시간에는 떨어지는 패턴, B형(＼형)은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패턴으로 전형적 패턴으로 분류하였음.

-비전형적 패턴으로 D형(∨형)은 오후에 코티졸 수치가 떨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가고, E형(/형)은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르는 패턴, F형은 오전-오후 변화없는 양상을 보이다가 저녁에 떨어지거나, 오후에 떨어져 저녁까지 이어지는 등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구간이 비전형적으로 다른 경우임. C형(—형)은 오전-오후-저녁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패턴, Z형은 조사일 2일간 동일하지 않은 패턴이 공존하는 아동임. (자세한 패턴은 부록 2 참조 요망).

(표 III-1-9 계속)

구분	모 평정			교사 평정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아동 연령						
0~만1세	3.01(.45)	12		2.30(.50)	43	
만2세	3.00(.33)	50		2.58(.50)	82	
만3세	3.17(.41)	24	1.34(3)	2.65(.59)	35	7.95(3)***
만4세	3.07(.36)	39		2.83(.39)	39	
이용시간						
0시간	2.96(.41)	2		-	-	
2~5시간	2.83(.57)	12		2.38(.59)	16	
6~7시간	3.09(.32)	66	1.78(4)	2.59(.49)	112	.99(3)
8~9시간	3.04(.37)	40		2.60(.56)	57	
10~12시간	3.27(.18)	5		2.66(.50)	14	
부 학력						
고졸이하	2.89(.59)	14		2.29(.63)	19	
초대졸	3.01(.36)	26		2.56(.49)	42	
4년제졸	3.14(.32)	57	2.16(3)†	2.66(.46)	95	2.90(3)*
대학원이상	3.01(.03)	27		2.55(.58)	42	
모 취업여부						
취업	3.07(.38)	83		2.59(.54)	133	
미취업	3.02(.35)	41	.73(122)	2.56(.48)	64	.36(195)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3.05(.38)	48		2.56(.51)	73	
미이용	3.04(.38)	69	.11(115)	2.59(.52)	104	-.42(175)
시간 연장 이용여부						
이용	3.28(.37)	13		2.58(.52)	30	
미이용	3.03(.36)	111	2.31(122)*	2.58(.52)	169	-.09(197)
코티졸 2째턴						
전형적	3.13(.33)	84		2.66(.50)	133	
비전형적	2.90(.40)	41	.35(123)**	2.44(.54)	65	2.80(196)**
코티졸 4째턴						
A형	3.11(.37)	46		2.70(.53)	75	
B형	3.15(.30)	14		2.65(.41)	17	
D형	3.00(.12)	2	.58(3)	2.17(.73)	5	2.97(3)*
E형	2.86(.53)	3		2.20(.24)	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정서행동의 두 번째 하위영역인 내재적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재적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평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수록 내재적 문제행동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10~12시간의 장시간 이용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가장 높지는 않아 6~7시간, 8~9시간 이용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내재적 문제행동 평정 점수가 교사에 비해 높았으며, 10~12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가장 높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모 평정에 의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평정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전일)취업 여부 및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모 평정에 의하면 시간연장을 이용하는 아동이 미이용 아동에 비해 그리고 어머니의 기관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내재적 문제행동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교사평정에 의해 D, E형의 비전형적 코티졸 패턴을 보이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1-10〉 내재적 문제행동 모/교사평정 평균

단위: %(명)

구분	모 평정			교사평정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전체)	1.65(.40)	263		1.89(.56)	263	
아동 연령						
0~만1세	3.55(.37)	19		3.13(.48)	48	
만2세	3.34(.40)	62		3.14(.60)	87	
만3세	3.42(.35)	28	3.20(3)*	3.07(.63)	35	.36(3)
만4세	3.22(.43)	39		3.04(.50)	40	
이용시간						
0시간	3.42(.10)	3		-	-	
2~5시간	3.43(.40)	15		2.79(.50)	19	
6~7시간	3.33(.41)	78	1.05(4)	3.14(.58)	119	2.51(3)†
8~9시간	3.31(.40)	44		3.16(.50)	58	
10~12시간	3.59(.38)	8		3.03(.60)	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33(.41)	9		3.22(.63)	16	
200~399만원	3.42(.38)	45		3.18(.53)	63	
400~599만원	3.28(.44)	56	.95(3)	3.03(.57)	71	1.09*(3)
600만원 이상	3.34(.37)	34		3.08(.57)	56	

(표 III-1-10 계속)

구분	모 평정			교사평정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시간 연장 이용여부						
이용	3.57(.35)	22	2.92(145)**	3.09(.52)	28	
미이용	3.31(.40)	125		3.11(.56)	182	-.15(208)
코티졸 2페탄						
전형적	3.35(.43)	100		3.07(.58)	141	
비전형적	3.35(.35)	48	.05(146)	3.20(.51)	68	-1.63(207)
코티졸 4페탄						
A형	3.37(.44)	55		3.07(.60)	79	
B형	3.36(.44)	15		3.11(.52)	20	
D형	3.27(.18)	3	.12(3)	3.22(.32)	5	2.50(3) [†]
E형	3.24(.53)	3		2.38(.48)	5	

+ p < .10, * p < .05, ** p < .01

사회정서행동의 세 번째 하위영역인 외현적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현적 문제행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모와 교사 평정에 의하면 하루 6시간 이상 이용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1-11〉 외현적 문제행동 모/교사평정 평균

단위: %(명)

구분	모 평정			교사평정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전체)						
아동 연령	1.94(.41)	263		2.08(.63)	263	
0~만1세	2.98(.47)	27		2.69(.61)	56	
만2세	3.06(.39)	75		2.95(.63)	88	
만3세	3.04(.44)	31	.79(3)	2.96(.71)	35	4.38(3)**
만4세	3.14(.39)	39		3.14(.52)	40	
이용시간						
0시간	3.06(.38)	6		-	-	
2~5시간	3.23(.48)	15		2.85(.60)	18	
6~7시간	3.07(.38)	93	.85(4)	3.00(.64)	122	1.65(3)
8~9시간	3.01(.43)	50		2.82(.61)	62	
10~12시간	3.01(.53)	8		2.76(.66)	17	

** p < .01

사회정서행동의 네 번째 하위영역인 사회적 유능성은 교사에 의해서만 평정된 항목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월 6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과 대학원이상의 최고학력 가구의 아동이 가장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취업모의 자녀일수록,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시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평정이 높은 점이 특징적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코티졸 패턴 유형에 의하면 A, B형의 전형적 패턴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1-12〉 사회적 유능성 - 교사 평정

단위: %(명)

구분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성별			
남아	2.54(.49)	103	
여아	2.67(.55)	84	-1.69(185) [†]
아동 연령			
0~만1세	2.31(.46)	38	
만2세	2.62(.55)	76	
만3세	2.71(.57)	33	5.59(3)**
만4세	2.72(.36)	40	
이용시간			
0시간	-	-	
2~5시간	2.39(.47)	16	
6~7시간	2.57(.53)	100	1.72(3)
8~9시간	2.67(.50)	58	
10~12시간	2.74(.59)	1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48(.49)	15	
200~399만원	2.56(.50)	61	
400~599만원	2.68(.53)	63	1.07(3)
600만원 이상	2.54(.54)	43	

(표 III-1-12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 F
부 학력			
고졸이하	2.29(.53)	19	
초대졸	2.56(.52)	41	
4년제졸	2.70(.49)	85	3.82(3)*
대학원이상	2.53(.50)	41	
모 취업여부			
취업	2.63(.53)	124	
미취업	2.53(.51)	61	1.29(183)
모전일제취업여부			
전일제취업	2.63(.53)	96	
전일제취업아님	2.56(.51)	89	.94(183)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2.55(.44)	71	
미이용	2.63(.57)	98	-1.02(167)
시간 연장 이용여부			
이용	2.63(.61)	27	
미이용	2.59(.51)	160	.36(185)
코티졸 2페틴			
전형적	2.64(.50)	129	
비전형적	2.49(.57)	57	1.88(184)†
코티졸 4페틴			
A형	2.67(.56)	72	
B형	2.68(.39)	16	
D형	2.15(.61)	5	3.14(3)*
E형	2.11(.41)	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 조사대상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및 부모/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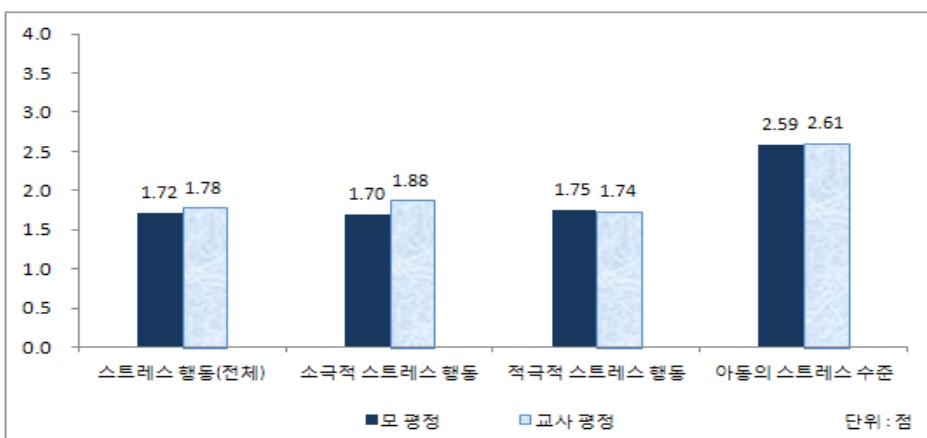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평정을 어머니와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사의 아동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응답이 어머니 응답보다 높았으며, 구체적인 행동항목들에 대한 응답보다 전반적인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인식(1문항)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 평균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약 1.7점, 스트레스 수준 약 2.6점으로 어린이집 이용 조사대상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과 수준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1-13〉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 모 평정

	전혀 아님	대체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결측치	계(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행동(전체)	47.1	17.5	-	-	35.4	100.0(263)	1.72(.39)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55.1	25.1	1.5	-	18.3	100.0(263)	1.70(.48)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43.3	23.2	-	-	33.5	100.0(263)	1.75(.41)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3.0	41.1	48.3	6.5	1.1	100.0(263)	2.59(.66)
아버지 스트레스 수준	1.9	9.5	46.0	39.9	2.7	100.0(263)	3.31(.75)

〈표 III-1-14〉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 교사 평정

	전혀 아님	대체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결측치	계(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행동(전체)	47.1	28.5	0.4	-	24.0	100.0(263)	1.78(.48)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41.8	38.4	4.6	-	15.2	100.0(263)	1.88(.64)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50.6	27.0	0.4	-	22.1	100.0(263)	1.74(.47)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4.6	30.0	44.5	6.1	14.8	100.0(263)	2.61(.70)
선생님의 스트레스 수준	-	14.8	55.1	13.3	16.7	100.0(263)	2.9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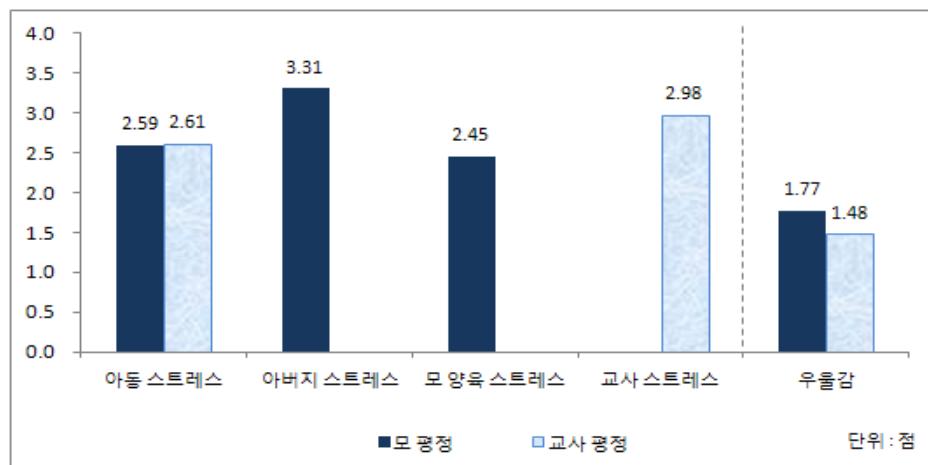


[그림 III-1-3] 아동의 스트레스행동 및 수준 모/교사 평정 비교

하위영역별로 모 평정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이, 교사 평정에 의하면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응답되어, 가정환경과 어린이집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행동의 경향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및 수준을 부모와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응답과 비교하면, 자녀에 비해 아버지와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스트레스 수준에 비해 어머니 및 교사의 우울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모의 우울감은 교사의 우울감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림 III-1-4] 모/교사 평정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우울감 비교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전체)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을 하위변인별로 비교한 결과,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교사평정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2~5시간 이용의 경우 스트레스 행동이 가장 많은 가운데, 6시간 이상 이용의 경우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이 많이 인식되었다. 모 평정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부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이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교사 평정에 의하면 부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 및 가정환경에서의 교사 및 부모에 의한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행동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 기관환경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부 학력이 높은 가정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행동 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스트레스호르몬 조사와 견주어 논할 필요가 있겠다.

교사에 의하면 미취업모의 자녀일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어머니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 시간연장 이용에 의해서도 모-교사간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 교사의 경우 시간연장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어머니의 경우 시간연장 미이용 자녀의 스트레스 행

동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시간연장 미이용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아 모의 자녀의 행동 인식이 더 많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의 시간연장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인식이 더 많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5〉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전체) 모/교사평정 평균비교

구분	모 평정			교사 평정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전체)	1.72(.39)			1.78(.48)	263		
성별							
남아	1.68(.37)	94	-1.46(168)	1.75(.50)	108		
여아	1.77(.41)	76		1.81(.46)	92	-.80(198)	
아동 연령							
0~만1세	1.67(.40)	24		1.87(.48)	42		
만2세	1.70(.36)	75		1.77(.48)	86		
만3세	1.67(.40)	31	1.37(3)	1.74(.53)	32	.77(3)	
만4세	1.83(.41)	40		1.73(.44)	40		
이용시간							
0시간	1.69(.36)	5		-	-		
2~5시간	1.60(.46)	17		2.03(.49)	15		
6~7시간	1.75(.38)	88	.68(4)	1.71(.49)	110	2.47(3) [*]	
8~9시간	1.72(.40)	50		1.81(.47)	61		
10~12시간	1.64(.28)	10		1.89(.37)	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3(.38)	10		1.87(.45)	15		
200~399만원	1.71(.43)	52		1.78(.46)	63		
400~599만원	1.75(.40)	60	.45(3)	1.84(.47)	66	1.22(3)	
600만원 이상	1.69(.31)	44		1.68(.51)	52		
부 학력							
고졸이하	1.69(.49)	14		1.83(.44)	19		
초대졸	1.69(.40)	35		1.83(.50)	45		
4년제졸	1.72(.36)	81	.22(3)	1.75(.49)	94	.38(3)	
대학원이상	1.75(.42)	39		1.76(.48)	41		
모 취업여부							
취업	1.73(.38)	112		1.76(.46)	133		
미취업	1.69(.40)	56	.64(166)	1.81(.51)	64	-.63(195)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1.76(.41)	64		1.78(.45)	75		
미이용	1.70(.38)	86	.91(148)	1.78(.50)	106	-.03(179)	

(표 III-1-15 계속)

구분	모 평정			교사 평정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시간 연장 이용여부						
이용	1.60(.35)	25	-1.79(165) [*]	1.93(.45)	30	1.89(198) [*]
미이용	1.75(.39)	142		1.75(.48)	170	

+ $p < .10$

구체적으로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교사 공통적으로 여아의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응답이 더 많았으며, 아동의 연령과 어린 이집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경향이 없었다. 가구소득 변인에 의하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다른 가구의 아동에 비해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의 아동이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교사 평정에 의하면 미취업 모의 자녀일수록 그리고 시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일수록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6〉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모/교사평정 평균비교

단위: %(명)

구분	모 평정			교사 평정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전체)	1.70(.48)	263		1.88(.64)	263	
성별						
남아	1.63(.44)	118	-2.10(213)*	1.88(.66)	121	.06(221)
여아	1.77(.52)	97		1.87(.62)	10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8(.50)	14		2.12(.65)	17	
200~399만원	1.62(.49)	63		1.83(.60)	68	
400~599만원	1.75(.47)	72	1.47(3)	1.92(.65)	77	1.28(3)
600만원 이상	1.69(.47)	61		1.80(.69)	56	
모 취업여부						
취업	1.69(.47)	140	-2.27(210)	1.83(.60)	149	-1.18(218)
미취업	1.71(.50)	72		1.94(.72)	71	
시간 연장 이용여부						
이용	1.62(.40)	30	-.97(205)	2.02(.62)	33	1.41(221)
미이용	1.71(.50)	177		1.85(.64)	190	

* $p < .05$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전일)취업 여부와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연장서비스 이용 여부에 의해서는, 모 평정에 의하면 시간연장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일수록, 교사 평정에 의하면 시간연장을 이용하는 아동 일수록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이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코티졸 패턴에 의해서는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7〉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모/교사평정 평균비교

구분	모 평정			교사 평정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수	t, F	평균 (표준편차)	수	t, F	
(전체)	1.75(.41)	263		1.74(.47)	26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7(.40)	10		1.79(.49)	15		
200~399만원	1.76(.44)	55	.46(3)	1.74(.48)	64	.66(3)	
400~599만원	1.76(.43)	62		1.77(.43)	68		
600만원 이상	1.71(.33)	44		1.66(.50)	53		
시간연장 이용 여부							
이용	1.61(.40)	25		1.89(.45)	30		
미이용	1.78(.41)	146	-1.85(169)†	1.71(.47)	175	1.94(203)†	

+ p < .10

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현황

1)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

조사참여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³⁾을 조사한 결과, 가정양육 20사례가 0시간인 것 외에, 7시간대(25.1%), 6시간대(23.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시간대(16.3%), 9시간대(10.3%), 그리고 10시간대와 5시간대가 각 4.2%, 4시간대(3.0%), 11시간대(1.9%), 3시간대(1.5%), 2시간대(1.1%). 그리고 12시간대(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을 구분한 결과, 6~7시간과 8~9시간이 다수를 보였으며, 가정양육사례를 제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243명의 평균 이용시간(편차)는

3) 어린이집의 등하원일지와 부모의 설문조사 응답을 고려하여 산출함.

7.09시간(1.70시간)이었다. 가정양육을 포함한 전체 263명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은 6.78시간(2.47시간)으로 조사되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이용시간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표 III-1-18〉 조사일 어린이집 이용시간

구분	%(%명)	단위: %(명), 점
전체	100.0(263)	
기관 이용시간		
0시간	7.6(20)	
2~5시간	9.8(26)	
6~7시간	48.7(128)	
8~9시간	26.6(70)	
10~12시간	7.3(19)	
결측치	0.4(1)	
평균(표준편차)	6.78(2.47), 7.09(1.70)	

영아 위주의 표집으로 연령대별로는 만 2세 이하의 5시간 및 6~7시간 이하의 이용시간이 많은 가운데 영아의 이용시간 분포가 다양한 편이다. 조사대상 유아는 6~7시간, 8~9시간이 주 이용시간으로 나타나, 연령별 이용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hi^2(df)= 53.04(20)***$).

〈표 III-1-19〉 아동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구분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수)	단위: %(명)
0시간	35.0(7)	40.0(8)	25.0(5)	-	-	-	100.0(20)	
2~5시간	11.5(3)	34.6(9)	34.6(9)	7.7(2)	11.5(3)	-	100.0(26)	
6~7시간	1.6(2)	24.2(31)	43.0(55)	15.6(20)	10.9(14)	4.7(6)	100.0(128)	
8~9시간	5.7(4)	22.9(16)	34.3(24)	15.7(11)	20.0(14)	1.4(1)	100.0(70)	
10~12시간	-	33.3(6)	38.9(7)	16.7(3)	11.1(2)	-	100.0(18)	
전체	6.1(16)	26.7(70)	38.2(100)	13.7(36)	12.6(33)	2.7(7)	100.0(262)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등하원시간을 부모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9시경에 등원하여 오후 4시 이후~5시경에 하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 연장을 이용하는 아동은 조사대상 아동 전체의 13.3%로 나타났으며, 평균횟수는 전체 아동 월 0.83회로 1회 미만 평균 51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0).

〈표 III-1-20〉 어린이집 등하원 및 하루이용시간(부모응답기준)

단위: %(명)

	평균	(수)
등원시간	9.15시	(243)
하원시간	16.78시	(243)
시간연장 이용 아동 비율	13.3%(35)	(263)
월평균 시간연장 이용횟수	0.83회(2.97)	(243)

2) 현재 어린이집 이용 이유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참여 아동의 기관 이용 이유를 어머니에게 조사한 결과, '취업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47.5%)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같이 놀 친구들을 만나게 하기 위함'(29.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표 III-1-21).

〈표 III-1-21〉 현재 어린이집 이용 이유

단위: %(명)

응답	비율(수)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8.0(21)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47.5(125)
사회성 발달/같이 놀 친구들을 만나게 하려고	29.3(77)
양육부담 경감/자녀양육이 힘들어서	6.5(17)
기타	1.5(4)
무응답/비해당	7.2(19)
계	100.0(263)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 4.43점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특히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특기활동'과 '부모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표 III-1-22).

〈표 III-1-22〉 모의 기관만족도 평가

단위: 점(명)

항 목	평균/표준편차	(수)
원장	4.49(0.80)	(242)
교사	4.64(0.67)	(244)
프로그램/보육과정	4.41(0.80)	(241)
특별활동/특기교육	4.12(0.86)	(237)
이용시간	4.46(0.75)	(241)

(표 III-1-22 계속)

항 목	평균/표준편차	(수)
시설설비/실내환경	4.43(0.76)	(242)
비용	4.52(0.79)	(242)
부모교육/부모참여	4.13(0.90)	(240)
부모상담/응대	4.47(0.75)	(242)
내부분위기	4.50(0.70)	(241)
전반적인 만족도	4.50(0.67)	(237)
만족도 평균	4.43(0.60)	(225)

한편, 교사의 현재 근무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 평균 3.75점으로 모 평정에 비해 낮았다. '서비스의 질'과 '시설/설비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근무시간'과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III-1-23).

〈표 III-1-23〉 교사의 근무기관 만족도 평가

	단위: %(명), 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결측치	계(수)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전체)	2.3	11.8	31.6	32.7	5.7	16.0	100.0(263)	3.75(.75)
근무시간	3.8	19.8	40.3	8.7	12.2	12.2	100.0(263)	3.00(1.09)
근로여건	2.3	16.3	27.0	30.0	12.2	12.2	100.0(263)	3.38(1.02)
서비스의 질	3.4	1.5	14.1	30.8	38.0	12.2	100.0(263)	4.12(1.00)
특별활동	1.5	1.5	27.4	36.9	16.7	16.0	100.0(263)	3.78(.85)
시설설비/환경	1.5	3.4	14.8	33.8	34.2	12.2	100.0(263)	4.09(.93)
내부분위기	1.5	0.8	28.1	24.3	33.1	12.2	100.0(263)	3.99(.94)
전반적만족도	1.5	1.9	31.9	27.0	25.5	12.2	100.0(263)	3.83(.93)

3) 현재 다른 육아지원기관 및 서비스 이용 현황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외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교육 및 보육, 돌봄 서비스(조부모 포함)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5.7%로 약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평균 1~7시간 미만 17.5%, 7~19시간 5.3%, 그리고 조부모 돌봄으로 보이는 30시간 이상도 7.9%로 나타나, 주 이용기관 외 병행 이용에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표 III-1-24).

〈표 III-1-24〉 현재 어린이집 외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시간

응답	비율(수)	단위: %(명)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함	35.7(94)	
이용 안 함	48.3(127)	
무응답	16.0(42)	
다른 서비스 1주 총 이용시간(조부모 포함)		
0시간	64.6(170)	
1시간 미만	5.7(15)	
1~3시간 미만	5.4(14)	
3~7시간 미만	6.4(17)	
7~11시간 미만	3.4(9)	
11~19시간	1.9(5)	
20~29시간	4.9(13)	
30~39시간	3.1(8)	
40~60시간	2.4(6)	
98시간 이상(98~135시간)	2.4(6)	
계	100.0(263)	

〈표 III-1-25〉 현재 이용하는 다른 서비스 유형(중복응답)

구분	%	(수)	단위: %(명)
전체	100.0	(263)	
시간제특기학원	12.2	(32)	
지역아동센터/주민센터등 공공기관	0.4	(1)	
문화센터등 사설기관	5.3	(14)	
기타기관	1.2	(3)	
친조부모	6.1	(16)	
외조부모	9.1	(24)	
기타 친인척	1.5	(4)	
육아전문인력(아이돌보미)	3.4	(9)	
비전문비혈연	2.3	(6)	
기타	2.7	(7)	

현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교육 및 보육, 돌봄 서비스(조부모 포함) 유형은 조부모 돌봄(15.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제 특기학원 (12.2%),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5.3%), 육아전문인력/아이돌보미(3.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1-25).

4) 과거 육아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참여 아동 중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전에 경험한 육아지원서비스, 즉 비모성양육의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5%(230명)으로 이용한 적 ‘없다’는 12.5%에 불과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심으로 표집한 표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 최초이용시기는 평균 아동 월령 9.4개월로 12개월 미만의 이른 시기로 나타났다. 현재 이전 서비스 이용 총수는 평균 2.2개(조부모 포함), 1.6개(조부모 제외), 1주 평균 약 12시간 이용으로 나타났다(표 III-1-26).

〈표 III-1-26〉 육아지원서비스 최초 이용시기 및 기간/시간 평균

구분	최소값	최대값	단위: %(명)	
			평균(표준편차)	(수)
비모성최초이용시기(조부모포함)	.00	57.00	9.40(9.44)	(230)
과거이용서비스총수(조부모포함)	.00	9.00	2.16(1.74)	(263)
과거이용총수(조부모제외)	.00	7.00	1.57(1.24)	(263)
과거비모성1주평균이용시간	.00	125.20	12.05(16.31)	(263)

비모성양육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최초 이용한 아동의 월령을 조사한 결과(조부모 포함), 1~6개월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0개월(10.6%)도 적지 않아 조사 대상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최초 이용시기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서비스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 조부모 돌봄을 제외하고 1개(37.6%), 2개(27.4%), 3개(12.1%)의 순으로 나타나 아동별로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stability)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27~28).

〈표 III-1-27〉 육아지원서비스 최초 이용시기(조부모 포함)

최초이용시기(아동월령)	단위: %(명)	
	비율(수)	
0개월	10.6(28)	
1~6개월	38.0(100)	
7~12개월	11.0(29)	
13~18개월	13.3(35)	
19~24개월	7.6(20)	
25~30개월	4.2(11)	
31~36개월	1.1(3)	

(표 III-1-27 계속)

최초이용시기(아동월령)	비율(수)
31~36개월	1.1(3)
37~57개월	1.5(4)
무응답	12.5(33)
계(수)	100.0(263)

<표 III-1-28> 과거 이용한 육아지원서비스 수

구분	(조부모돌봄 포함)	(조부모돌봄 제외)	단위: %(명)
0개(없음)	13.7	17.1	
1개	25.5	37.6	
2개	30.0	27.4	
3개	14.4	12.1	
4개	6.8	3.0	
5개 이상	9.5	2.7	
평균(표준편차)	2.16개(1.74)	1.57개(1.24)	
계(수)	100.0(263)	(263)	

<표 III-1-29> 과거 육아지원서비스 종류(중복응답)

구분	비율	(수)	단위: %(명)
전체	100.0	(26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39.5	(104)	
직장어린이집	0.4	(1)	
민간어린이집	29.3	(77)	
가정어린이집(놀이방)	30.4	(80)	
국공립유치원	2.7	(7)	
반일제이상보내는학원	0.4	(1)	
시간제특기학원	2.7	(7)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5.4	(14)	
기타기관	0.4	(1)	
친조부모	11.8	(31)	
외조부모	20.1	(53)	
기타친인척	2.3	(6)	
육아전문인력(아이돌보미)	5.0	(13)	
비전문비혈연	3.8	(10)	
기타	7.3	(19)	

과거 이용한 서비스 유형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별로 30% 이상을 보여 가장 많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32%, 기타 및 비혈연 보육이 약 16%로 나타났다(표 III-1-29).

라. 조사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특성

조사참여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앞서 살펴본 모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모 우울, 부 스트레스에 대해 하위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모 스스로 평정한 것으로, 4점 척도 8개 항목 총점 평균 2.45점으로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모의 우울감은 1.77점으로 모 양육스트레스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응답된 가운데, 모가 인식한 부의 스트레스 수준은 3점 이상으로 다소 높았다(표 III-1-30).

〈표 III-1-30〉 모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단위: %(명), 점 (수)
모 양육스트레스(8문항)	1.13	3.75	2.45(0.48)	(260)
부 스트레스(1문항)	1	5	3.31(.75)	(261)
모 우울(5문항)	1.00	3.00	1.77(.49)	(244)

2) 모의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할 때 모가 행하는 행동양식에 대해 모 스스로 4개 영역 11개의 문항에 대해 4점 평정한 것으로, 전체 평균 3.15점으로 긍정적 양육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의 부모는 ‘정서적 공감과 수용’, ‘칭찬하기’, ‘대화나누기’를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체벌 훈육’과 ‘공부 가르치기’는 적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III-1-31).

〈표 III-1-31〉 모의 양육행동 – 모 평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	계(수)	단위: 점(명) 평균 (표준편차)
여가활동 영역							
함께 놀아주기	0.4(1)	9.9(26)	62.0(163)	27.0(71)	0.8(2)	100.0(263)	3.16(0.60)
발달·교육 영역							
책읽기	0.4(1)	17.5(46)	51.3(135)	27.8(73)	3.0(8)	100.0(263)	3.10(0.69)
자율적 행동	-	9.1(24)	67.7(178)	20.2(53)	3.0(8)	100.0(263)	3.11(0.54)
모르는것 설명	0.8(2)	8.4(22)	46.8(123)	31.9(84)	12.2(32)	100.0(263)	3.25(0.66)
공부 가르치기	4.2(11)	39.2(103)	40.3(106)	9.5(25)	6.8(18)	100.0(263)	2.59(0.73)
칭찬하기	-	3.8(10)	47.1(124)	46.8(123)	2.3(6)	100.0(263)	3.44(0.57)
규제·지도 영역							
엄격한 훈육	1.9(5)	20.9(55)	59.3(156)	16.7(44)	1.1(3)	100.0(263)	2.92(0.67)
기본생활습관	0.8(2)	5.3(14)	46.8(123)	39.2(103)	8.0(21)	100.0(263)	3.35(0.63)
체벌 훈육	26.6(70)	28.1(74)	34.2(90)	3.4(9)	7.6(20)	100.0(263)	2.16(0.89)
규율·제한두기	3.4(9)	22.1(58)	42.6(112)	17.9(47)	14.1(37)	100.0(263)	2.87(0.78)
친밀·반응성영역							
대화 나누기	0.4(1)	6.1(16)	44.5(117)	41.5(108)	8.0(21)	100.0(263)	3.37(0.63)
아이입장 공감	0.8(2)	9.1(24)	63.5(167)	25.5(67)	1.1(3)	100.0(263)	3.15(0.60)
정서적 공감/수용	0.4(1)	4.2(11)	37.3(98)	57.4(151)	0.8(2)	100.0(263)	3.53(0.60)

3) 부모-자녀 시간 특성

부모의 근로 및 자녀와 함께 보내는/놀아주는 시간, 그리고 실외활동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모와 미취업모간에 자녀와 함께 보내고 놀아주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부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자녀의 실외활동시간의 경우 취업모 가구의 시간이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표 III-1-31).

〈표 III-1-32〉 부모-자녀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취업모 (취업/학업/훈련중)	미취업모	단위: 점
부 평일 근무시간	10.39(2.44)	10.42(2.37)	10.30(2.70)	
모 평일 근무시간	5.31(4.24)	6.84(3.58)	0.00(0.00)	
부 1주 근무시간	55.74(18.47)	55.58(17.37)	55.89(22.07)	
모 1주 근무시간	27.00(21.99)	34.48(18.78)	0.17(1.23)	
부 평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2.72(1.92)	2.65(1.87)	2.92(2.10)	

(표 III-1-32 계속)

구분	전체	취업모 (취업/학업/훈련중)	미취업모
모 평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6.13(3.68)	5.23(2.91)	9.36(4.46)
부 1주 자녀와 보내는 시간	31.33(17.32)	31.46(17.68)	31.00(16.34)
모 1주 자녀와 보내는 시간	53.26(24.16)	48.69(20.10)	69.66(30.76)
부 1주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12.80(12.26)	12.85(12.02)	12.88(13.37)
모 1주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21.11(16.14)	19.48(14.34)	27.67(20.77)
부 1주 자녀의 실외활동시간	6.04(5.55)	5.76(5.46)	6.99(5.92)
모 1주 자녀의 실외활동시간	8.54(6.52)	8.31(6.47)	9.43(6.84)

2. 스트레스호르몬 조사 결과

타액 코티졸조사를 위해 미국 Salimetrics사의 Salivarycortisol Enzyme Immunoassay 시약을 사용하였으며⁴⁾, 해당 제조사에서 제시한 검사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30nmol/l 이상의 극단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가. 코티졸 수준 및 패턴

1) 전체 코티졸 수준 및 변화

타액 기준 참고치를 고려하여 코티졸 수치가 약 30nmol/l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오전-오후-저녁의 평균이 첫날 6.06-7.50-3.86, 둘째날 5.99-7.89-4.24로 유사한 패턴과 수치를 보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보고된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코티졸 패턴을 보여 오후에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귀가후 저녁시간까지 고려한 결과 평균적으로 집에서는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오전-오후-저녁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오후에서 오전 코티졸 수치를 뺀 결과, 저녁에서 오후 코티졸 수치를 뺀 검사치를 살펴보면, 조사일 2일 평균 오

4) 타액 코티졸수치 범위 및 단위(Salimetrics, 2011)

구분	정상범주	
	오전 8시 4.30-22.40 ug/dL	118.68~618.24 nmol/L
혈액 기준 참고치	오후 4시 3.09-16.66 ug/dL	85.28~459.81 nmol/L
타액 기준 참고치 (Tietztextbook제공)	오전 7시 0.14~1.01 ug/dL	3.864~27.87 nmol/L
	저녁 10시 0.07~0.22 ug/dL	1.93~6.07 nmol/L
단위환산factor ug/dL * 27.6=nm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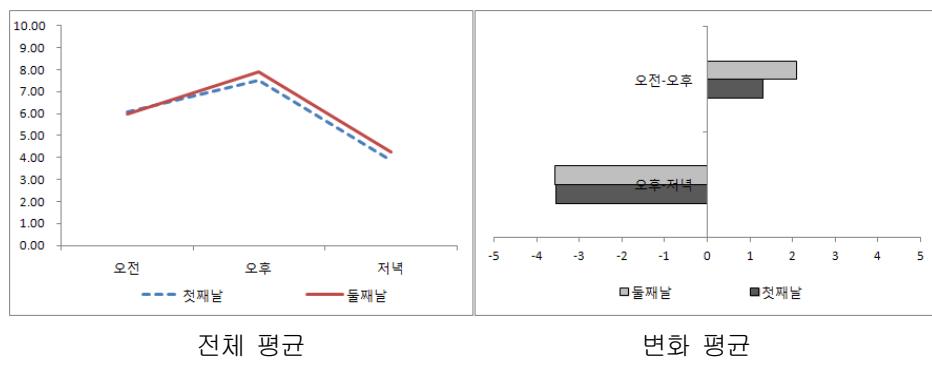
후-오전은 (+)값, 저녁-오후는 (-)값으로 나타나, 오후에 상승했다가 귀가후 저녁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전체 평균값은 참고기준치의 정상범주에서 높지 않은 수준의 코티졸 수치를 보인다.

〈표 III-2-1〉 코티졸 평균 - 전체

단위: %(명)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
첫날					
오전	0.91	29.26	6.06	4.81	(245)
오후	0.94	29.42	7.50	5.09	(249)
저녁	0.58	29.01	3.86	3.52	(251)
둘째날					
오전	1.52	26.69	5.99	4.30	(242)
오후	1.60	29.34	7.89	5.09	(244)
저녁	0.66	28.59	4.24	4.66	(238)
오전평균	1.77	23.02	5.89	3.61	(229)
오후평균	1.91	25.37	7.68	3.95	(236)
저녁평균	0.87	22.64	3.92	3.31	(229)
오전-오후 변화					
첫날(오후-오전)	-16.09	19.99	1.31	5.56	(238)
둘째날(오후-오전)	-18.99	20.20	2.09	5.60	(232)
오후-저녁 변화					
첫날(저녁-오후)	-23.18	15.13	-3.55	5.28	(241)
둘째날(저녁-오후)	-23.65	20.42	-3.58	6.12	(230)
첫날 코티졸총량	4.19	64.56	16.50	8.08	(233)
둘째날 코티졸총량	5.63	64.67	17.11	8.86	(221)
2일 코티졸총량	13.61	85.45	32.75	12.41	(204)

주: 30nmol/l 이상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임.



[그림 III-2-1] 시간대별 전체 코티졸 수준 및 차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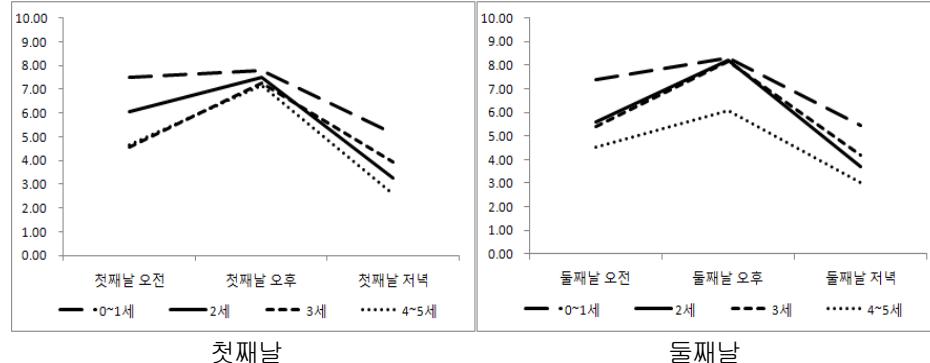
2) 아동특성별 코티졸 수준 및 패턴

아동 연령에 따른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아에 비해 영아의 코티졸 수준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으며, 오후에 상승했다 귀가후 떨어지는 패턴은 전체 평균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2-2>에서와 같이 아동 연령에 의한 코티졸 평균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대다수인 관계로 기관이용아동의 전형적인 패턴인 오후에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I-2-2> 코티졸 평균 비교 - 아동연령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전체	6.06	7.50	3.86	5.99	7.89	4.24	(263)
연령							
0~1세	7.49	7.79	5.16	7.39	8.31	5.47	(86)
2세	6.04	7.49	3.26	5.60	8.22	3.70	(100)
3세	4.57	7.24	3.93	5.42	8.15	4.18	(36)
4~5세	4.68	7.17	2.59	4.53	6.06	3.01	(41)
F	4.54(3) ^{**}	0.17(3)	6.83(3) ^{***}	4.92(3) ^{**}	2.08(3)	3.24(3) [*]	

* p < .05, ** p < .01



[그림 III-2-2] 아동연령별 코티졸 수준

〈표 III-2-3〉 코티졸 변화 비교-아동연령

구분	첫째날		둘째날		2일 코티졸 총량	(수)
	오전-오후	저녁-오후	오전-오후	저녁-오후		
전체	1.31	-3.55	2.09	-3.58	32.75	(263)
연령						
0~1세	0.20	-2.77	0.97	-2.85	37.36	(86)
2세	1.34	-4.04	2.84	-4.37	31.76	(100)
3세	2.57	-2.91	3.16	-3.92	31.04	(36)
4~5세	2.24	-4.45	1.71	-3.05	28.06	(41)
F	1.91(3)	1.37(3)	2.01(3)	0.95(3)	5.21(3)**	

** $p < .01$

대체로 0~만1세 영아의 코티졸 평균 수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만2세, 만3세, 만4~5세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스트레스호르몬 분비량이 다른 것을 보인다. 조사일 2일간의 코티졸 총량에 있어서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여, 0~1세 영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4~5세 유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 성별에 따른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살펴보면, 코티졸 평균 수준에서는 남아-여아간에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의 패턴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오후에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고되지 않은 성차로, 여아가 어린이집 이용 등으로 오후에 스트레스호르몬 분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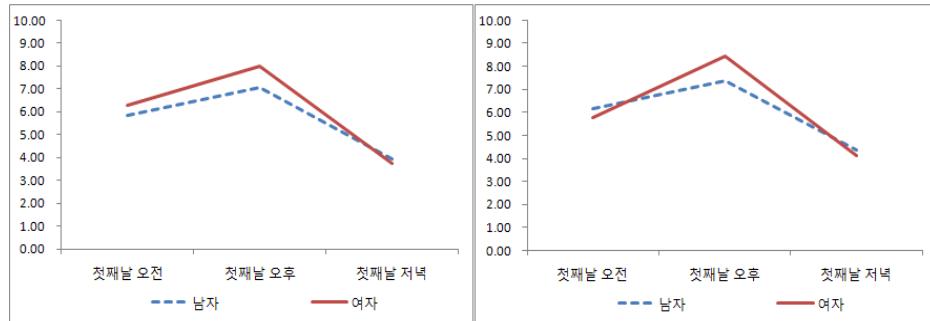
〈표 III-2-4〉 코티졸 평균 비교 - 성별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전체	6.06	7.50	3.86	5.99	7.89	4.24	(263)
성별							
남아	5.86	7.08	3.96	6.18	7.39	4.35	(123)
여아	6.30	7.99	3.75	5.76	8.45	4.11	(140)
t	-0.72	-1.42	0.47	0.76	-1.63	0.40	

〈표 III-2-5〉 코티졸 변화 비교 - 성별

구분	첫째날		둘째날		2일 코티졸 총량	(수)
	오전-오후	저녁-오후	오전-오후	저녁-오후		
전체	1.31	-3.55	2.09	-3.58	32.75	(263)
성별						
남아	0.98	-2.99	1.51	-2.81	32.11	(123)
여아	1.71	-4.20	2.78	-4.46	33.55	(140)
t	-1.00	1.77 [*]	-1.73 [*]	2.06 [*]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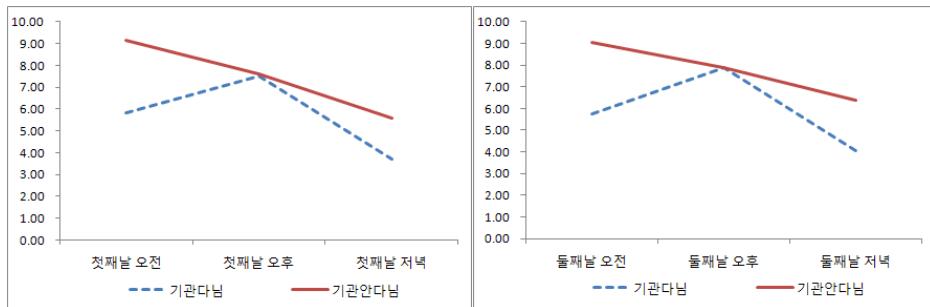
+ p < .10, * p < .05



[그림 III-2-3] 아동성별 코티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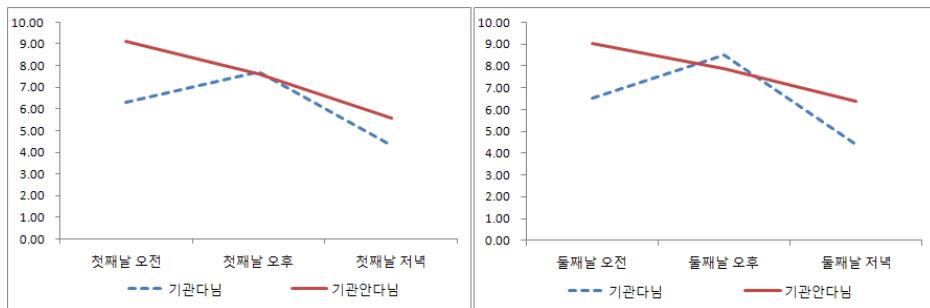
3) 기관이용 및 특성에 따른 코티졸 수준 및 패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0~1세 해당하는 영아인 점에서 코티졸 수치가 유아가 많은 어린이집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코티졸 변화의 패턴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달라 오전-오후-저녁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다. 이로써 어린이집 이용이 영유아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과, 연령별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2-4] 기관이용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전체 아동)

이는 가정양육 아동의 월령 분포인 3~30개월로 제한하여 동일한 월령의 영아들끼리 비교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2-5] 기관이용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3~30개월 아동)

<표 III-2-6> 코티졸 평균 비교 – 기관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전체	6.06	7.50	3.86	5.99	7.89	4.24	(263)
기관보육여부1							
기관다님	5.82	7.49	3.71	5.74	7.89	4.04	(243)
기관안다님	9.14	7.63	5.60	9.05	7.88	6.39	(20)
t	-2.86**	-0.11	-2.3*	-3.2**	0.01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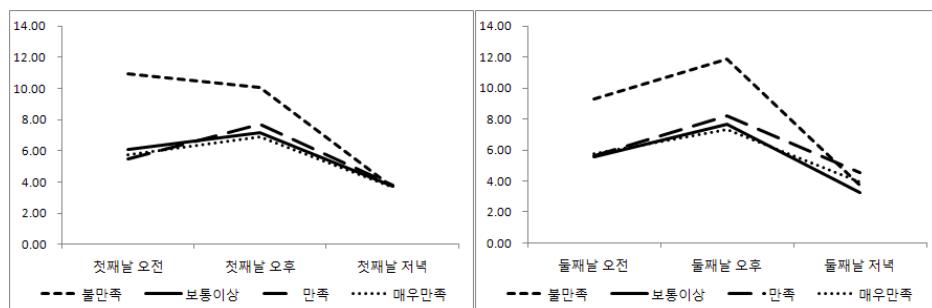
(표 III-2-6 계속)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기관보육여부2 (3~30개월영아)							
기관다님	6.31	7.73	4.31	6.52	8.49	4.39	(243)
기관안다님	9.14	7.63	5.60	9.05	7.88	6.39	(20)
t	-2.09*	0.08	-1.30	-2.04*	0.47	-1.59	
기관만족도							
불만족	10.94	10.09	3.66	9.32	11.90	3.75	(3)
보통이상	6.06	7.14	3.73	5.59	7.69	3.28	(40)
만족	5.48	7.74	3.80	5.65	8.24	4.52	(126)
매우만족	5.76	6.88	3.65	5.78	7.31	3.91	(56)
F/t	1.58(3)	0.70(3)	0.03(3)	0.86(3)	1.02(3)	0.70(3)	
기관유형별							
국공립	5.33	6.03	3.50	6.59	8.39	4.76	(81)
민간법인	4.65	9.54	3.26	4.61	7.88	3.85	(57)
가정어린이집	6.90	7.51	4.15	5.71	7.47	3.58	(105)
가정양육	9.14	7.63	5.60	9.05	7.88	6.39	(20)
F/t	5.89(4)**	5.41(4)**	2.71(4)*	5.84(4)**	0.45(4)	2.49(4)†	

주: 30이상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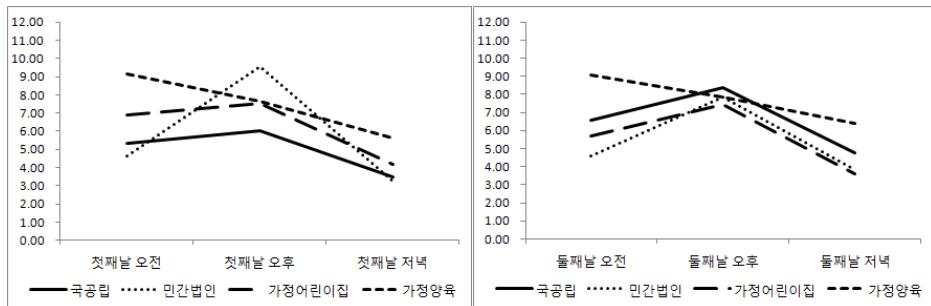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기관이용 만족도를 묻는 11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친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만족도를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부모의 기관만족도가 ‘불만족’인 아동의 코티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 응답자의 수가 적은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III-2-6] 기관만족도에 따른 코티졸 수준

기관유형(가정양육 유형 포함)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비교한 결과, 가정양육 영아의 코티졸 수준과 패턴이 상이한 점 외에, 조사일 2일에 걸쳐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III-2-7] 기관유형별 코티졸 수준

4) 이용시간에 따른 코티졸 수준 및 패턴

이용시간에 따른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비교한 결과, 우선 코티졸 수치에 있어 전체 평균에 의하면 0시간과 2~5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이에 비해 6~7시간, 8~9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다소 낮았다. 전반적으로 아동 ‘연령’ 변인의 영향력이 커, ‘이용시간’에 따른 코티졸 분비량의 차이 보다는 영유아기 ‘발달시기’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용 시간이 없거나 적은 영아의 코티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의 연령 효과로 보이며, 이용시간에 따라 패턴면에서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6~7시간, 8~9시간, 10~12시간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10~12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코티졸 수준과 패턴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활성화의 폭이 완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6~7시간, 8~9시간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준과 패턴은 10~12시간 이용아동보다 다소 높거나 오후에 보다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시간의 이용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이용시간의 영향력이 아동의 연령과 주요 발달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주효과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적은 사례수(18명)이기는 하나 10~12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전체 평균에 의해 낮은 수준을 보임은 특기할 만하다.

여기서 2절(33~35p)에서 살펴본 조사대상 아동의 발달특성을 상기하면, 어린 이집 이용시간이 길수록 교사의 아동에 대한 발달평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일)취업모의 자녀일수록, 시간연장서비스를 이용할수록,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병행이용하지 않을수록 교사의 발달평정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조사 대상 아동의 발달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 평정에서도 상기한 아동의 발달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육아지원서비스를 비교적 긴 시간 안정적으로 이용한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중이고 시간연장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아동의 발달수준이 높은 수준이며, 스트레스호르몬의 활성화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모가 전일취업한 자녀의 이용시간이 긴 가운데, 모 취업가정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고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비모성양육 최초이용시기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사 및 어머니가 평정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상의 특성이 반영된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보인다. 양육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가구소득이 높은 경제적 특성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 어려서부터 취업모의 양육환경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모성서비스 이용에 잘 적응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용시간이 긴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낮게 나타난 점은 특기할만하여, 관련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시간연장 이용에 따른 영향력을 응답 분포를 고려하여 월3회이상 이용과 1주 3시간 이상 이용 여부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코티졸 수준의 차이는 조사일에 걸쳐 일관되지 않았으나, 월3회이상 이용과 1주 3시간 이상 이용한 아동이 코티졸 패턴에서 일관되게 시간연장 이용 월3회미만 및 주 3시간 미만 이용인 경우에 비해 ‘완만한’ 변화의 패턴을 보였다. 육아지원기관을 지속적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영유아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의 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장시간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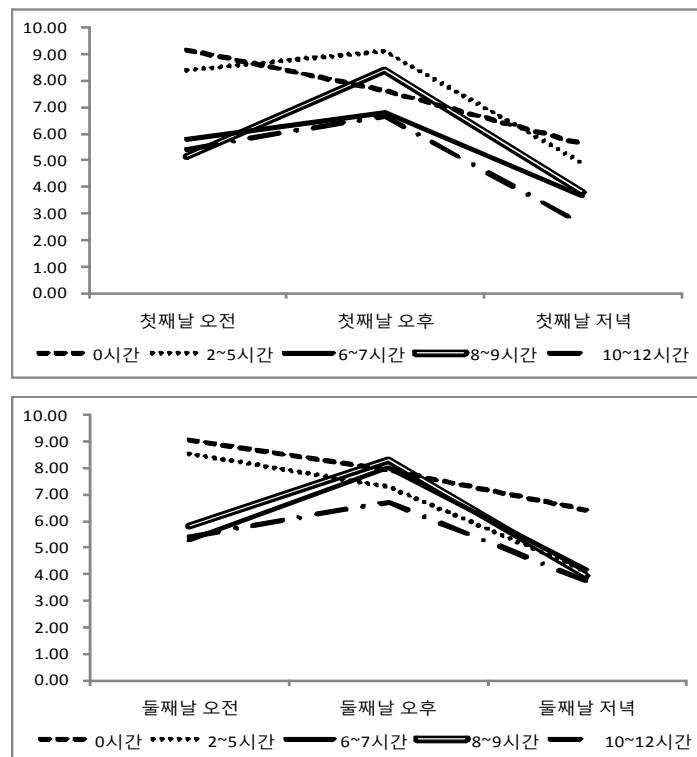
〈표 III-2-7〉 코티졸 평균 비교 – 이용시간 및 시간연장 여부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전체	6.06	7.50	3.86	5.99	7.89	4.24	
이용시간							
0시간	9.14	7.63	5.60	9.05	7.88	6.39	
2~5시간	8.39	9.09	4.89	8.52	7.28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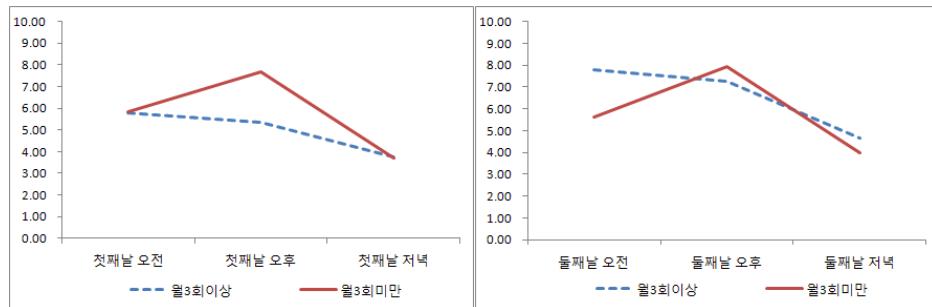
(표 III-2-7 계속)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6~7시간	5.81	6.78	3.62	5.26	7.97	4.14
8~9시간	5.12	8.38	3.76	5.79	8.26	3.91
10~12시간	5.42	6.65	2.58	5.41	6.70	3.73
F/t	4.01(4)**	1.86(4)	2.52(4)*	5.55(4)***	0.42(4)	1.21(4)
시간연장여부1						
월3회이상	5.77	5.35	3.76	7.81	7.26	4.64 (20)
월3회미만	5.82	7.67	3.71	5.60	7.94	3.97 (224)
t	-0.04	-1.93†	0.07	2.30*	-0.56	0.62
시간연장여부2						
1주3시간이상	5.66	5.53	3.12	7.24	7.85	4.72 (16)
1주3시간미만	5.82	7.60	3.73	5.69	7.89	3.98 (226)
t	-0.12	-1.52	-0.75	1.48	-0.03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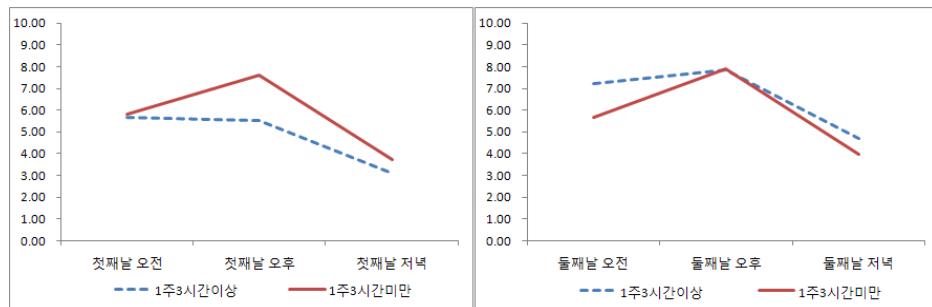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2-8] 이용시간별 코티졸 수준



[그림 III-2-9] 시간연장 이용 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1 – 월 3회이상



[그림 III-2-10] 시간연장 이용 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2 – 1주 3시간 이상

5) 가구소득 및 모 취업에 따른 코티졸 수준 및 패턴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비교한 결과,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코티졸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에 따라 일관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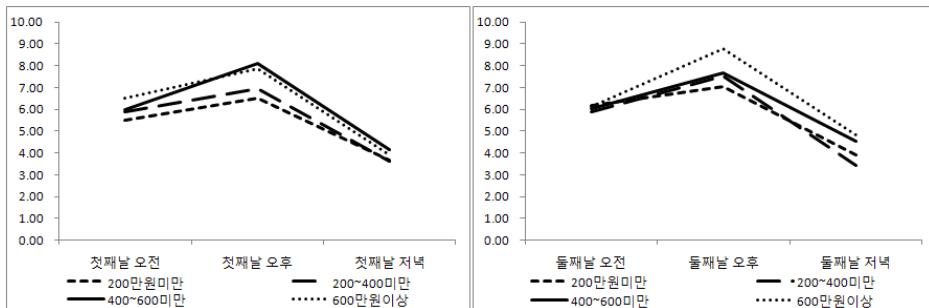
〈표 III-2-8〉 코티졸 평균 비교 – 가구소득 및 모 취업 여부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전체	6.06	7.50	3.86	5.99	7.89	4.24	(263)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5.49	6.53	3.66	6.20	7.04	3.92	(19)
200~400미만	5.90	6.95	3.62	5.87	7.54	3.42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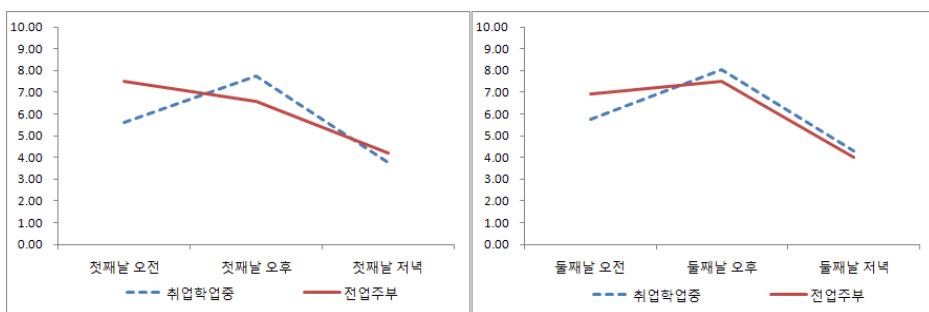
(표 III-2-8 계속)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400~600미만	6.01	8.10	4.16	6.02	7.66	4.54	(85)
600만원이상	6.50	7.88	3.91	6.11	8.76	4.84	(71)
F/t	0.30(3)	0.98(3)	0.34(3)	0.05(3)	0.97(3)	1.26(3)	
모취업학업여부							
취업학업중	5.62	7.74	3.79	5.74	8.06	4.29	(200)
전업주부	7.50	6.57	4.20	6.90	7.48	4.02	(58)
F/t							
모전일취업여부							
전일제취업	5.48	8.03	4.18	5.57	8.43	4.32	(132)
전일취업아님	6.64	6.86	3.59	6.46	7.37	4.13	(126)
t	-1.86 [†]	1.79 [†]	1.31	-1.59	1.62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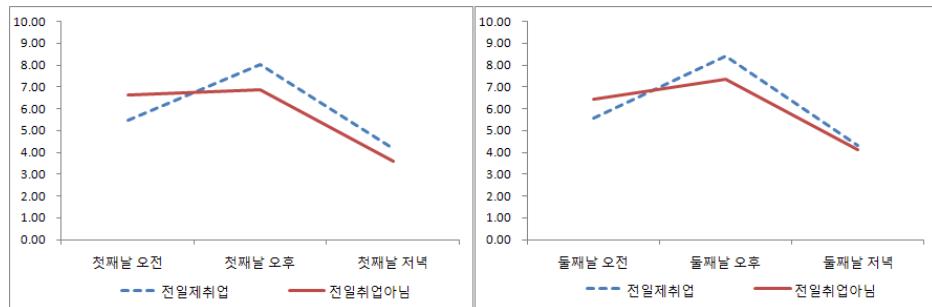
+ p < .10



[그림 III-2-11] 가구소득에 따른 코티졸 수준



[그림 III-2-12] 모 취업학업훈련 여부에 따른 코티졸 수준



[그림 III-2-13] 모 전일취업에 따른 코티졸 수준

그러나 모 취업여부 및 전일제 취업에 따라 아동의 코티졸 분비패턴에 차이가 있어, 어머니가 취업·훈련·학업 중이거나 취업 중에서도 전일제 취업인 경우, 오후 시간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활성화가 좀 더 일어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모의 취업·훈련·학업 및 전일제 취업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및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이 모의 부재에 의한 것인지, 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인지, 아동의 기관이용 경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6) 오전-오후, 오후-저녁 변화에 대한 비교

이상의 아동 및 부모, 기관, 이용시간에 따른 코티졸 수준과 패턴의 차이를 오전-오후, 오후-저녁 코티졸 분비량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시간이 길수록 오후-오전의 수치가 (+)로 나타나 기관 이용시간의 증가에 따른 오후 활성화가 나타났으며, 10~12시간 장시간 이용 아동의 오후-오전 차이는 6~9시간 이용 아동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티졸 총량에서도 그러하였다. 코티졸 수준과 변화에 아동 연령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III-2-9〉 코티졸 변화 비교 – 이용시간, 기관이용 여부 등

구분	첫째날				둘째날		조사2일 코티졸 총량 (수)	
	오후-오전		저녁-오후		오후-오전			
	전체	1.31	-3.55	2.09	-3.58	32.75		
이용시간								
0) 0시간	-2.91	-1.91	-2.08	-1.49	40.47			
1) 2~5시간	-0.18	-3.92	0.41	-3.37	33.43			

(표 III-2-9 계속)

구분	첫째날		둘째날		조사2일 코티졸 총량	(수)
	오후-오전	저녁-오후	오후-오전	저녁-오후		
2) 6~7시간	1.19	-3.28	2.86	-3.88	31.21	
3) 8~9시간	3.09	-4.47	2.65	-4.16	34.00	
4) 10~12시간	1.42	-2.99	1.28	-2.22	29.56	
F/t	4.77(4) ^{**}	1.11(4)	3.90(4) ^{**}	1.00(4)	2.41(4) [†]	
기관유형별						
국공립	0.64	-2.63	1.87	-3.73	32.13	(81)
민간법인	4.80	-6.32	3.46	-4.02	34.07	(57)
가정어린이집	0.64	-3.03	2.30	-3.65	30.73	(105)
가정양육	-2.91	-1.91	-2.08	-1.49	40.47	(20)
F/t	12.65(3) ^{***}	7.14(3) ^{***}	4.69(3) ^{**}	0.89(3)	3.05(3) [*]	
기관보육여부1						
기관다님	1.64	-3.69	2.45	-3.78	32.10	(243)
기관안다님	-2.91	-1.91	-2.08	-1.49	40.47	(20)
t	3.32 ^{**}	-1.42	3.37 ^{**}	-1.60	-2.63 ^{**}	
기관보육여부2 (3~30개월범위)						
기관다님	1.50	-3.56	2.36	-4.01	34.35	(243)
기관안다님	-2.91	-1.91	-2.08	-1.49	40.47	(20)
t	3.04 ^{**}	-1.18	2.92 ^{**}	-1.53	-1.70 [†]	
기관만족도						
불만족	-0.85	-6.43	2.57	-8.14	49.66	(3)
보통이상	1.09	-3.11	2.59	-4.05	30.05	(40)
만족	2.10	-3.92	2.96	-3.61	32.20	(126)
매우만족	1.03	-3.15	1.44	-3.72	32.41 [†]	(56)
F/t	0.82(3)	0.69(3)	0.95(3)	0.56(3)	2.48(3) [†]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04	-2.39	1.04	-4.73	29.69	(19)
200~400미만	1.12	-3.17	2.01	-4.08	30.98	(80)
400~600미만	2.03	-4.08	1.89	-3.01	33.90	(85)
600만원이상	0.94	-3.78	2.67	-3.56	34.32	(71)
F/t	0.57(3)	0.67(3)	0.46(3)	0.56(3)	1.20(3)	
모전일취업여부						
전일제취업	2.37	-3.86	2.84	-3.81	33.55	(132)
전일취업아님	0.17	-3.11	1.34	-3.46	31.88	(126)
t	3.06 ^{**}	-1.09	2.03 [*]	-0.44	0.95	
시간연장_1						
월3회이상	-0.54	-1.53	0.47	-2.25	33.88	(20)
월3회미만	1.81	-3.89	2.57	-3.93	32.02	(224)
t	-1.66 [†]	1.89 [†]	-1.58	1.12	0.55	

(표 III-2-9 계속)

구분	첫째날		둘째날		조사2일 코티졸 총량	(수)
	오후-오전	저녁-오후	오후-오전	저녁-오후		
시간연장여부_2						
1주3시간이상	0.14	-2.38	0.61	-3.13	36.60	(16)
1주3시간미만	1.73	-3.79	2.51	-3.81	31.80	(226)
t	-1.01	1.01	-1.35	0.44	1.41	

* p < .05, ** p < .01, *** p < .001

기관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자가 적어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적은 사례수 가운데에서도 기관이용에 불만족한 부모의 자녀의 코티졸 총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 전일취업의 경우 오후 활성화가 더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시간연장 이용이 월 3회 이상인 경우 오후 활성화가 일어나고 가정에서의 코티졸 분비 하락 폭이 큰 양상을 보인다.

3. 스트레스호르몬 변화 패턴의 유형

2절에서 전체 대상아동의 평균 코티졸 수준과 패턴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면, 3절에서는 개별 아동의 고유한 패턴을 유형화하여 그 분포와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코티졸 패턴의 분포

1) 코티졸 변화 패턴의 유형화 및 분포⁵⁾

〈표 III-3-1〉 코티졸 패턴유형

구분	첫째날 패턴	둘째날 패턴	단위: %(명)	
			2일	총패턴
A	47.9(126)	45.2(119)	32.3(85)	
B	21.7(57)	21.7(57)	8.7(23)	
C	4.6(12)	3.8(10)	1.1(3)	
D	7.6(20)	9.5(25)	3.0(8)	

5) 자세한 패턴의 모양은 부록 2 참조

(표 III-3-1 계속)

구분	첫째날 패턴	둘째날 패턴	2일 총패턴
E	7.2(19)	7.2(19)	2.7(7)
F	8.4(22)	4.9(13)	1.9(5)
결측치	2.7(7)	7.6(20)	0.4(1)
Z	-	-	49.8(131)
계(수)	100.0(263)	100.0(263)	100.0(263)

전체 평균에 의한 코티졸 수준이 아닌, 오전-오후-저녁의 1일 코티졸 분비 변화패턴을 고려한 유형을 아동 개인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일 1-2일에 걸쳐 코티졸 수치가 오후에 올라갔다가 귀가후 저녁시간에는 떨어지는 전형적인 기관이용아동의 패턴이 'A형'으로 전체 패턴 중 47.9%, 45.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B형'이 조사일 1일 21.7%, 조사일 2일 21.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비전형적인 패턴으로 오전-오후간에 코티졸 수치가 떨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가는 'D형'과,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는 'E형'이 약 7% 이상으로 조사일 1-2일에 걸쳐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유의가 요구된다. 'F형'은 오전-오후 변화없는 양상을 보이다가 저녁에 떨어지거나, 혹은 오후에 떨어져 저녁까지 이어지는 등,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시점과 패턴이 변화가 없는 구간을 갖는 경우로 구분한 결과, 8.4%, 4.9%로 나타났다. 'C형'은 오전-오후-저녁 간에 변화가 거의 없는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경우로 약4%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일 2일간에 동일하지않은 패턴이 공존하는 아동이 전체 49.8%로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다. 그 중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반된 양상을 함께 보이는 'Z형'의 아동(Z3~Z14형)이 전체 31.6%로, 코티졸 변화의 패턴이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사례만을 추려 2일간 패턴을 재분류한 결과, 서로 다른 유형이 공존하는 Z형을 제외하고 조사일 1-2일에 걸쳐 모두 A형을 보인 아동은 전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인 아동이 8.7%, 떨어졌다가 혹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비전형적인 패턴인 D, E 형은 5.7%로 나타났다.

〈표 III-3-2〉 Z패턴 유형분포 – 2일 총패턴

단위: %(명)

2일 총패턴	%(%명)
Z1 ab, ba	14.4(38)
Z2 ac, ca	3.8(10)
Z3 ad, da	4.2(11)
Z4 ae, ea	5.7(15)
Z5 af, fa	4.6(12)
Z6 bc, cb	0.8(2)
Z7 bd, db	5.7(15)
Z8 be, eb, ef, fe	3.0(8)
Z9 bf, fb	3.8(10)
Z10 cd, dc	1.1(3)
Z11 cf, fc	0.8(2)
Z12 de, ed	1.1(3)
Z13 df, fd	0.4(1)
Z14 ce, ec	0.4(1)

2) 패턴유형별 코티졸 수준 비교

간추린 패턴 유형의 특성대로 오전-오후-저녁의 평균 코티졸 수치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났다. 패턴 1의 4개 유형(a, b, d, e)은 조사일 2일에 걸쳐 동일한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난 경우를 염격하게 구분한 경우에 해당하며, 패턴 2의 4개 유형(a, b, d, z)은 대체로 해당유형에 가까운 경우를 모두 포함한 관대한 분류로 패턴 1에 비해 사례수가 많다. 패턴 3은 오전-오후 패턴과 상관없이 저녁에 집에 귀가하여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패턴을 전형적 패턴으로 구분하였고, 그렇지 않고 귀가 후에 오히려 코티졸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비전형적 패턴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3-3〉 코티졸 패턴별 평균 비교

단위: %(명)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전체	6.06	7.50	3.86	5.99	7.89	4.24	(263)
패턴1							
1) a	4.75	9.35	2.74	4.56	9.84	2.75	(85)
2) b	9.58	6.50	3.11	7.40	5.44	2.49	(23)
4) d	8.65	5.49	12.82	10.43	6.11	9.5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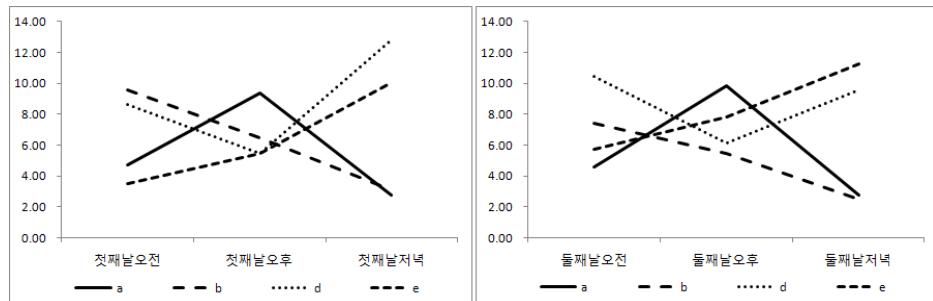
(표 III-3-3 계속)

구분	첫째날			둘째날			(수)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5) e	3.50	5.47	10.06	5.75	7.82	11.25	(7)
F/t	7.53(3)***	3.37(3)*	45.36(3)***	8.30(3)***	5.69(3)**	21.17(3)***	
패턴2							
1) a	5.02	8.77	2.91	5.00	9.01	2.73	(133)
2) b	9.31	6.50	3.56	7.94	5.95	2.47	(28)
4) d	5.84	5.48	11.31	8.56	6.68	10.30	(15)
7) z	6.77	6.19	4.55	6.62	6.87	6.47	(83)
F/t	6.94(3)***	5.72(3)**	26.86(3)***	5.97(3)**	4.59(3)**	19.02(3)***	
패턴3							
전형적	5.75	8.37	3.03	5.49	8.55	2.69	(161)
비전형적	6.58	6.04	5.26	6.80	6.78	6.73	(101)
F/t	-1.31 (243.0)	3.79 (233.1)*	-4.37 (120.3)***	-2.18 (155.6)*	2.69 (241.0)	-5.85 (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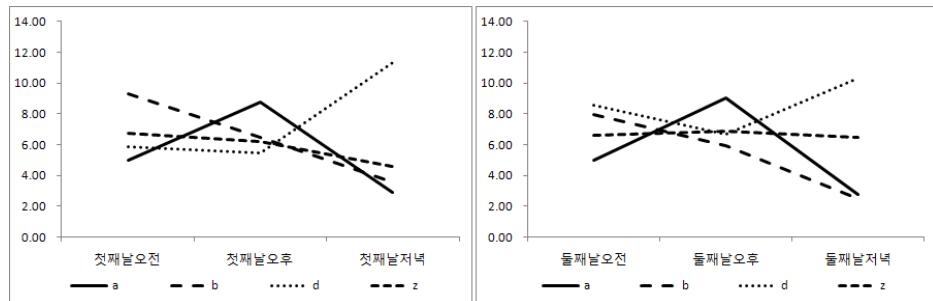
주: 패턴1-해당 유형의 엄격한 구분, 패턴2-유사 유형을 포함한 넓은 구분, 패턴3- 귀가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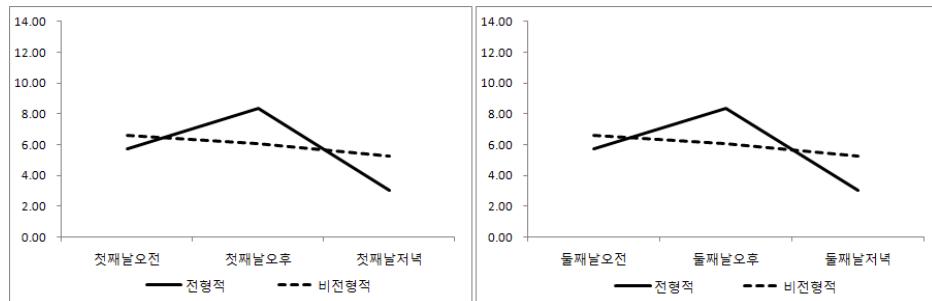
패턴 1



패턴 2



패턴3



[그림 III-3-1] 코티졸 패턴별 평균 비교

A형의 경우 오후 활성화 양상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저녁 귀가후에도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는 비전형적인 D, E 패턴은 저녁-오후가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A, B 형의 전형패턴과 D, E, Z 형의 비전형 패턴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III-3-4〉 코티졸 패턴별 평균변화(오후활성화) 비교

단위: %(명)

구분	첫째날		둘째날	
	오후-오전	저녁-오후	오후-오전	저녁-오후
패턴1				
1) a	5.17	-6.90	5.75	-7.15
2) b	-3.63	-3.31	-1.02	-2.43
4) d	-3.89	6.70	-5.11	4.10
5) e	1.98	4.58	2.08	3.31
F/t	27.24(3)***	26.36(3)***	21.16(3)***	19.22(3)***
패턴2				
1) a	3.96	-6.07	4.24	-6.29
2) b	-3.37	-2.86	-1.45	-2.56
4) d	-0.69	5.54	-2.23	3.76
7) z	-1.09	-1.23	0.22	-0.52
F/t	27.12(3)***	36.54(3)***	16.26(3)***	23.27(3)***
패턴3				
전형적	2.72	-5.49	3.40	-5.78
비전형적	-1.01	-0.42	-0.05	-0.15
F/t	5.31(236)	-8.18(239)	4.77(229)	-7.61(228) [†]

주: 패턴1-해당 유형의 엄격한 구분, 패턴2-유사 유형을 포함한 넓은 구분, 패턴3- 귀가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5〉 코티졸 패턴별 오전-오후-저녁/서비스총량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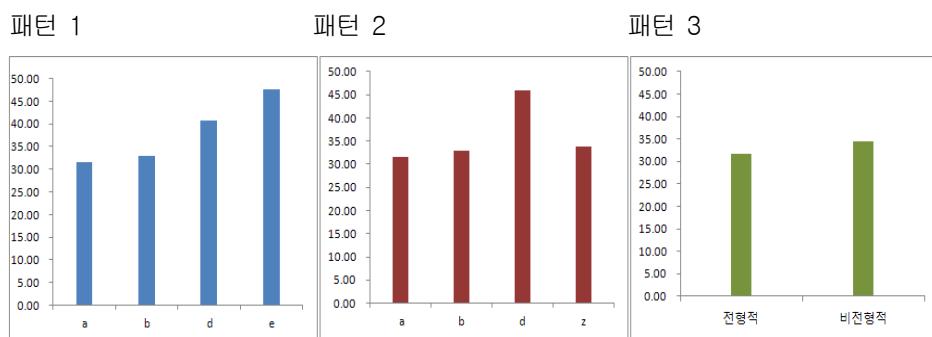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일 시간대별			2일총량
	오전	오후	저녁	
패턴1				
1) a	4.50	9.46	2.64	31.53
2) b	8.16	5.86	2.87	32.84
4) d	9.42	6.15	12.93	40.74
5) e	4.60	6.80	12.71	47.53
F/t	10.18(3)***	6.48(3)***	51.84(3)***	1.97(3)
패턴2				
1) a	4.91	8.78	2.76	31.57
2) b	8.31	6.14	2.83	32.82
4) d	7.01	6.41	12.80	45.83
7) z	6.58	6.57	5.46	33.75
F/t	8.41(3)***	7.33(3)***	33.00(3)***	1.99(3)
패턴3				
전형적	5.47	8.37	2.77	31.76
비전형적	6.60	6.52	5.83	34.47
F/t	-2.29(227.0)	3.64(233.0) [†]	-6.23(99.4)***	-1.51(202.0)

주: 패턴1-해당 유형의 엄격한 구분, 패턴2-유사 유형을 포함한 넓은 구분, 패턴3-귀가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 p < .05, ** p < .01, *** p < .001

코티졸 총량에 있어서도 비전형적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형적 패턴의 A, B형에 비해 대체로 높았다.



[그림 III-3-2] 코티졸 패턴별 서비스총량 평균 비교

나. 코티졸 패턴 관련 요인

코티졸 패턴유형과의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특성별 평균비교를 한 결과(패턴1),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B형의 경우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또한 모의 취업률도 적었다. 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와 이용시간이 긴 경우 저녁에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는 D, E형의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는 연령과 기관이용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경향은 4가지 유형을 염격하게 적용한 경우(패턴 1)와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패턴 2) 공히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외의 다른 서비스 이용시간이 유의하여, 비전형 패턴인 D, E형의 경우 다른 서비스 이용시간과 시간연장 보육 시간이 더 많았다. 즉 주 이용기관의 이용시간 외에 다른 서비스의 이용의 수와 양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분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III-3-6〉 코티졸 패턴별 기관이용 및 이용시간특성 비교

구분	하루 이용시간	다른 서비스 총이용시간	가정양육	기관보육	단위: %(명)	
					시간연장보육	(수)
패턴1						
1) a	7.48	3.78	0.01	0.99	0.17	(85)
2) b	5.88	7.25	0.13	0.87	0.15	(23)
4) d	7.50	11.69	0.00	1.00	1.43	(8)
5) e	7.14	24.29	0.00	1.00	0.00	(7)
F/t	4.18(3)**	3.64(3)*	3.01(3)*	3.01(3)*	3.25(3)*	
패턴2_완화						
1) a	7.18	4.94	0.03	0.97	0.84	(133)
2) b	5.90	8.63	0.11	0.89	0.12	(28)
4) d	7.33	17.57	0.00	1.00	0.71	(15)
7) z	6.26	7.65	0.16	0.84	1.11	(83)
F/t	3.76(3)*	2.02(3)	4.53(3)**	4.53(3)**	0.29(3)	
패턴3						
전형적	6.96	5.59	0.04	0.96	0.72	(161)
비전형적	6.45	8.96	0.13	0.87	1.06	(101)
F/t	1.50	-1.26	-2.29	2.29	-0.55	
	(166.8)	(163.7)	(146.8)*	(146.8)*	(239.0)	

주: 패턴1-해당 유형의 염격한 구분, 패턴2-유사 유형을 포함한 넓은 구분, 패턴3-귀가 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 p < .05, ** p < .01, *** p < .001

모 전일취업 경우가 A형, D형에 해당할 비율이 공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인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비전형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표 III-3-7〉 코티졸 패턴별 사회인구학적특성 비교

구분	아동성별	아동만월령 (개월)	단위: %(명)		
			보 취업학업여부	보 전일취업여부	(수)
패턴1					
1) a	0.42	34.08	0.85	0.60	(85)
2) b	0.57	30.74	0.59	0.27	(23)
4) d	0.50	18.25	0.75	0.63	(8)
5) e	0.86	28.00	0.86	0.43	(7)
F/t	1.95(3)	3.92(3)*	2.45(3)†	2.71(3)*	
패턴2					
1) a	0.41	33.63	0.85	0.57	(133)
2) b	0.54	30.54	0.63	0.37	(28)
4) d	0.67	22.80	0.80	0.53	(15)
7) z	0.71	26.59	0.70	0.46	(83)
F/t	7.21(3)***	6.14(3)***	3.41(3)*	1.56(3)	
패턴3					
전형적	0.43	33.09	0.81	0.54	(161)
비전형적	0.69	26.54	0.72	0.47	(101)
F/t	4.44(223.4)***	3.74(260.0)***	1.62(190.2)	1.02(255.0)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8〉 코티졸 패턴별 부모시간특성 비교

구분	부 평일 근무시 간	모 평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부 1주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모 1주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모 1주일 자녀와 놀아주 는 시간	모 1주일 실외활 동 시간	단위: %(명)	
							(수)	
패턴1								
1) a	10.65	5.54	29.28	47.40	19.22	8.10	(85)	
2) b	10.10	7.90	34.83	62.75	23.93	10.30	(23)	
4) d	11.25	4.64	34.80	55.80	13.29	4.67	(8)	
5) e	12.57	4.29	26.14	47.83	11.71	3.90	(7)	
F/t	2.16(3)†	3.85(3)*	0.82(3)	3.17(3)*	1.51(3)	1.77(3)		

(표 III-3-8 계속)

구분	부 평일 근무시 간	모 평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부 1주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모 1주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모 1주일 자녀와 놀아주 는 시간	모 1주일 실외활 동 시간	(수)
패턴2							
1) a	10.43	5.54	28.36	47.69	18.73	8.21	(133)
2) b	10.16	7.54	35.11	61.45	20.72	9.71	(28)
4) d	11.87	4.46	29.75	51.45	12.50	4.32	(15)
7) z	10.11	6.94	34.20	59.20	26.44	9.49	(83)
F/t	2.27(3) [†]	4.70(3)**	2.34(3) [†]	4.81(3)**	4.94(3)**	2.33(3) [†]	

주: 패턴1-해당 유형의 엄격한 구분, 패턴2-유사 유형을 포함한 넓은 구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9〉 코티졸 패턴별 모평정 모/자 특성 비교

구분	모자관계_애착(2문항)	친사회성(12문항)_모평정	단위: %(명) (수)
패턴1			
1) a	3.75	3.11	(85)
2) b	3.69	3.15	(23)
4) d	3.67	3.00	(8)
5) e	3.25	2.86	(7)
F/t	2.28(3) [†]	0.58(3)	
패턴2			
1) a	3.71	3.13	(133)
2) b	3.70	3.16	(28)
4) d	3.46	2.92	(15)
7) z	3.70	2.88	(83)
F/t	1.22(3)	4.31(3)**	
패턴3			
전형적	3.71	3.13	(161)
비전형적	3.67	2.90	(101)
F/t	3.35(123.0)	0.68(238.0)	

주: 패턴1-해당 유형의 엄격한 구분, 패턴2-유사 유형을 포함한 넓은 구분, 패턴3- 귀가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 p < .05, ** p < .01, *** p < .001

D, E의 비전형 패턴의 경우 A, B 전형적 패턴의 아동에 비해 모가 평정한 친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모자 애착관계에서 낮은 경우 D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관계 및 사회성 발달의 특성이 스트레스호르몬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의 근로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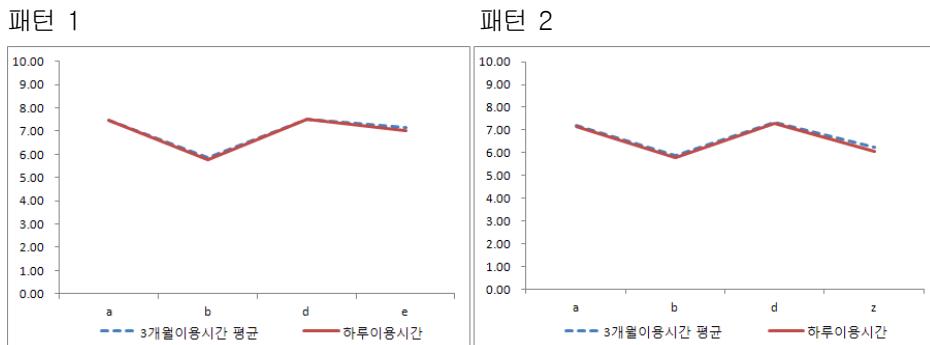
길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양상을 보인다. 교사평정을 통해서도 아동의 친사회성과 내재적 문제행동이 코티졸 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시간이 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A, B 형의 교사의 경우, 교사 우울감이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0〉 코티졸 패턴별 교사평정 아동/기관/교사 특성비교

구분	친사회성2	내재적문제2	교사우울	단위: %(명)	
				(수)	
패턴1					
1) a	2.70	1.93	1.53	(85)	
2) b	2.65	1.89	1.52	(23)	
4) d	2.17	1.78	1.37	(8)	
5) e	2.20	2.62	1.57	(7)	
F/t	2.97(3)*	2.50(3) [†]	0.24(3)		
패턴2					
1) a	2.67	1.96	1.54	(133)	
2) b	2.60	1.81	1.55	(28)	
4) d	2.18	2.20	1.47	(15)	
7) z	2.46	1.73	1.34	(83)	
F/t	3.91(3)*	3.46(3)*	2.75(3)*		

주: 패턴1-해당 유형의 엄격한 구분, 패턴2-유사 유형을 포함한 넓은 구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3] 코티졸 패턴별 특성비교

정리하면, B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이용시간이 적고, 귀가후 저녁시간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는 D, E 패턴의 경우 귀가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A, B 패턴의 경우보다 조사아동의 월령이 낮음을 보여준다.

코티졸 패턴과 관련된 변인으로 시간연장 이용시간과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을 조사한 결과, D형의 경우 시간연장 이용시간이 많았으며, B형의 경우는 어머니 및 부모와 함께 노는 시간과 실외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 D, E형 , 특히 D, E형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노는 시간 및 실외활동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턴유형별 아동의 친사회성 정도를 비교한 결과, B형의 친사회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D, E형과 Z형의 경우 친사회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로써 코티졸 패턴, 즉 아동의 하루 스트레스호르몬의 활성화 및 분비량은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관 이용시간 및 시간연장, 부모와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과 적정한 실외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이용시간과 코티졸변화량 상관관계

구분	첫날		둘째날	
	오후-오전	저녁-오후	오후-오전	저녁-오후
이용시간	.24**		.17**	
첫날총량		-.41**		

* p < .05, ** p < .01, *** p < .001

이용시간과 조사일 2일간의 코티졸 수준과 변화간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용시간이 길수록 오후와 저녁의 평균 코티졸 수준이 낮았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10~12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 아동의 비선형적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시간이 길수록 오후-오후간 코티졸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커 기관 이용시간이 긴 아동의 오후 코티졸 활성화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 이집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오후 코티졸 수준이 높아지며, 동시에 이용시간이 긴 아동의 오전과 저녁 코티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종일제 이상 장시간 이용하는 아동의 코티졸 분비가 단시간 이용 아동과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오전에 낮은 수치에서 시작하여 오후 코티졸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과, 귀가 후 저녁에는 다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코티졸 수준으로 떨어지는 패턴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조사일 2일간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저녁과 오후 시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가 많은 아동은 귀가 후 저녁시간 집에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코티졸 총량면에서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가 적음을, 그리고 코티졸양이 많을수록 오전-오후-저녁 간 차이가 적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안에는 선행연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이용 아동의 상대적으로 높은 오후 활성화수준이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 IV-1-1 참조).

이용시간과 코티졸 수치 관련 주요 상관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표 IV-1-3~4〉 와 같다. 우선 ‘아동 월령’ 관련하여,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기관을 이용하고 그 이용시간이 많았으며, 과거 비모성서비스를 이용한 수가 많고 최초이용시기의 연령도 많은 편에 속했다.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전형적인 A, B형의 코티졸 패턴에 속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코티졸 수치가 나이 어린 아동에 비해 적었다(표 IV-1-3).

〈표 IV-1-3〉 기관이용 및 이용시간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p < .05$, ** $p < .01$, *** $p < .001$

둘째, '기관이용' 및 '이용시간' 관련하여,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그 이용시간이 길수록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짧고, 모의 기관만족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전일)취업모이고, 과거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수와 시간이 많고, 전반적인 코티졸 수준과 총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어린이집 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과거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의 '최초 이용 시기'가 빠르고, 과거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의 수가 많고 이용시간도 길었으며, 가구소득이 높고 취업모인 경우가 많다. 현재 다른 서비스를 또 이용하는 경우 둘째날 저녁 코티졸수치가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고 취업모인 경우,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의 최초 이용 시기가 빨라 아동이 어린 나이에 일찍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과거부터 이용한 육아지원 서비스 수가 많고 그 이용시간이 길었다. 과거 비모성 서비스의 수가 많거나 과거 비모성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었던 아동은 상대적으로 모가 취업모이며 부학력이 높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모 확률이 높다. '성차'가 발견되어, 남아일수록 귀가 후에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비전형적 패턴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조사시점별 코티졸수치의 상관은 정적인 관계로, 대체로 한 채취시점의 코티졸 수치가 높으면 이후 다른 시점에서도 높았으며 코티졸 총량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표 IV-1-3).

〈표 IV-1-4〉 이용시간, 코티졸양, 코티졸패턴간 상관관계 – 전체아동

구분	코티졸 패턴과의 상관관계						
	AA 폐탄	BB 폐탄	DE 폐탄	A 관련 폐탄	B 관련 폐탄	D 관련 폐탄	Z 관련 폐탄
아동 월령	.24**		-.27**	.25**		-.14*	-.20**
허루 이용시간	.24**	-.31**		.17**			-.14*
기관보육=1		-.27**		.18**			-.20**
아동 성별				-.26**			.25**
모 취업학업여부	.19*	-.24**		.18**			-.13*
모 전일취업여부	.20*	-.24**					
첫날오전 코티졸	-.33**	.37**		-.23**	.23**		
첫날오후 코티졸	.29**		-.20*	.26**			-.18**
첫날저녁 코티졸	-.40**		.73**	-.29**		.45**	.13*
둘째날오전 코티졸	-.39**	.26**	.26**	-.24**	.16*		
둘째날오후 코티졸	.37**	-.31**		.23**			-.14*
둘째날저녁 코티졸	-.24*		.62**	-.34**		.23**	.35**
2일 코티졸총량			.25*			.15*	

* p < .05, ** p < .01

아동의 기관이용시간과 모 취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그리고 코티졸양과 패턴간의 상관관계를 패턴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표 IV-1-3), 우선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오후에 활성화되었다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A패턴이 많았으며 비전형적 패턴(D, E, Z)의 유형은 적었다. 이용시간과 기관이용 변인에 의하면, 아동이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시간이 길수록 오후 활성화의 A패턴에 속하는 비율이 많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B형과 조사일 2일간 상이한 패턴이 공존하는 Z형에 속하는 비율이 적었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 보다 오후활성화의 A형 코티졸 변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 성별에 의하면, 남아일수록 A형에 속하는 비율이 적고, Z형에 속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어머니가 (전일)취업한 경우일수록 A패턴에 속하는 비율이 많고 B와 Z패턴에 속하는 비율이 적었다. 취업모 자녀의 긴 이용시간이 수렴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후 코티졸패턴과 조사시간대별 코티졸양의 상관관계는 각 패턴이 갖는 코티졸 분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A패턴은 오전, 저녁에는 낮고 오후에 활성화되어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며, B패턴은 오전에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떨어져 저녁에 가장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DE와 Z패턴은 저녁시간에 다시 높아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형적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 2일간 코티졸 총량이 더 많음도 보여준다.

즉 전형적인 A패턴의 코티졸 양이 가장 적었으며, 이는 긴 이용시간과 아동의 월령, 모 취업여부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B패턴일수록 이용시간이 적은 가정양육의 비취업모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비전형적인 D, E패턴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동의 월령이 어렸으며 코티졸 수준과 총량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IV-1-4).

영유아의 코티졸 수준과 어머니가 평정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 모 양육행동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IV-1-4), 월 가구소득이 높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모 우울감이 적으며, 규제·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자녀양육에 과거 및 현재에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모의 우울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아동의 코티졸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고, 모가 스스로 평정한 긍정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높게 나타나

는 등,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및 양육행동과 자녀의 스트레스 반응(코티졸)에 역의 관계가 있음이 특기할만하다. 어머니가 평정한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인식(1문항)은 코티졸 결과와 유의한 상관이 없어, 성인이 인식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자녀 스트레스 및 모 양육행동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구분	어머니가 평정한					
	자녀	부	모	모	모	모
	스트레스	스트레스	양육	긍정	규제	우울
수준	수준	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행동	양육행동	우울
아동 월령				-.18**	.26**	
하루이용시간						
기관보육=1						-.17**
현재 다른서비스 이용=1						-.15*
과거이용서비스총수(조부모포함)						-.14*
과거비모성1주평균이용시간						-.15*
월 가구소득		-.14*	-.25**		-.14*	-.19**
부 학력		-.15*			-.19**	-.18**
모 취업학업여부						-.16*
모 전일취업여부			-.13*		-.16*	-.23**
첫날오전 코티졸						
첫날오후 코티졸						
첫날저녁 코티졸			-.15*	.16*		
둘째날오전 코티졸				.20**		
둘째날오후 코티졸					.16*	
둘째날저녁 코티졸				-.15*	.16*	
2일 코티졸총량		-.14*	-.15*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및 애착 관련 모-자관계와 분석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6~7). 우선 어머니 평정에 의하면, 시간연장을 이용하는 아동의 (모 평정) 친사회성이 높고 내재적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시간이 길수록 애착행동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애착 불안정은 과거 비모성 서비스 이용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모 평정에 의하면 이용시간과 시간연장서비스의 이용여부에 따라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긍·부정의 상반된 영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모 평정 친사회성이 좋을수록 A, B형의 전형적 코티졸 패턴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표 IV-1-6).

〈표 IV-1-6〉 모 평정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구분	어머니가 평정한 아동의				
	친 사회성	내재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안정 애착행동	모자관계 애착
아동 월령		.22**			
하루이용시간				.15*	
현재 다른서비스 이용=1					
시간연장이용=1	.21*		.24**		
2일간2패턴(양호=1)	.29**				
과거 비모성 1주이용시간				-.16*	-.19**

* p < .05, ** p < .01

〈표 IV-1-7〉 교사 평정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관련 상관표-전체아동

구분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친 사회성	내재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전반적인 관계	모 민감성
아동 월령	.35**		-.24**	-.24*	-.15*
하루이용시간					
기관보육=1					
현재 다른서비스이용=1					
시간연장이용=1					
2일간2패턴(양호=1)	.20**				
비모성최초이용시기			.18*		
과거이용서비스총수				.25*	
과거비모성1주이용시간				.25*	
아동성별	-.14*				
월 가구소득				.31*	
부 학력				.28*	.14*
모 취업학업여부			.14*	.26*	
모 전일취업여부					
첫날오전 코티졸				.28*	
첫날오후 코티졸		.15*	.14*		
첫날저녁 코티졸0	-.15*				
둘째날오전 코티졸	-.18*				
둘째날오후 코티졸					
둘째날저녁 코티졸	-.19*				
2일 코티졸총량	-.18*		.15*		

주: 2일간 2패턴에서 '양호'는 전형적 패턴 A, B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교사 평정에서도 사회정서 발달의 영역에 있어 모 평정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교사 평정에 의하면 아동의 월령이 높을수록 친사회성이 많아지고 외현적 문제행동이 적어지는 등, 연령에 따른 아동의 발달과 성장이 타당하게 반영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는 아동의 월령이 많을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관계성과 모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사 평정에서도 아동의 친사회성이 많을수록 코티졸 수준과 총량이 적고 전형적인 코티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티졸 수준과 총량이 높을수록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정서행동과 코티졸 수준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여준다. 특히 오후 시간의 코티졸 활성화와 아동의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어, 오후의 코티졸 상승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의 최초 이용시기가 빠르고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많고 전반적인 사회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의 영향 관련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표 IV-1-7).

〈표 IV-1-8〉 교사 평정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구분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아동발달 전반	부정적 정서기질
하루이용시간			.26**	
아동성별			-.20**	
모 전일취업여부			.18**	
첫날오전 코티졸			-.14*	

* p < .05, ** p < .01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과 이용시간 및 코티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용시간이 길수록, 전일취업모의 자녀일수록, 교사가 평정한 아동 발달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점은, 본 조사 코티졸 수치의 해석에 있어 유의해서 봄아할 부분이다. 남아가 여아보다, 그리고 오전 코티졸 수치가 높을수록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발달수준이 낮았다. 한편 이용시간과 아동성별, 모 전일취업여부, 오전 코티졸 양은 아동의 적극적·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및 부정적 정서기질과는 상관이 없었다(표 IV-1-8).

교사가 평정한 기관서비스 및 근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낮아, 교사만족도로 알아본 서비스의 질과 근로환경이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교사의 우울감이 클수록 아동의 오후 코티졸 활성화가 많았으며, 이와 연관되어 A, B형의 전형적 패턴에 속하는 비

율이 많았다. 교사의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도 확인된다 하겠다. 한편, 기관이용 아동의 가구소득과 부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의 근로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감 인식이 많은 것으로 응답되어, 고소득 고학력 수요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질의 확보에 교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V-1-9).

〈표 IV-1-9〉 교사 평정 근로/기관만족도 관련 상관표 - 전체아동

구분	교사가 평정한		
	근로만족도	기관서비스 만족도	교사 우울
아동 월령	-.23**	.23**	.22**
현재 다른 서비스이용=1		.16*	
2일간2패턴(양호=1)			.17**
과거 비모성 1주이용시간			.28**
월 가구소득	-.21**		.15*
부 학력	-.14*		
모 취업학업여부			.15*
첫날오전 코티졸		.15*	
첫날오후 코티졸	-.18**	-.20**	.22**
2일 코티졸총량		-.19*	

주: 2일간 2패턴에서 '양호'는 전형적 패턴 A, B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p < .05, ** p < .01

나. 전체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에 대한 회귀분석

기관이용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코티졸 수준과 변화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이 필요하였다. 코티졸의 분비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민감한 생리적 반응체계인 관계로, 유의한 변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하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회귀분석을 통한 유의한 변인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관련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드러낸다.

첫 번째 회귀분석(표 IV-1-10)에서는 현재 주 이용기관 외 다른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아동월령이 어릴수록 조사일 2일간의 코티졸 총량이 많았으며, 현재 이용시간의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회귀분석(표 IV-1-11)에서는 모 전일취업일수록 코티졸 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이용시간이 길수록 코티졸양이 적은 관계에서 취업모 환경의 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모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동의 코티졸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과 영영아기 가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돌보는 아동이 포함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표 IV-1-11).

〈표 IV-1-10〉 코티졸 총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①

구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 오차	베타(β)	계수(B)	표준 오차	베타(β)
(상수)	31.3	1.1		37.1	2.6	
현재 다른서비스 이용시간	.10	.04	.20	.11	.04	.20
아동 월령				-.17	.07	-.20
수정 R ²		.03			.07	
F		5.55*			5.83**	
(수)		(140)			(140)	

*** p < .001

〈표 IV-1-11〉 코티졸 총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②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48.5	6.1		45.9	6.1		50.8	6.4	
모 양육스트레스	-6.70	2.47	-.24	-6.87	2.43	-.24	-6.54	2.40	-.23
모 전일취업여부				4.99	2.17	.20	5.01	2.14	.20
아동 만월령(개월)							-.17	.07	-.19
수정 R ²		.05			.08			.11	
F		7.35**			6.44**			6.12**	
(수)		(125)			(125)			(125)	

*** p < .001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시간연장이용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여아보다는 남아일수록 코티졸 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변량분석 및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한대로, A, B형의 전형적 패턴에 해당할수록 코티졸 수치는 낮았다(표 IV-1-12).

〈표 IV-1-12〉 코티졸 총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③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14.9	5.2		-4.7	9.3		-2.3	8.9		-6.3	8.9		-12.2	9.2	
월가구소득	3.31	1.02	.38	3.68	.99	.42	4.22	.97	.48	4.47	.95	.51	4.81	.94	.55
외현적문제행동				9.00	3.63	.28	9.39	3.47	.29	10.58	3.41	.33	10.67	3.33	.33
모평정							-8.03	3.00	-.29	-8.39	2.92	-.31	-7.08	2.92	-.26
2패턴(양호=1)										2.42	1.14	.23	2.72	1.12	.25
시간연장													5.38	2.66	.22
이용시간														.34	
아동성별															
수정 R ²		.13			.20			.27			.31				
F		10.50**			8.76***			8.81***			8.13***			7.66***	
(수)		(64)			(64)			(64)			(64)			(64)	

*** $p < .001$

한편 오전, 저녁 코티졸수치가 낮고 오후 활성화가 큰 ‘A형’의 전형적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변인을 다음의 세 번의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IV-1-13~15). AA형은 조사일 2일간 일관되게 A형의 코티졸 변화패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모의 기관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어린이집 외 다른 서비스의 추가 이용이 적을수록, 그리고 과거 비모성서비스 이용의 양이 적을수록, 과거 비모성서비스 이용의 최초 시작 시기가 늦을수록, 아동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코티졸 변화가 A패턴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13~15).

〈표 IV-1-13〉 AA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①

구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6	.5		-.6	.5	
현재 기관만족도	.29	.12	.36	.32	.12	.40
현재 다른서비스 시간				-.02	.01	-.30
수정 R ²		.11			.18	
F		5.70*			5.23*	
(수)		(39)			(39)	

* $p < .05$

〈표 IV-1-14〉 AA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②

구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9	.1		-.8	.7	
과거 서비스 이용시간	-.01	.01	-.36	-.01	.01	-.45
현재 기관만족도(모 평정)				.37	.16	.39
수정 R ²		.10			.22	
F		4.52*			5.51**	
(수)		(32)			(32)	

* p < .05, ** p < .01

〈표 IV-1-15〉 AA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③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1	.2		-.8	.3		-1.5	.3	
비모성 ^{최초} 이용시간	.04	.01	.79	.04	.01	.65	.02	.01	.44
아동만월령(개월)				.02	.01	.49	.02	.01	.46
월 가구소득							.15	.05	.41
수정 R ²		.55			.77			.91	
F		9.67*			12.76*			25.83**	
(수)		(7)			(7)			(7)	

* p < .05, ** p < .01

비전형적 패턴에 해당하는 D, E형의 코티졸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변인을 네 번의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표 IV-1-16~19), 현재 아동의 월령이 어리고, 과거 비모성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수록, 현재 시간연장 이용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에, 부모가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D, E형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V-1-16〉 DE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①

구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4	.1		.4	.1	
아동만월령(개월)	-.01	.00	-.34	-.01	.00	-.37
과거 비모성서비스 이용시간				.01	.00	.24
수정 R ²		.11			.15	
F		10.58**			8.42***	
(수)		(82)			(82)	

** p < .01, *** p < .001

〈표 IV-1-17〉 DE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②

구분	모형1			모형2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1	.0		.2	.1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07	.03	.31	.09	.03	.40
1주 자녀와 놀아주는 총 시간				-.01	.00	-.29
수정 R ²		.07			.13	
F		5.01*			4.84*	
(수)		(50)			(50)	

* p < .05

〈표 IV-1-18〉 DE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③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4	.1		.4	.1		.6	.1	
아동 만월령(개월)	-.01	.00	-.32	-.01	.00	-.34	-.01	.00	-.35
과거 서비스 이용시간				.01	.00	.26	.01	.00	.31
모 취업학업여부							-.24	.11	-.24
수정 R ²		.09			.15			.19	
F		7.78**			6.78**			6.59**	
(수)		(70)			(70)			(70)	

** p < .01

〈표 IV-1-19〉 DE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전체아동④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1	.0		.3	.1		.4	.1		.4	.1	
과거 이용시간	.01	.00	.27	.01	.00	.29	.01	.00	.34	.01	.00	.34
아동 만월령(개월)				-.01	.00	-.25	-.01	.00	-.25	-.01	.00	-.21
모 취업학업여부							-.23	.10	-.25	-.25	.10	-.27
시간연장 이용시간										.06	.03	.23
수정 R ²		.06			.11			.16			.20	
F		5.77*			5.70**			5.80**			5.80***	
(수)		(75)			(75)			(75)			(75)	

* p < .05, ** p < .01, *** p < .001

그 외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으로,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코티졸 수준이 높고, 모가 평정한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코티졸 수치가 낮았으며, 아동연령

이 많을수록 오후 활성화 이후 하강하는 전형적인 AA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표 IV-1-20).

〈표 IV-1-20〉 코티졸 총량, 패턴 설명을 위한 회귀분석 유의변수 (전체아동)

종속변수	예측변수	모형1				
		계수(B)	표준 오차	베타(β)	수정 R ²	F값
코티졸 총량	부 최종학력	3.32	1.62	.22	.04	4.20*
코티졸 총량	모평정 빌달전반	-9.80	4.74	-.27	.06	4.29*
패턴AA형	아동만월령(개월)	.01	.00	.24	.05	4.90*

* p < .05

2. 만 2세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만 2세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상관관계 분석

연령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 2세(24~35개월) 영아기 아동 100명으로 국한하여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체아동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된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의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 월령이 많을수록 이용시간이 많아지는 아동 성장에 따른 빌달영향이 확인되었다. 현재 기관 이용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대상 아동 전체의 이용시간과 가정양육의 0시간과 10시간 이상의 극단치를 제외한 경우 둘 다 공통적으로, 기관 이용시간이 길수록 모가 (전일)취업모인 경우가 많았으며, 오전의 코티졸 수치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기관이용시간이 길수록 과거 서비스이용시간이 길고 과거 서비스의 수가 많은 정적 상관도 보였다.

부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현재 다른 서비스의 병행이용과 과거 이용 서비스의 수와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코티졸 수준과의 유의한 상관이 일관되게 있었다. 따라서 영아에게 많은 서비스 종류의 이용과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간의 증가는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주 이용기관서비스의 이용시간보다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종류와 수 즉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저해되는 경우에 긴 이용시간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연장보육의 이용과 이용시간, 그리고 어머니가 평정한 기관만족도

는 만 2세 기관이용아동의 코티졸 수준 및 변화 패턴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조사대상 2세 아동의 가구특성으로 부모 학력이 높고 모가 (전일)취업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과거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시기가 빨랐으며, 과거 이용서비스의 수와 이용시간이 많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오후, 저녁 코티졸 수치가 높게 나타나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취업모의 자녀일수록 오전 코티졸 수치가 낮고 A, B형의 전형적 패턴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는 정적 관계를 가지나, 본 조사에 의하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는 역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별 코티졸 수치와 총량, 변화 패턴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서비스 이용 최초시작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과거 서비스 이용의 수가 많고 이용시간이 길수록 오후와 전체 코티졸량이 많았다. 이로써, 앞서 살펴본 전체 아동 연령에서와 마찬가지로 2일간 코티졸 총량은 현재 기관 외 다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병행이용하는 경우와 그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과거 이용한 서비스의 수와 시간이 누적되어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 경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아가 여아에 의해 D, E형의 비전형적 패턴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성차가 다시 확인되었다(표 IV-2-1).

어머니가 인식하고 평정한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은 기관보육여부와 현재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가구소득, 그리고 코티졸 오전 수치 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자녀가 현재 다른 서비스를 추가 병행이용하는 경우 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모 우울감이 적은 것으로 모에 의해 응답되었다. 이는 병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환경, 즉 높은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의 궁정 양육행동과 자녀의 오전 코티졸 수치가 역의 관계를 보였으며, 규제적 양육행동은 정적인 상관을 보여 규제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둘째날 오전 코티졸 수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IV-2-2).

자녀의 시간연장보육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모의 이용기관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식한 만 2세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 관점위주의 아동 행동 인식이 반영되었거나 혹은 모의 기관만족도로 대변되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안정적 이용이 아동에게 궁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IV-2-3).

〈표 IV-2-1〉 기관이용 및 이용시간 관련 전체 상관표 - 만2세 아동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이동 만월령	1																											
2. 기관보육여부(기관보육=1)		1																										
3. 이용시간(전체)			.69**	1																								
4. 이용시간(기장 > 10제외)	.22*	.74**	.99**	1																								
5. 다른서비스 이용 여부				.25*	1																							
6. 다른서비스 이용시간					.24*	.22*	.53**	1																				
7. 시간연장보육 이용횟수						.23*			1																			
8.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22*			.62**	1																	
9. 기관만족도												1																
10. 이동성별(남=1)													.31**	.22*														
11. 월 기구소득													.31**	.26**														
12. 부 학력														.27**														
13. 모 학력															.39**	.64**												
14. 모 취업학업여부																.21*		1										
15. 모 전일취업여부																	.35**		.61**	1								
16. 첫날오전																												
17. 첫날오후																												
18. 첫날저녁																												
19. 둘째날오전																												
20. 둘째날오후																												
21. 둘째날저녁																												
22. 2일코티풀총량																												
23. 과거서비스 청취이용시간																												
24. 과거서비스 이용시간																												
25. 과거이용 서비스 수	.38**	.36**	.35**																									
26. 과거서비스 이용시간	.26**	.21*	.38**	.39**																								
27. 2일간 2페턴(양호=1)																												
주: 3. 이용시간(전체)는 조사대상 아동 모두의 이용시간을 평균한 값(기장영우 0시간[포함]이고 4. 이용시간[기장영우 0시간[포함]]이상인 경우)과 4. 이용시간[기장영우 0시간[포함]]이상인 경우로, 이용시간을 제외한 경우로, 이용시간의 영향력을 보다 엄격히 파악하기 위함임.																												

* p <.05, ** p <.01, *** p <.001

1

〈표 IV-2-2〉 자녀 스트레스 행동 및 모 양육행동 관련 상관표⁶⁾ – 만2세아동

구분	어머니가 평정한					
	자녀 스트레스 수준	부 스트레스 수준	모 양육 스트레스	모 긍정 양육행동	모 규제 양육행동	모 우울
기관보육여부(기관보육=1)				-.21*		
현재 다른서비스 이용여부			-.22*			-.29**
월 가구소득				-.20*		-.30**
첫날 오전 코티졸			-.22*			
둘째날 오전 코티졸				.22*	.21*	

* p < .05, ** p < .01

〈표 IV-2-3〉 모 평정 아동행동 관련 상관표① – 만2세아동

구분	어머니가 평정한 아동의				
	친 사회성	내재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애착행동	모자관계 애착
다른서비스 이용시간					-.21*
현재 시간연장보육 이용횟수			-.32*		
현재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32*		
기관만족도			-.27*		

* p < .05

〈표 IV-2-4〉 모 평정 사회정서행동 관련 상관표② – 만2세아동

구분	어머니가 평정한 아동의				
	전반적인 관계	아동 발달 전반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부정적 정서기질
기관보육 여부(기관보육=1)				-.22*	
다른서비스 이용시간		-.29*			
월 가구소득		-.30*	.21*		
첫날 오후코티졸		-.36*			
조사2일간 코티졸총량		-.54**			

* p < .05, ** p < .01

만 2세 아동이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가 평정하는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이 적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 밖에 현재 다른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오후 및 전체 코티졸 양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평정하는) 아동의 전반적인 관계의 질은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가

6) 〈표 IV-2-2~8〉 상관관계 표는 가독성 제고를 위해 유의한 결과를 부분적으로 제시함.

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은 높은 것으로 어머니에 의해 응답되었다(표 IV-2-4).

〈표 IV-2-5〉 교사 평정 사회정서행동 관련 상관표③ – 만2세아동

구분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친 사회성	내재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전반적인 관계	모 민감성
다른서비스 총이용시간	-.23*	.25*	.22*		.24*
아동성별	-.23*				
모 취업학업 여부			.33**		
첫날오후 코티졸				.73**	
둘째날오전 코티졸	-.25*				

* p < .05, ** p < .01

교사가 평정한 만 2세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등에 의하면, 현재 기관 외 다른 서비스 이용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이 떨어지고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 모의 민감성은 높은 것으로 교사에 의해 응답되었다. 현재 기관 외 다른 서비스의 추가 이용 외에, 남아일수록, 오전 코티졸 수치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일수록, 오후 코티졸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관계성은 양호한 것으로 교사에 의해 응답되었다(표 IV-2-5).

〈표 IV-2-6〉 교사 평정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관련 상관표 – 만2세아동

구분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	이동 발달 전반	부정적 정서기질
기관보육여부(기관보육=1)				
하루이용시간(전체)			.30**	
현재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27*	
다른서비스 이용시간			-.29**	
아동성별			-.23*	
월 가구소득			-.23*	
부 최종학력		-.22*		
모 최종학력		-.23*		
모 취업학업여부		.21*		
모 전일취업여부			.22*	

* p < .05, ** p < .01

교사가 평정한 만 2세 아동의 스트레스행동과 발달전반에 있어서도, 현재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이 길수록 발달수준이 좋은 반면, 다른 서비스를 추가 이용하거나 그 이용시간이 긴 경우, 그리고 남아일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취업모 자녀일수록 2세 아동의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이 적었다(표 IV-2-6).

〈표 IV-2-7〉 교사 평정 근로/기관만족도 관련 상관표 - 만2세아동

구분	교사가 평정한		
	근로만족도	기관서비스 만족도	교사 우울
현재 시간연장보육 이용횟수			-.25*
현재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	-.22*		
월 가구소득	-.36**		.22*
모 최종학력	-.25*		
모 전일취업여부			.23*

* p < .05, ** p < .01

한편, 현재 시간연장보육 횟수와 시간이 많을수록, 수요자 부모의 가구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가 평정한 근로만족도 및 기관서비스 만족도가 낮고, 교사의 우울감은 높았다(표 IV-2-7).

만 2세 아동의 코티졸 패턴을 조사한 결과, 다른 서비스의 추가 병행이용이 많을수록 D, E형의 비전형적 패턴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취업모의 자녀일수록, 그리고 여아일수록 A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비취업모의 자녀, 그리고 남아의 경우 Z패턴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IV-2-8).

〈표 IV-2-8〉 이용시간, 코티졸 양, 패턴간 상관표 - 만2세아동

구분	코티졸 패턴과의 상관관계						
	AA 패턴	BB 패턴	DE 패턴	A 관련 패턴	B 관련패 턴	D 관련패 턴	Z 관련패 턴
다른서비스 이용시간			.32*			.23*	
아동성별(남아=1)				-.33**			.28**
모 취업학업여부			-.29*		.31**		-.31**
모 전일취업여부	.29*		-.30*				
첫날오전 코티졸	-.51**		.54**		-.22*	.23*	
첫날오후 코티졸	.39**				.31**		-.21*
첫날저녁 코티졸	-.32*				-.26*		.51**
둘째날오전 코티졸	-.55**	.37*	.38*		-.28**	.23*	

* p < .05, ** p < .01

나. 만 2세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에 대한 회귀분석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실시한 만 2세 아동의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전체아동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관련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일수록, 그리고 과거 비모성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적을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2세 아동이 A, B형의 전형적 코티졸 변화패턴을 보였다(표 IV-2-9).

〈표 IV-2-9〉 AB 패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만2세 아동

구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3	.1		.4	.1	
모 취업학업여부	.40	.13	.35	.46	.13	.41
과거 비모성서비스 이용시간				-.01	.00	-.26
수정 R ²		.11			.16	
F		8.73***			7.08***	
(수)		(63)			(63)	

*** p < .001

〈표 IV-2-10〉 코티졸 총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만2세 아동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계수 (B)	표준 오차	베타 (β)									
(상수)	-8.9	9.3		-8.4	7.0		-8.4	4.7		-11.0	3.6		-11.5	1.0	
월 가구소득	9.06	1.85	.85	9.80	1.43	.92	8.78	1.01	.83	8.85	.74	.83	8.72	.21	.82
과거 이용시간				-.25	.09	-.37	-.34	.07	-.50	-.29	.05	-.43	-.31	.02	-.46
모 취업학업여부							8.05	2.47	.34	6.92	1.86	.29	8.90	.57	.38
모 평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										.34	.13	.18	.51	.04	.28
현재 다른서비스 이용시간													-.20	.02	-.20
수정 R ²		.70			.83			.92			1.00			1.00	
F		24.07**			24.59***			39.61***			57.38***			599.98***	
(수)		(10)			(10)			(10)			(10)			(10)	

*** p < .001

그러나, 2세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의 경향과 다른 점이 드러났다.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모일수록, 어머니가 평일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코티졸 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거 비모성육아지원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현재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만 2세아동의 코티졸총량이 적게 나타나 연령별로 다른 부분이 드러났다(표 IV-2-10). 추후 연구를 통해 연령별 효과의 차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Z형의 경우는 평소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보일수록, 모-자녀 애착이 불안정에 가까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1).

〈표 IV-2-11〉 Z 패턴에 대한 회귀분석 - 만2세 아동

구분	모형1			모형2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계수(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7	.5		2.3	1.2	
자녀의 평소 스트레스 정도	.45	.19	.56	.57	.16	.72
모자관계_애착				-.86	.32	-.54
수정 R ²		.260			.508	
F		5.57*			7.70**	
(수)		(13)			(13)	

* p < .05, ** p < .01

〈표 IV-2-12〉 코티졸 총량, 패턴 설명을 위한 회귀분석 유의변수 - 만2세 아동

종속변수	예측변수	모형결과				
		계수(B)	표준 오차	베타(β)	수정 R ²	F값
코티졸 총량	다른서비스 이용시간	.19	.04	.52	.258	17.69***
엄격한 A 형	현재기관만족도	.30	.13	.39	.124	5.23*
엄격한 DE형	과거 서비스이용시간	.01	.00	.42	.146	6.14*
넓은 B형	서비스최초이용시기	.01	.01	.25	.048	4.15*
넓은 A형	모 취업학업여부	.45	.14	.39	.141	11.14**
넓은 D형	과거서비스 이용시간	.00	.00	.28	.064	5.21*
엄격한 A형	이용시간	.27	.07	.90	.752	16.20*

* p < .05, ** p < .01, *** p < .001

그 외에 유의한 설명 변수로, 전체 아동의 상관/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서비스 이용이 많을수록 코티졸 수치가 높았으며,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길고, 만족도가 높고, 취업모일수록 자녀의 코티졸 패턴이 전형적 A형일 가능성이 높았다. 과거 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D, E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IV-2-12).

다. 육아지원기관 적정 이용시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참여 아동의 부모에게 취학전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및 서비스 이용의 적정한 시기와 이용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바람직한 기관 이용 시작 시기를 질문한 결과, 36개월 31.6%, 24개월 26.6%, 48개월 8.4%, 18개월 4.6%, 12개월 4.2%, 60개월 3.4%의 순으로 나타나 만 2, 3세의 시점에의 기관 이용의 시작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 평균을 구해보면, 월령 31.5개월로 두돌 반 정도 되는 시기가 평균 응답치로 나타났으며, 편차는 ±1년으로 큰 편이다(표 IV-2-13).

〈표 IV-2-13〉 영유아의 적정한 기관이용 시작 시기

구분	단위: %(명), 점
전체	100.0(263)
이용시간	
0세	1.9(5)
만1세	14.1(37)
만2세	33.5(88)
만3세	34.2(90)
만4세	9.9(26)
만5세 이상	4.2(11)
결측치	2.3(6)
평균(표준편차)	2.51세(1.09년), 31.5개월(12.12개월)

〈표 IV-2-14〉 영유아의 적정 이용시간 의견

구분	영아		유아		영아 (적정 등원시각) 유아 (적정 하원시각)	단위: %(명), 점
	영아 (적정 등원시각)	유아 (적정 하원시각)	영아 (적정 하원시각)	유아 (적정 하원시각)		
등하원시각						
7시	0.4(1)	0.4(1)	-	-		
8시	2.3(6)	3.1(8)	-	-		
9시	32.7(86)	58.9(155)	-	-		
10시	44.5(117)	25.9(68)	0.4(1)	0.4(1)		
11시	2.3(6)	0.4(1)	-	-		
12시	0.4(1)	-	6.1(16)	-		
13시	0.8(2)	0.4(1)	8.8(23)	0.4(1)		
14시	0.8(2)	-	14.8(39)	5.3(14)		
15시	-	-	16.0(42)	12.5(33)		
16시	-	-	26.2(69)	32.0(84)		

(표 IV-2-14 계속)

구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영아	유아
1일 적정 이용시간				
17시	-	-	6.5(17)	28.5(75)
18시	-	-	3.0(8)	6.8(18)
19시	-	-	1.1(3)	1.5(4)
20시	-	-	0.8(2)	1.1(3)
평균(표준편차)	9.65(0.82)	9.28(0.59)	15.06(1.66)	16.28(1.22)
1시간	0.8(2)		0.4(1)	
2시간	2.3(6)		-	
3시간	7.2(19)		-	
4시간	18.6(49)		3.0(8)	
5시간	16.7(44)		7.6(20)	
6시간	24.0(63)		25.1(66)	
7시간	8.0(21)		21.3(56)	
8시간	2.7(7)		23.6(62)	
9시간	1.5(4)		4.9(13)	
10시간	1.1(3)		1.5(4)	
11시간	1.5(4)		1.1(3)	
12시간	0.4(1)		0.8(2)	
평균(표준편차)	5.33(1.81)		6.95(1.46)	
1주 적정 이용일수				
1일	0.4(1)		-	
2일	0.8(2)		0.4(1)	
3일	4.6(12)		-	
4일	4.2(11)		0.8(2)	
5일	65.0(171)		77.2(203)	
6일	1.1(3)		2.7(7)	
7일	1.1(3)		1.1(3)	
평균(표준편차)	4.82(0.71)		5.04(0.37)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기관이용 시 하루 적정한 이용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유아 모두 등원시각은 9시 이후로, 하원시각은 영아 3시경, 유아 4시 15분 경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등원시각에 비해 하원시각에의 모 응답에 편차가 1시간 이상으로 큰 편이다. 1일 적정 이용시간은 영아 5.3시간, 유아 약7시간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1주일 이용일수에 대해서는 영아 4.8일, 유아 5일 이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표 IV-2-14).

〈표 IV-2-15〉 이용시간 관련 정책 의견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결측	계(수)	단위: %.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지원 이용시간 구분설계	39.9	27.8	24.7	5.7	1.9	100.0(263)	1.96(.95)
취업모 우선 이용 설계	2.7	7.2	29.3	59.3	1.5	100.0(263)	3.47(0.75)
종일제 중심의 이용지원	1.9	6.1	26.2	64.6	1.1	100.0(263)	3.55(0.70)
오랜 이용 시간에 대한 고려	14.1	21.3	49.8	12.5	2.3	100.0(263)	2.62(0.89)

기관 이용 및 이용시간 관련하여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4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표 IV-2-15), 첫 번째 영유아 지원이 되는 기본이용시간을 오후 2~3시 정도로 정하고,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이용시간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 '(매우+약간) 반대' 67.7%, 찬성 비율은 30.4%로 나타나 이용시간 구분 설계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취업모 자녀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세 번째,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근로권 보장을 위해 (현재와 같은) 종일제 중심의 기관이용과 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한 찬성 의견은 각 88.6%, 90.8%로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영유아가 기관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찬성 62.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취업모가 많은 응답자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V.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조사 결과 시사점 및 제언

1.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과 아동의 스트레스, 부모 및 가족 특성과의 관계

1)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아동의 코티졸 양 및 변화 패턴간의 관계

타액에 의한 스트레스호르몬(코티졸) 조사 결과, 기관이용아동 243명의 스트레스 수준과 변화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다수의 기관이용 아동의 코티졸 분비의 패턴은 오후에 코티졸 수치가 올라갔다가 귀가 후 저녁시간에는 떨어지는 \wedge 형(A형)의 경우가 가장 많아,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대로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영유아의 코티졸 분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오후 코티졸 분비의 활성화(오후 코티졸 수치 상승)가 일어나는 것으로, 특히 이용시간이 길수록 오후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A, B형의 전형적 패턴의 코티졸 수준과 총량이 다른 패턴에 비해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교사와 모가 평정한 아동의 발달수준이 양호했다. 오후의 코티졸 수치 상승 여부에 차이가 있는 A형(\wedge 형), B형(\backslash 형)간에 교사와 모가 인식한 아동 발달상의 차이나 가정환경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가정양육의 영영아 사례에서 B형의 비율이 높았다. 해당 사례수는 적었으나, 귀가후에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비전형적인 패턴(D, E형)의 경우는 아동의 발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하루 3번 2일에 걸쳐 채취된 타액 검체를 통해 2일간 스트레스호르몬 총량을 비교한 결과, 이용시간이 길수록 분비된 코티졸의 총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0시간 이상의 긴 이용시간이 정례화된 취업모 자녀의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오전과 저녁 시간의 코티졸 분비가 유의하게 낮아 오후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2일간의 코티졸 총량은 유의하게 적었다. 오랜 기간 장시간 이용에 적응해 온 기관이용 아동의 경우 오전

과 저녁 시간의 스트레스 반응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기관에 머무는 오후시간에는 코티졸 분비가 많아지지만 집에 돌아가면 호르몬 분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장시간 이용아동의 집에 돌아온 이후의 이완과 편안함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이러한 아동의 발달수준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기관만족도가 높고, 취업도 가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아동이 귀가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A, B형의 전형적 패턴을 가지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B형과 오후에 올랐다 떨어지는 A형간의 아동발달상의 차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이 연구결과는 패턴의 분류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한 오후의 스트레스 수치의 상승이 저녁시간 수치의 하락과 긴장의 이완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기관이용으로 인한 A형 패턴에 대한 우려가 재고될 여지가 있음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오후에 높아지는 패턴이 가장 많았으므로, 오후 시간의 스트레스와 긴장의 누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또한 이용시간이 긴 아동의 발달수준과 사회정서행동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므로, 유아기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가 양질의 가정환경과 함께 할 경우 아동발달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도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 다른 서비스의 이용 및 시간연장서비스, 최초 이용시기와의 관계

한편,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적을수록 코티졸 분비 총량이 많은 이면에는 '기타 다른 서비스의 추가 이용(quantity, stability)' 및 비모성양육의 육아지원서비스 '최초 이용시기(entry of age)'라는 변인이 매개하고 있었다. 대체로 기관이용 아동의 이용시간이 6~8시간으로 큰 편차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용시간이 적은 아동의 경우, 하원 후 다른 교육·보육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여 이용서비스의 종류와 양, 기관의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총량이 증가하고, 비전형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D형과 E형, Z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영유아가 주 이용기관인 어린이집 외에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가고 귀가후 떨어져야 하는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비전형적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거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의 시작 연령이 어릴수

록, 과거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이용의 수와 양(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코티졸 분비량과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긴 이용시간의 작용에 ‘시간연장’ 이용의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즉 이용시간이 길어져도 기관서비스의 질 및 다른 특성의 고려와 함께 아동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반응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친구들이 귀가한 이후의 시간연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시간이 길어도 코티졸 총량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간연장 이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코티졸 양이 더 많고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교사보고도 많아 저녁시간에 남는 시간연장 서비스의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는 ‘하원시각(timing)’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3) 아동의 발달시기(연령) 및 서비스 질과의 관계

이용시간 및 기관이용 외에 가장 두드러진 스트레스호르몬 관련 요인은 바로 아동의 ‘연령’이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아동이 성장할수록 기관이용아동의 전형적인 A(^)패턴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아동이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비모성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아동의 연령임을 알 수 있다. 어린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가 많은 것에 대해 낮잠을 많이 자는 생활패턴의 차이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나, 거의 동일한 어린이집 일과 중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유의한 점을 볼 때 아동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의 차이는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어느 시점 어느 연령대가 가장 적정한 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않다. 더구나 일을 해야하는 취업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의 측면에서 어느 시기가 기관이용에 적정한 시기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관련 요인을 볼 때, 너무 어린나이에 비모성양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종류(수)와 시간(양)이 많은 경우일수록,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기관 외에 또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은 많은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의 종류 및 수의 영향과 관련하여, 본 조사자료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

수록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량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이용기관에서 안정적인 이용 패턴을 보이는 아동은 다소 긴 이용시간을 갖더라도 아동의 코티졸 분비는 귀가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전형적 패턴을 보이게 되며, 스트레스호르몬 총량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자료에서 이용시간이 길수록, 취업모일수록,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정례화된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 이용은 긴 이용시간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관의 서비스의 질은 기본적인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너무 많은 서비스의 종류와 잣은 이용기관의 변동, 즉 서비스의 수가 많은 ‘안정성(stability)’의 저해가 서비스의 질과 함께 주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는 생리적 검사의 특성상, 부모 및 대상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기관의 조사에 개방적, 협조적인 기관으로서 원장과 교사의 조사진행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며, 조사대상 아동의 부모 또한 자녀의 어린이집에서의 적응과 스트레스에 관심이 있는 부모일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부모 설문에 의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4.43점/5점으로 나타나 기관서비스의 질을 반영하는 기관이용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부모의 응답에 근거하여 대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본 조사에 참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보인 기관으로 간주할 때, 이러한 기관에서 장시간 이용하는 아동의 적응을 돋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 또한 장시간 이용에 대해 적정한 대응과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시간 이용에 대해 아동의 긍정적 적응 기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안정적인 서비스의 지속’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모 취업과의 관계

전반적으로 ‘취업모’의 자녀가 이용시간이 긴 가운데, 이 아동의 코티졸 총량이 이용시간이 적은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며, 귀가 후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A, B형 패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또한 교사가 평정한 아동발달(친사회성, 발달전반에 대한 평정 등) 특성에서 취업모자녀와 기관이용 시간이 긴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았

으며 모-자녀간 안정 애착관계의 형성, 교사평정에 의한 전반적인 발달수준이 높았다. 취업모와 관련하여 연관된 환경변인으로 취업모 가구의 소득이 더 높았으며 양육스트레스와 모 우울감은 낮았다. 따라서 모의 취업이 경제적 능력과 양육효능감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아동은 상대적으로 긴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발달과 성장에 있어 양호한 경로를 보이며, 이는 바로 부모의 취업 및 양육행동, 가정의 양육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의 기관이용 시작 연령이 어리고,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와 양(시간)도 많은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 취업여부에 따른 비교 분석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스트레스호르몬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용시간과 모 취업, 서비스 이용의 수와 양(시간), 시작 시기, 아동의 발달특성, 모-자녀 애착 관계, 기관서비스의 질(만족도) 등 많은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복합성을 보이는 가운데, 그러한 중에서도 취업모 자녀의 긴 이용시간 변인이 대체로 긍정적인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사·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및 교사·부모의 아동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교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시간연장 이용이 많을수록 높았으므로, 교사의 근로시간의 보장 및 근로여건의 보장을 통해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까지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의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이 아동의 코티졸 수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부모가 인식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높아, 아동과 부모의 스트레스 간의 역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한편 모 우울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코티졸 수치도 높았다. 또한 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는 높게 나타난 부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부모(성인)의 양육행동 및 스트레스 인식과 영유아의 스트레스 인식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겉으로 표출된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에의 성차

통상적으로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에는 남아 여아간에 유의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왔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으로 인해 남아 여아간의 코티졸 총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오후시간 활성화가 여아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코티졸 변화 패턴에 있어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에 귀가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비전형적 패턴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 일과 프로그램에서 여아의 스트레스를 고려한 오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아가 귀가후에는 긴장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가정간의 연계와 이러한 가정환경의 구성을 위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 및 이용시간 설계에의 제언

이상의 생리적 검사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이용시간에 따른 육아지원정책에의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기의 기관이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으므로, 주변 환경에의 변화에 민감하고 스트레스 반응과 활성화가 많은 영아기, 특히 신생아기의 기관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모성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향후 아동의 적응과 반응에 그리고 부모의 이후 서비스 이용에 '최초 시작 연령'이 유의한 요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신생아기 이후로 기관이용의 시작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및 건강한 양육환경의 조성에 바람직하다. 만1세 이하 영아의 기관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설계로 부모 직접 양육의 육아휴직과 부모 직접양육이 어려운 경우 가정내 아이돌보미 이용과 같은 개인양육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2) 이용시간보다는 양질의 안정적인 서비스의 지속, 즉 기관서비스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양질의 서비스는 아동 발달과 사회정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일정수준 이상 양질의 기관 서비스의 제공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관 적응, 스트레스 대처에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상호작용,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의 우수성 등 기본적인 질 관리 척도의 적용은 아동의 이용시간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요인이다. 즉 서비스의 질이 담보된다면, 긴 이용시간으로 인한, 모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의 공백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도 일정수준 긍정적으로 상쇄될 뿐만 아니라 아동발달과 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누적시키므로, 서비스 질 관리와 프로그램의 구성에 지속적인 관리와 개발, 그리고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긴 근로시간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기관서비스의 질에는 교사가 인식하는 근로환경과 여건으로서의 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취업모를 지원하는 일가정양립의 육아지원정책은 아동의 발달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

셋째, 본 조사자료는 취업모 우선 이용 및 일가정 양립의 정책적 접근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으로서도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영유아 자녀를 둔 모의 노동시장의 참여가 가계의 경제력에 기여하고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아동의 스트레스 활성화면에서 오후에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기는 하나, 귀가후 떨어지는 전형적인 안정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긴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아동의 발달수준과 친사회성, 안정애착의 형성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취업모의 양육과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선순환하는 기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유아기의 긴 이용시간의 부정적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병행서비스의 종류와 수, 시간연장의 이용이 부정적이므로 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유아기 아동의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의 종류와 수, 그리고 시간연장 형태로의 긴 이용시간은 스트레스호르몬 분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서비스 제공의 변동과 시간연장 이용에 대해 아동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많은 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잦은 변화의 패턴은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

학력이 높은 가정환경에서도 코티졸 수치의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정한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이라는 적정 규모와 수,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다소 이른 하원 후, 또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코티졸 수치를 높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저해가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성 및 안정애착, 전반적인 발달수준에도 저해가 됨을 부모교육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내용을 편성하되, 교사 및 환경적 요인을 안정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에서의 시간연장의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아동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여 시간연장교사의 정서적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이 긴장을 이완할 수 있도록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겠다.

본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양적인 측면 외에, 다른 아동들이 대다수 하원한 이후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심리적 반응이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유연근무제 등의 활용을 통해 아동의 기관이용 시간대를 코티졸 수준이 낮은 오전에 보다 일찍 시작하고 가능한 한 하원 시간을 늦은 저녁 시간연장까지 늦추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부모들은 현행 종일제 위주의 지원에서 이용시간 다양화 설계에 의한 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용시간 다양화 추진에 있어 이용시간에 따른 프로그램(시간제, 반일제, 종일제, 시간연장) 구성의 차별화와 이러한 이용시간의 차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영향을 주지시키는 홍보 및 부모교육의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종일제 프로그램의 구성이 안정성과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용적 측면의 세밀한 구성과 접근이 요구된다.

5) 어린이집 일과의 오후 프로그램과 아동의 귀가후 가정에서의 휴식과 회복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스트레스호르몬, 즉 코티졸 수치는 부모 및 교사가 관찰 평정한 스트레스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즉 어린 영유아가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트레스 수준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관찰과 보육에서 부모와 교사가 외현적 행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재적 스트레스 기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섯째, 본 연구의 코티졸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다수가 오후에는 스트레스호르몬이 올라가는 활성화 패턴을 보이므로, 오후로 이어지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오후 시간에 인지적 학습이나 교사주도의 대집단활동을 지양하고, 놀이와 개별 아동 중심의 자유활동시간이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6)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및 부모가 지각하는 긍정적 양육환경이 영유아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 및 발달과 일부 역의 관계를 보였다. 아동의 관점에서 보다 온정적이고 세밀한 양육행동과 환경의 구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모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긍정적 양육행동, 가구 소득과 부모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일부 역의 관계를 보였으므로, 부모가 인식하기에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가정 환경이 아동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에의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부모가 인식하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양육환경이 반드시 아동에게 발달상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집에서의 양질의 환경이 귀가후 가정에서도 이어져 가정과 육아지원서비스와 가정양육간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점이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의 코티졸 수치가 귀가후에는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환경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집에 돌아가서는 긴장이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환경의 마련과 부모됨이 요구된다.

7) 비취업모 대상 육아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이용시간의 구분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취업모 자녀에 비해 비취업모 자녀의 코티졸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아동의 발달수준 및 사회정서행동에 차이가 난 것은 비취업모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일할 기회가 없음으로 인한 자녀양육에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큰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의 취업모 지원 정책은 비취업모의 육아지원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모의 구분이 전일제 취업 외 시간제 취업과 학업, 취업훈련, 구직 중 등

으로 다양한 범위를 가지므로 취업 여부에 따른 구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동시에 비취업모 대상의 양육지원과 서비스의 활성화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 및 선행될 필요가 있다.

8)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스트레스 관리를 돋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가구소득과 부 학력이 낮은 가정환경의 아동이 스트레스 행동 및 사회정서발달, 그리고 일부 코티졸 수치와 패턴에서 비전형적 비율이 높았으므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행동 발달과 성장을 돋고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지원과 보육·교육의 정책설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정환경으로 인한 결핍과 아동이 체감하는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행동을 완화하는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은정·이성립·이완정·김한나(2011).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형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숙령(1996). 영·유아의 보육경험과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재고. *한국영유아보육*, 6, 23-56.

김희영(2001).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에 다른 유아들의 스트레스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류왕효(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 45, 207-225.

나정·류숙희·고미경·성화영·양옥승·장영희·김희진(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교육개발원.

- 노정민(2010). 시간연장보육 영유아의 스트레스행동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최정윤·권연희·김지현(2007). 보육의 특성에 따른 유아의 코티솔 패턴. *아동학회지*, 28(6), 201-215.
- 박희영(2009).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아동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어머니와 장애 아동의 반응성 상호작용 및 타액 코티졸과 면역글로불린 A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예준(2011). 중학생들의 분류능력지수와 타액 cortisol 호르몬 분비량 변화의 관계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011). 보육통계 201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박수연(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권미경·이완정·이미화·김혜진(2011).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취약보육과 보육교사 인력활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지원체계 개편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신은영, (1998).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모델에 관한 시도적 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종(2006). 등마사지가 뇌졸중 편마비환자들의 스트레스호르몬 변화와 수면에 미치는 영향-타액 코티졸과 DHEA ratio를 중심으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미(2002).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유치원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아교육법 [(타)일부개정 2012. 3. 21. 법률 제 11382호]
- 이송희(2006).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 유형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 스트레스 행동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신의진·정지나·민성혜·민현숙·이경숙(2007). 유아의 가정에서의 코티솔 패턴과 내면화 행동성향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9), 53-62.
- 진성아(2006). 유치원의 반일반, 종일반 운영에 따른 만 5세아의 스트레스 행동 차이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2007).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성취목표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정윤(2008). 보육시설 아동의 코티솔 수준: 보육경험, 사회계층,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립·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 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2011). www.kicce.re.kr
- Aviezer, O., Sagi-Schwartz, A., & Koren-Karie, N. (2003). Ecological constraints on the form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 When maternal sensitivity becomes ineffectiv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6, 285-299.
- Belsky, J.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_____, (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85-903.
- _____, (2001). Emanuel Miller lecture: Developmental risks (still) associated with ear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845-859.
- _____, & Fearon, R. M(2002).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contextual risk., and early development: A moderational analysi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4, 293-310.
- _____, Vandell, D. L., Burchinal, M., Clarke-Stewart, K. A., McCartney, K., Owen, M. T., & NICHD-ECCRN. (2007). Are There Long-Term Effect of Esar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8, 681-701.
- Burts, D. C., Harts, C H., Charlesworth, R., & Kirk, L. (1990). A comparison

- of friendship or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strument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07-423.
- _____, Million, M., & Shermis, M. (1985). The incid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743-744.
- Conger, R., Wallace, L., Sun, Y., Simon, R., McLoyd, V., & Brody, G.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Clarke-Stewart, K. A. (1992). Consequences of child care-one more time: A rejoinder. In A Booth(Ed). *Child care in the 1990s trends and consequence(pp.116-124)*. NJ: Erlbaum.
- Deborah L. V., & Belsky, J. (2010). Do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tend to Age 15 Year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 Dettling, A. C., Gunnar, M. R., & Donzella, B. (1999). Cortisol levels of young children in full-day child care centers: Relation with age and temperament. *Psycho-neuroendocrinology*, 24, 519-536.
- _____, Parker, S. W., Lane, S., Sebanc, A., & Gunnar, M. R. (2000). Quality of care and temperament determine changes in cortisol concentrations over the day for young children in child care. *Psychoneuroendocrinology*, 25, 819-836.
- Evans, G.W. (2003). A multimethodological analysis of cumulative risk and allostatic load among rura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9, 924-933.
- Geoffroy, M. C., Cote, M. C., Parent, S., & Sguin, J. R. (2006). Daycare attendance, stress, and mental health.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 607-615.
- Goodyer, I. M., Park, R. J., Herbert, J. (2001). Psychosocial and endocrine

- features of chronic first-episode major depression in 8-16 year olds. *Biological Psychiatry*, 50, 351-357.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s.
- Groeneveld, M. G., Vermeer, H. J., van IJzendoorn, M., & Linting, M. (2010). Children's wellbeing and cortisol levels in home-based and center-based child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 502-514.
- Gunnar, M. R., & Cheatham, C. L. (2003). Brain and behavior interface: Stress and the developing brai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 195-211.
- Gunnar, M. R., Kryzer, E., Van Ryzin, M. J., & Rphillips, D. A. (2010). The rist in cortisol in family daycare: Associations with aspects of care quality, child behavior, and child sex. *Child Development*, 81(3), 851-869.
- _____, Tout, k., de Haan, M., Pierce, S., & Stansbury, K. (1997).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and adrenocortical activity in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biology*, 331(1), 65-85.
- Hagemann, K., Jarausch, K. H., & Allemand-ghionda, C. (2011). *Children, Families, and States: Time Policies of Childcar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 in Europe (Studies in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Berghahn Books.
- Helsingin Sanomat(2011). 핀란드 일간지 신문 기사. 2011. 11. 16
- Honig, A. S. (1986).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Young Children*, 5, 50-63
- Kirschbaum, C., Steyer, R., Eid, M., Patalla, U., Schwenkmezger, P., & Hellhammer, D. H. (1990). Cortisol and behavior: 2. Application of a latent state-trait model to salivary cortisol. *Psychoneuroendocrinology*, 15, 297-307.
- McEwen, B. S. (1998). Protective and damaging effects of stress mediator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28, 171-179.
- LaFreniere, P. J.,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 evaluation in children ages 3 to 6 years: The short form (SCBE-30). *Psychological Assessment, 8*, 369-377.
- Legendre, A.(2003). Environmental features influencing toddlers' bioemotional reactions in day care centers. *Environment and Behavior, 35*, 523-549.
- Lupien, S. J. & McEwen, M. J. (1997). The acute effects of cortisosteroids on cognition: Integration of animal and human model studies. *Brain Research Reviews, 24*, 1-27.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1). Child care and family predictors of preschool attachment and stability from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7*, 847-862.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Does amount of time spent in child care predict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 976-1005.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4). Multiple pathways to early academic achieve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74*, 1-29.
- O'Brien, S. J. (1988). Antidata for childhood stres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05*, 7-12.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Roisman, G. I., Susman, E., Barnett-Walker, K., Booth-LaForce, C., Owen, M. T., & Belsky, K., et al. (2009). Early family and child care antecedents of awakening cortisol level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80*, 907-920.

- Sagi, A., Van IJzendoorn, M.H., Aviezer, O., Donnell, F., & Mayseless, O. (1994a). Sleeping out of home in a kibbutz communal arrangement: It makes a difference for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5, 992 - 1004.
- Salimetrics (2001). High Sensitivity SALIVARY CORTISOL ENZYME IMMUNOASSAY KIT.
- Segerstrom, S. C., & Miller, G. E.(2004).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human immune system: A meta-analytic study of 30 years of inquiry. *Psychological Bulletin*, 130, 1-27.
- Sims, M., Guilfoyle, A., & Parry, T. S. (2006). Children's cortisol levels and quality of child care provision. *Child: Care, Health,& Development*, 32(4), 453-466.
- Sobolewski, J. W., & Amato, P. R. (2005). Economic hardship in the family of origin an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41-156.
- Tout K., Campbell. E. K., Gunnar. M. R. (1998). Social Behavior Correlates of Cortisol Activity in Child Care: Gender Differences and Time-of-Day Effects. *Child development*.
- Vermeer, H. J., IJzendoorn, M. H. (2006). Children's elevated cortisol levels at daycare: A review and meta-analysi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390-401.
- Watamura, S. E., Donzella, B., Alwin, J., & Gunnar, M. (2003). Morning-to-afternoon increased in cortisol concentrations for infants and toddlers at child care: Age differences and behavioral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4, 1006-1020.
- _____, Sebanc, A. M., & Gunnar, M. R. (2002). Rising cortisol at childcare: Relations with nap, rest, and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0, 33-42.
- Wheaton, B., & Clarke, P. A. (2003). Space meets time: Integrating tempor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mental health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 680-706.

Abstract

Readdressing the Influence of Time Spent in Child Care Services on Child Development through Analysis of Cortisol Levels

Yoon Kyung Choi Yun Jin Lee Se Hyun Lee Jihye Na

Cortisol levels are widely used as a measurement of stres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 aged children's cortisol levels and the amount of time spent at daycare centers.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tress levels and their family environment (i.e., mother's employment status, family income), the childre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daycare centers was also examined.

The subjects were 243 children between 1 month to 6-years of age. Cortisol levels were measured via saliva samples taken from children attending daycare centers. The samples were collected three times, in the morning, the afternoon, and the evening. Mothers were asked to answer a questionnaire on family information; their child's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and their own depression and stress level. Teachers also answered a questionnaire on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of each child in their class.

According to the findings, children who spent 10-12 hours at daycare centers demonstrated the lowest cortisol levels, lower than that of the children who spent less time at the center.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cortisol secretion when staying at daycare centers for a shorter period of time may be due to the additional services experienced by those children. In other words, the use of additional services after daycare may cause more stress to the child. Also, the cortisol levels of younger children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lder children. This explains the possibility that older children are better at coping with stress than younger childre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ll for the provision of high-quality daycare, and the need to delay children's entrance to day care centers.

부 록

부록 1. 주요변인간 상관관계

부록 2. 코티졸 패턴의 유형(A, B, C, D, E, Z형)

부록 3.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교사용-개별아동)

부록 4.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교사용)

부록 5.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부모용)

부록 1. 주요변인간 상관관계

〈부록 표 1〉 이용시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코티졸 분비량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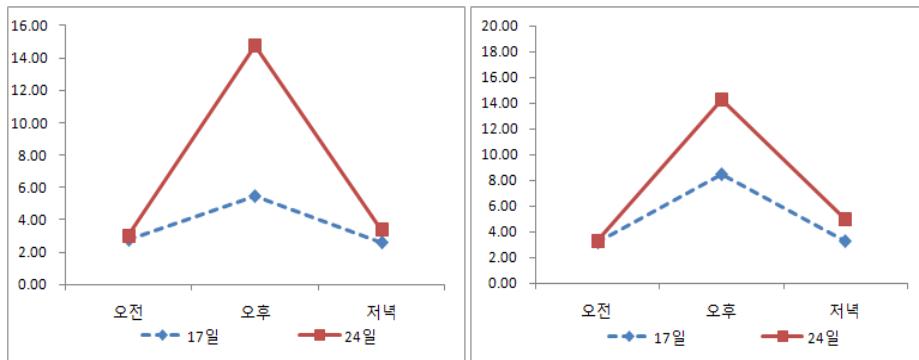
주: 2) 가정양육=1, 3) 남아=1, 6) 모·부·취학여부=1, 7) 모·친일제·취업=1, 8)~13) 해당시점 코더를 양, 16)~18) 두 시점 코더를 변회량

〈부록 표 2〉 모 양육특성과 이동의 사회정서발달(모 평정) 및 스트레스 행동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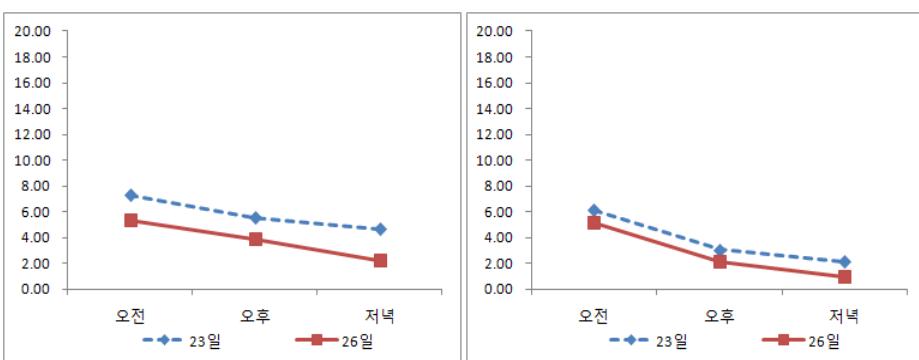
관계
간의
평정(평정)
교사특성과 아동이 사회적 서방 담당(교사)
서비스 이용 및 다른 서비스 3> 다른 부록

부록 2. 코티졸 패턴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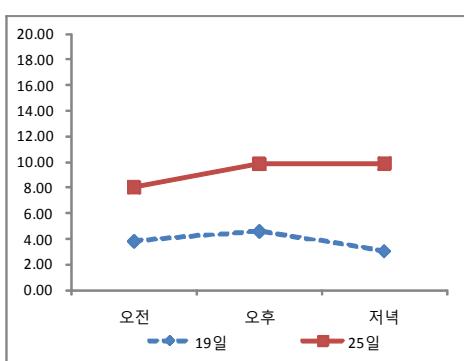
유형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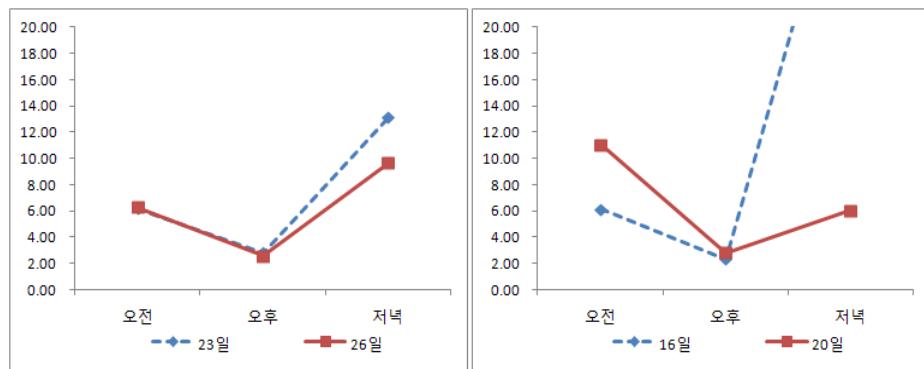
유형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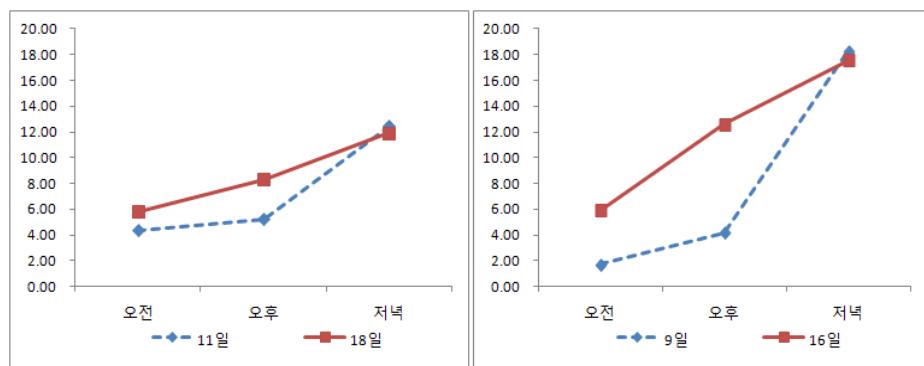
유형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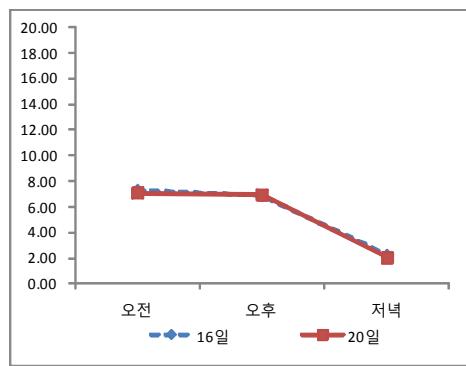
유형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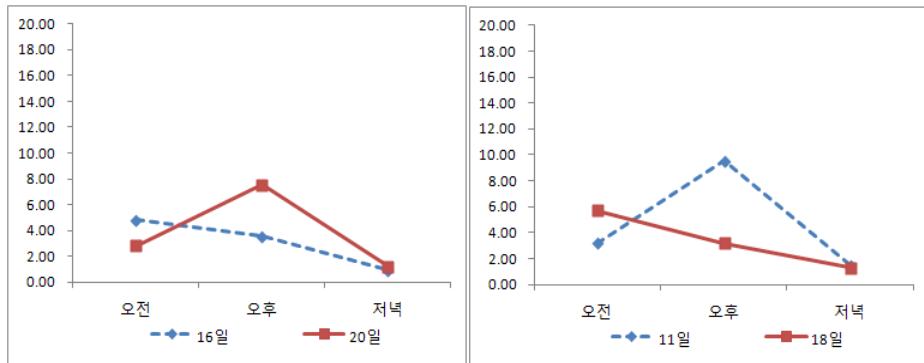
유형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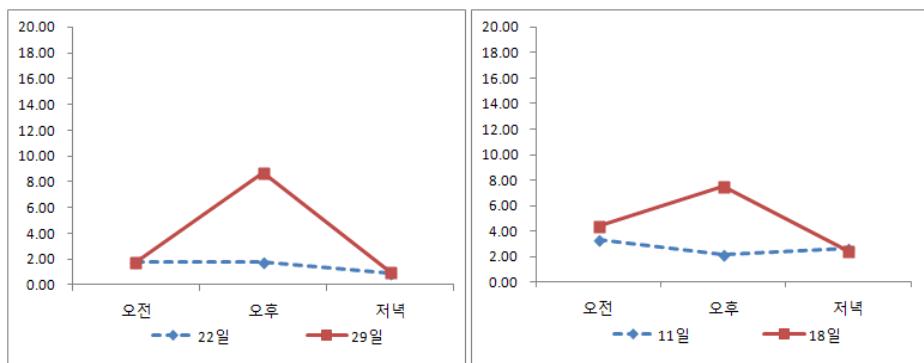
유형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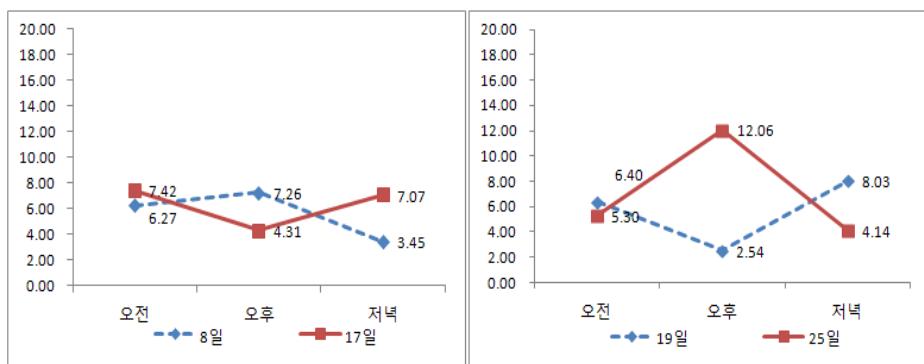
Z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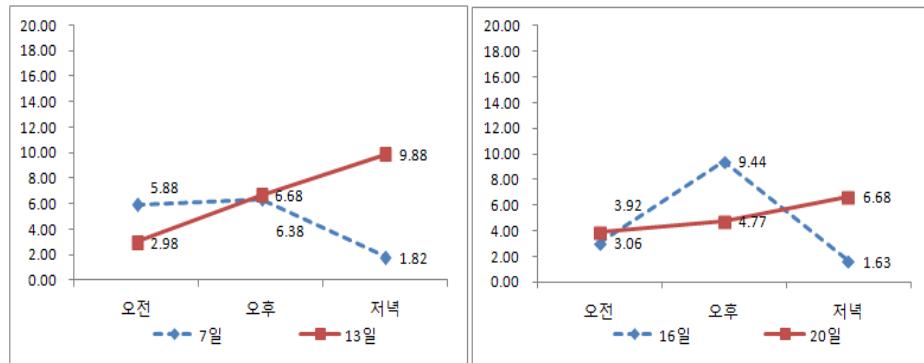
Z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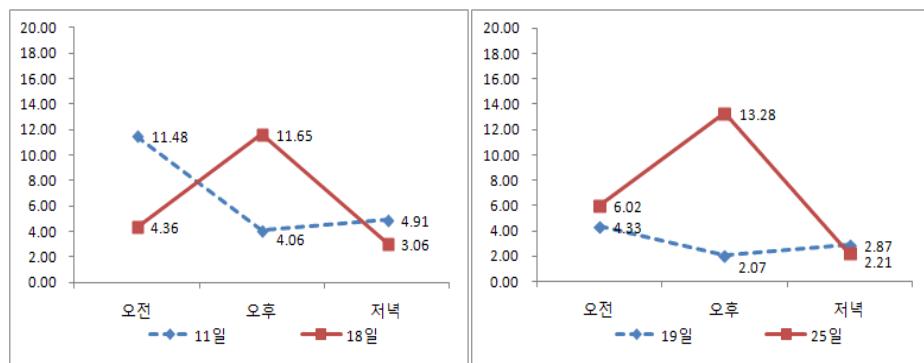
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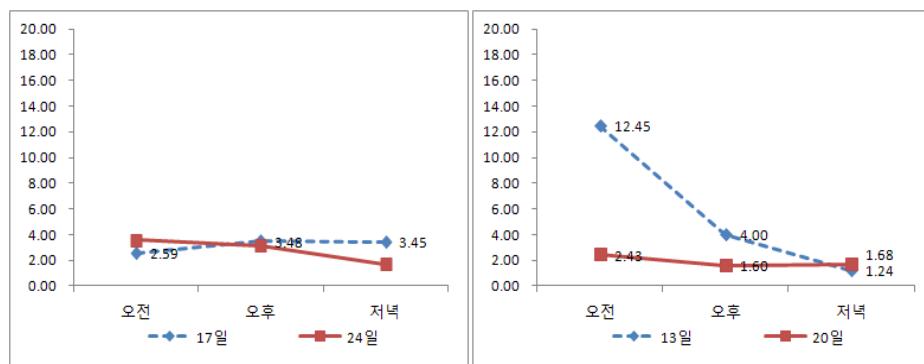
Z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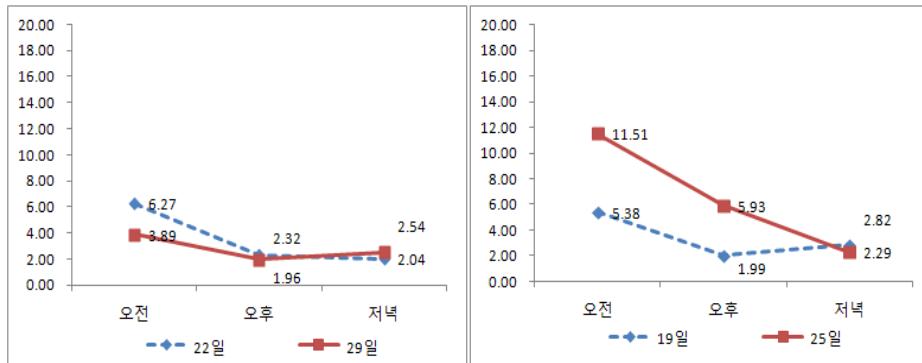
Z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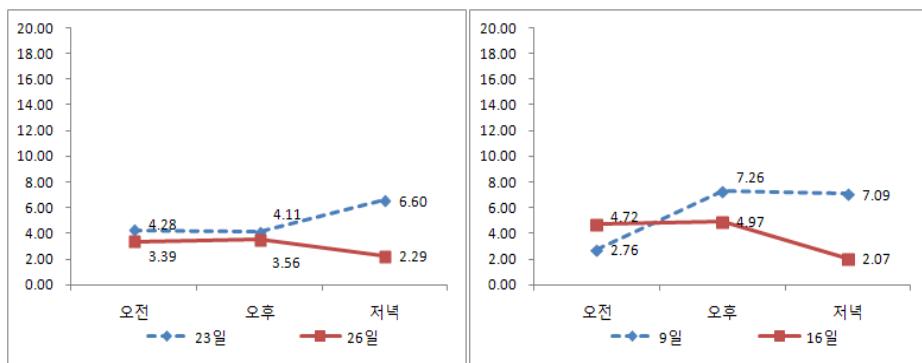
Z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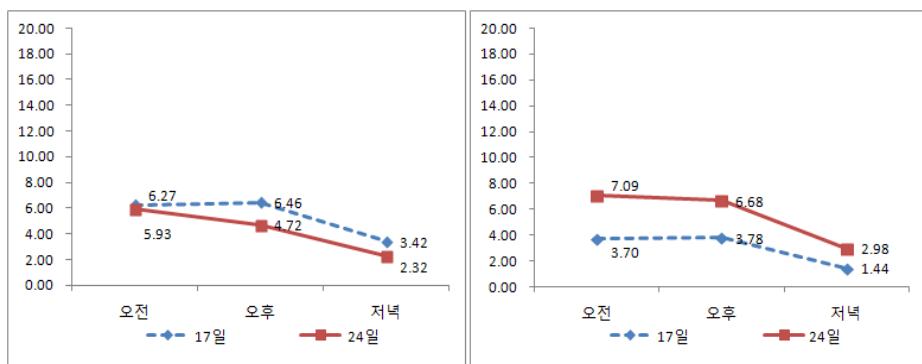
Z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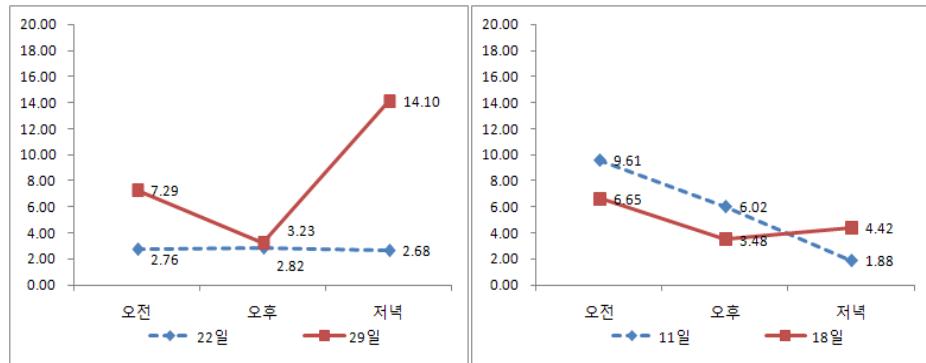
Z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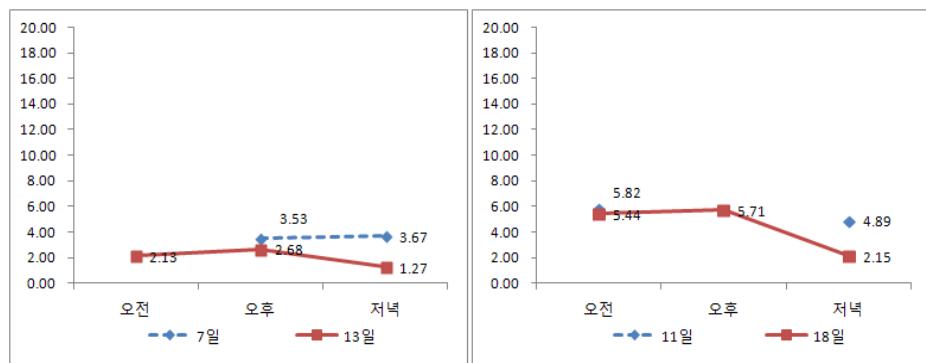
Z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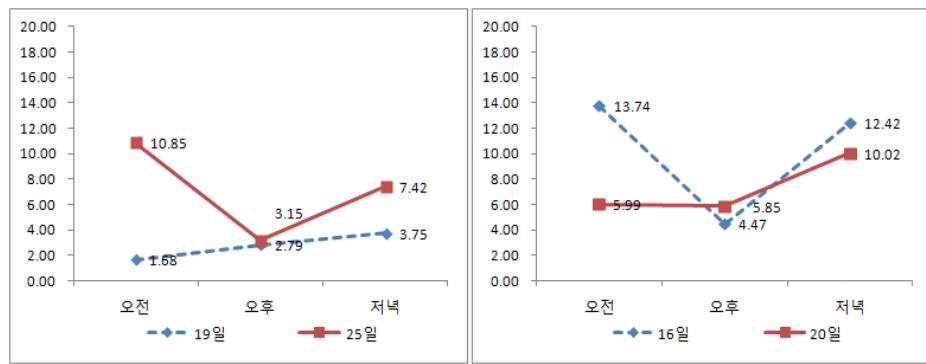
Z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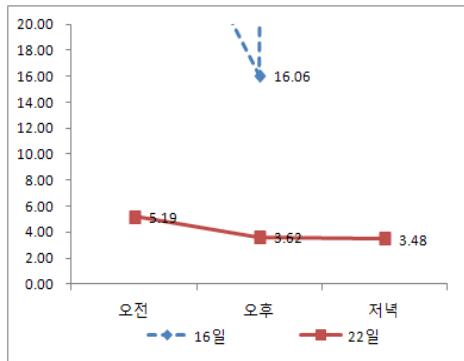
Z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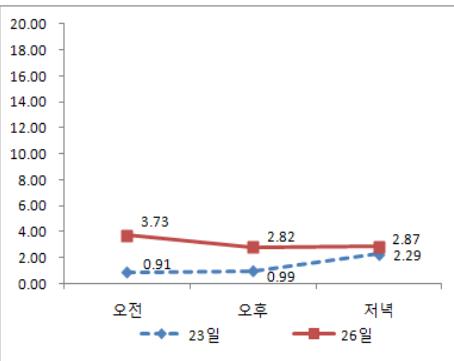
Z12



Z13



Z14



부록 3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관	ID	아동 번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 (교사용-개별아동)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소에서는 2012년 기본과제로 「영유아 발달에 비추어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취학전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의 적정한 기관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시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타액(침)을 통한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 조사를 2일간 총 6회 채취하게 되며, 호르몬 결과와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조사이오니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내용과 조사결과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계의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용시간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이용시간 연구팀 (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김세현 연구원 ☎ 02)398-7758, FAX 02)730-3319

e-mail: shsehyen@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아동의 발달 및 스트레스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별 아동별로 작성해주십시오.

* 다음의 기본사항을 기록해 주시고, 해당칸에 ✓ 표 해주십시오.

기 관 명/반	() 어린이집 / 유치원		(세) 반 (반)	
아동 이름		아동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아동 연령	만 세 개월			
응답교사 성명		응답 일시	2012년 월 일	

1. 아동의 사회 · 정서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의 응답이 불가능 한 경우, 비해당에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님	대체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비해당
1) 피곤해 하거나 지쳐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3) 안달하거나 쉽게 화낸다	①	②	③	④	
4) 소심하고 두려워한다(예: 새로운 상황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5) 슬프고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불편해 한다	①	②	③	④	
7) 쉽게 소리치거나 고함지른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아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비활동적이며, 다른 아동의 놀이를 쳐다본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아동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1) 집단에서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아동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아동을 때리고, 물거나 친다	①	②	③	④	
14) 다른 아동과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15)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아동을 위로하거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아동과 놀잇감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7) 집단 활동 시 말이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교사(어른)에게 화가 났을 때, 교사(어른)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	①	②	③	④	
19) 일상적인 일을 돋는다 (예: 간식나누기, 정리정돈, 식사준비 등)	①	②	③	④	
20) 합당한 이유가 주어지면, 타협안을 수용한다 (예: 기다릴 줄 안다)	①	②	③	④	
21)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교사의 제안을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22) 꾸지람을 들으면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23) 무엇을 해냈을 때 자신의 성취에 대해 기뻐한다	①	②	③	④	
24) 평소 얼굴에 표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25) 방해받으면 바로 성을 낸다	①	②	③	④	
26) 다른 아동을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27) 자신보다 나이 어린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8) 집단에서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9) 교실에서 편안하게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30)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31) 집단에서 소심하여 억제되어 있거나 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32) 화가 나거나 힘든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33)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34)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35)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36)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37)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조리있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38) 친구들과 노는 중에 다른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활동에 유도하고 끌어들인다.	①	②	③	④	
39) 할 일이 정해져있지 않은 자유시간을 잘 보낸다	①	②	③	④	
40) 시간 내에 정해진 과제나 활동을 끝낼 줄 안다	①	②	③	④	
41) 친구들과 쉽게 어울린다/사귄다	①	②	③	④	
42) 또래의 놀림에 적절히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43)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주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4) 학업 관련 수행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45) 어린이집/유치원 다니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6) 선생님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한다/상호작용한다	①	②	③	④	
47)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48) 또래와의 그룹활동 중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49) 실외놀이 활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0) 지속적인 활동과 집단 일에 끝까지 잘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의 사회적 관계 및 가정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좋지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비해당	모름
1) 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어머니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3) 할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할머니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5) 형제 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6)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7)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	①	②	③	④		
8) 양육환경으로서의 가정환경	①	②	③	④		
9) 부모의 참여 및 협조	①	②	③	④		

3.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아동은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다음 중 응답해주십시오.

- | | |
|-----------------------|-----------------------|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
|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

4. 아동의 (소극적·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보이지 않음	별로 보이지 않음	가끔 보이는 편	자주 보이는 편	비해당
1) 위축되거나 움츠리는 행동	①	②	③	④	
2) 특별한 목적없이 배회하는 행동	①	②	③	④	
3) 불안정하게 쳐다보거나, 초점없는 표정으로 응시하기	①	②	③	④	
4) 때때로 감정이나 반응이 없어 보임	①	②	③	④	
5) 배나 머리 등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해 함	①	②	③		
6) 잠을 끊 못 잠	①	②	③	④	
7) 반복적인 특정행동(소리) 및 틱장애 증상이 있음	①	②	③	④	
8) 손(톱) 물어뜯기나 뺏기	①	②	③	④	
9) 신체(몸, 손, 다리 등) 혼들기	①	②	③	④	
10) 자신의 몸, 머리를 때리는 행동	①	②	③	④	
11) 도망가거나 숨는 행동	①	②	③	④	
12) 특별한 이유없이 울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적대 행동을 보임	①	②	③	④	
14) 언어적 적대감 및 거슬리는 말대꾸, 자신/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①	②	③	④	
15) 누군가 항상 옆에 있거나, 자신을 봐 주기를 원함	①	②	③	④	
16) 어른(부모 또는 교사)의 주의를 끌고자 함	①	②	③	④	
17) 무서운 이야기나 상황, 기억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18) 잘 놀란다	①	②	③	④	
19)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부모와 떨어져있다 다시 만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해당칸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상당히 지연됨	약간 지연됨	양호합-정상발달	발달이 빠름	비해당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④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④	
3) 인지발달	①	②	③	④	
4) 사회정서발달	①	②	③	④	
5) 기관에서의 적응	①	②	③	④	

* 코티졸 조사에 협조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4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관	ID	이동 번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소에서는 2012년 기본과제로 「영유아 발달에 비추어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취학전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의 적정한 기관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시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타액(침)을 통한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 조사를 2일간 총 6회 채취하게 되며, 호르몬 결과와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선생님의 설문이 중요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내용과 조사결과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계의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용시간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이용시간 연구팀 (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김세현 연구원 ☎ 02)398-7758, FAX 02)730-3319
e-mail: shsehyen@kicce.re.kr

육 아 정 책 연 구 소

기관명/반	() 어린이집 / 유치원	(세) 반 (반)
교사성명		교사성별 남□ 여□
응답일시	2012년 월 일	

* 다음은 귀하가 속해 있는 기관 현황과 귀하의 연령, 학력 및 경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칸에 V표해주세요.

1.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2. 연령	<input type="checkbox"/> 만 20세 ~29세 <input type="checkbox"/> 만 30세 ~39세 <input type="checkbox"/> 만 40세 ~ 49세 <input type="checkbox"/> 만 50세 ~59세 <input type="checkbox"/> 만 60세 이상	
3. 최종 학력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2년제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3년제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 심화과정졸/ 방송대학교 졸 <input type="checkbox"/> 일반대학(4년제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졸 <input type="checkbox"/> 기타()	
4. 최종소지 자격증	유치원 자격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정교사 2급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정교사 1급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원감자격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원장자격
	어린이집 자격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3급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2급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1급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자격
5. 직위	<input type="checkbox"/> 원장 <input type="checkbox"/> 원감 <input type="checkbox"/> 부정/주무/주임/선임교사 <input type="checkbox"/> 교사	
6. 경력	<input type="checkbox"/> 3년미만 <input type="checkbox"/> 3~5년미만 <input type="checkbox"/> 5~10년미만 <input type="checkbox"/> 10~20년미만 <input type="checkbox"/> 20년이상	
7. 실외놀이시간	귀하가 맡은 반의 실외놀이활동 시간 - 1주 평균 약 _____ 시간	

7. 현재 근무기관(○○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평가입니다. 다음의 항목별로 해당칸에 V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2) 근로여건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서비스의 질	①	②	③	④	⑤
4) 특별활동/특기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시설설비, 설내환경	①	②	③	④	⑤
6) 내부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7)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8. 선생님께서 지난 한주 동안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행동했는지 각 질문에 √ 표시해주세요.

항 목	극히 드물다 (하루 미만)	가끔 (1-2일)	종종 (3-4일)	거의 항상 (5-7일)
1)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3) 잠을 잘 못잔다	①	②	③	④
4)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무언가를 할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9. 선생님께서는 평소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부록 5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관	ID	아동 번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문조사 (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 및 유아교육·보육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소에서는 2012년 기본과제로 「영유아 발달에 비추어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취학전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의 적정한 기관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시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타액(침)을 통한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 조사를 2일간 총 6회 채취하게 되며, 호르몬 결과와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조사이오니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결과분석 및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귀하가 작성하신 설문내용과 조사결과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설계의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용시간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이용시간 연구팀 (최윤경, 이윤진, 김세현)
김세현 연구원 ☎ 02)398-7758, FAX 02)730-3319
e-mail: shsehyen@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 귀 자녀 및 기관에 대한 기본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 다음의 기본사항을 기록해 주시고, 해당칸에 표 해주십시오.

기 관 명/반	() 어린이집/ 유치원	() 반
아동 이름		아동성별 남□ 여□
아동 생년월일/연령	년 월 일 (만 세 개월)	
아동 출생순위	총 ()명의 자녀 중, ()번째 자녀	
응답자 성명		관 계 부□ 모□ 기타□: _____
응답일시	년 월 일	

II. 귀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그 간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자녀 출생 이후 지금까지, 해당 자녀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맡긴 모든 경험을 떠올리며 (조부모, 친인척 포함) 응답해주십시오.

- 이 아이의 각 연령대별로 자녀를 돌봄,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주로 어디, 또는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그 때 어머니께서는 취업 중이었습니까?

제시된 보기 중에서, 지금까지 이용한/이용중인 서비스를 고르신 후,

이용시간이 많은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해당번호와 이용시간, 그리고 질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체크해주세요 (현재 이용기관과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불규칙적으로 가끔 이용한 경우가 아닌,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1주 8시간 이상)이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응답 예시>

구 분	1순위			2순위			도의 취업여부
	유형 번호	1주 평균 이용시간	질 만족도	유형 번호	1주 평균 이용시간	질 만족도	
3~12개월	13번	15시간	①-❷-❸-❹-❺	10번	10시간	①-❷-❸-❶-❺	③
12개월~25개월	1번	30시간	①-❷-❸-❹-❺	10번	12시간	①-❷-❸-❶-❺	①
30개월~현재	1번	35시간	①-❷-❸-❹-❺	10번	12시간	①-❷-❸-❶-❺	①

구 분	<보기1 - 이용서비스 유형> 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2) 직장어린이집 3) 민간어린이집 4) 가정어린이집(놀이방) 5) 국공립유치원 6) 사립유치원 7) 반일제이상 보내는 학원 (미술학원 등) 8) 시간제 특기 학원(예: 피아노, 체육, 율동 학원 등) 9)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공적기관 10) 문화센터 등 기타 사설기관 11) 기타 기관 12) 친조부모 13) 외조부모 14) 기타 친인척 15) 육아전문인력(아이돌보미) 16) 비전문 비혈연(아주머니, 이웃할머니, 이웃 등) 17)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모의 취업상태
	①전일제 취업중 ②시간제 취업중 ③학업 및 취업훈련중 ④진입주부 ⑤휴직 및 출산휴가중 ⑥비해당(모부제)							
	1순위			2순위				
이용기간 (아동연령으로 적어주세요)	유형	1주 평균 이용시간	질 만족도	유형	1주 평균 이용시간	질 만족도		
~		시간 ①-②-③-④-⑤			시간 ①-②-③-④-⑤			
~		시간 ①-②-③-④-⑤			시간 ①-②-③-④-⑤			
~		시간 ①-②-③-④-⑤			시간 ①-②-③-④-⑤			
~		시간 ①-②-③-④-⑤			시간 ①-②-③-④-⑤			
~		시간 ①-②-③-④-⑤			시간 ①-②-③-④-⑤			
~		시간 ①-②-③-④-⑤			시간 ①-②-③-④-⑤			
~		시간 ①-②-③-④-⑤			시간 ①-②-③-④-⑤			

* 다음은 현재 이용서비스 종류 및 그 패턴에 대해 보다 상세히 묻는 질문입니다.

2. 평상시 귀 자녀가 현재 이용기관(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오전/오후 구분하여 적어주세요.

- 1) 오전/오후 ____시 ____분 ~ 오전/오후 ____시 ____분
- 2) 주중(월~금) 1일 평균: ____시간 ____분
- 3) 주말 평균이용시간: ____시간 ____분

3. 현재 이용기관(예: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1달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시간연장보육 이용시, 보통 자녀를 몇 시에 데려가십니까?

- 1) 시간연장보육 이용: 월 평균 ____회
- 2) 자녀 데릴러가는 시간: 오후 ____시
- 3) 지난 한 주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한 시간: 총 ____시간 ____분

4. 현재 육아지원기관(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를 골라주세요.
-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④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같이 놀 아이들을 만나게 하려고
 ⑥ 비용 지원이 되어서 ⑦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자녀양육이 너무 힘들어
 ⑨ 기타 (적어주세요:)

5. 현재 이용기관(예: ○○어린이집)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항 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원장	①	②	③	④	⑤
2) 교사	①	②	③	④	⑤
3) 기본 프로그램/교육·보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4) 특별활동/특기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이용시간 (서비스의 양)	①	②	③	④	⑤
6) 시설설비, 실내환경	①	②	③	④	⑤
7) 비용	①	②	③	④	⑤
8)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9) 부모상담 및 응대	①	②	③	④	⑤
10) 내부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11)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6. 귀 자녀는 현재 이용 기관(예: 면밀어린이집) 외에 다른 교육 및 보육,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 1번 문항 보기와 같이, 부모가 제공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협연·비혈연, 교육·보육·양육지원 서비스 포함: 조부모 돌봄, 아이돌보미, 학원, 학습지, 사설 특기교육, 문화센터 등)

- ① 있다 ② 없다

* 6번에서 ① '있다'면, 그 육아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시간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7.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 무엇이며, 자녀는 주로 언제 어느 시간대에 이용합니까? 모두 적어주세요.

서비스 종류 (직접 적어주십시오)	이용시간대		1주 총 이용일/이용시간		
	오전	오후	1주	총	일
1)	___시~___시	___시~___시	1주	총	일 ___시간
2)	___시~___시	___시~___시	1주	총	일 ___시간
3)	___시~___시	___시~___시	1주	총	일 ___시간
4)	___시~___시	___시~___시	1주	총	일 ___시간

8. 주 이용기관(예: 면밀어린이집) 외에 부가적으로 더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④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같이 놀 친구들을 만나게 하려고
 ⑥ 비용 지원이 되어서 ⑦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자녀양육이 너무 힘들어
 ⑨ 기타 (적어주세요:) ⑩ 비해당

III.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행동 및 정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평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양육·교육 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4) 아이를 가진 뒤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돌보게 하는 데에 죄책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아이가 아프거나 내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①	②	③	④
7)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8)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아이와 격의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아이의 필요와 관심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1) 참지못하고 아이에게 벌력 화를 내거나 큰 소리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평소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약간 그럼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아이와 자주 놀아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아이와 함께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자기 힘으로 해 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아이가 모르는 것을 물어 보면 몇 번이라도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데에 열심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아이에게 칭찬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아이에게 기본생활습관(이 닦기, 정리정돈 등)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TV 시청, 컴퓨터 게임시간 등을 정하고 지키게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아이에게 매일 애정표현(뽀뽀, 포옹, 예쁘다/사랑한다고 말하기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3. 귀하가 지난 한주 동안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행동했는지 각각의 질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극히 드물다 (하루 미만)	가끔 (1~2일)	종종 (3~4일)	거의 항상 (5~7일)
1)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3) 잠을 잘 못잔다	①	②	③	④
4)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무언가를 할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IV. 아동의 발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자녀의 사회·정서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자녀가 어려서 등의 이유로 해당항목의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비해당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님	대체로 아님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비해당
1) 피곤해 하거나 지쳐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3) 안달하거나 쉽게 화낸다	①	②	③	④	
4) 소심하고 두려워한다(예: 새로운 상황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5) 슬프고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불편해 한다	①	②	③	④	
7) 쉽게 소리치거나 고함치른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아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비활동적이며, 다른 아동의 놀이를 쳐다본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아동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1) 집단에서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아동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아동을 때리고, 물거나 친다	①	②	③	④	
14) 다른 아동과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15)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아동을 위로하거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아동과 놀잇감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7) 집단 활동 시 말이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교사(어른)에게 화가 났을 때, 교사(어른)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	①	②	③	④	
19) 일상적인 일을 돋는다 (예: 간식나누기, 정리정돈, 식사준비 등)	①	②	③	④	
20) 합당한 이유가 주어지면, 타협안을 수용한다 (예: 기다릴 줄 안다)	①	②	③	④	
21)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교사의 제안을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22) 꾸지람을 들으면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23) 무엇을 해냈을 때 자신의 성취에 대해 기뻐한다	①	②	③	④	
24) 평소 얼굴에 표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25) 방해받으면 바로 성을 낸다	①	②	③	④	
26) 다른 아동을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27) 자신보다 나이 어린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8) 집단에서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9) 교실에서 편안하게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30)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31) 집단에서 소심하여 억제되어 있거나 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32)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33) 친구들과 쉽게 어울린다/사귄다	①	②	③	④	
34) 실외놀이활동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비해당/ 없음
1) 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어머니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3) 할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할머니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5) 형제 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6)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의 근로시간과 자녀와 보내는 시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분	부	모
1) 부모님의 평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 없으면 0으로 기입)	시간	시간
2) 그러면 부모님의 1주일 총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시간	시간
3) 부모님이 평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 아이가 밤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깨어서 함께 머무르는 평균시간)	시간	시간
4) 그러면 부모님이 1주일동안 자녀와 함께 보내는 총 시간은 얼마입니까?	시간	시간
5) 아동 부모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얼마입니까? (※ 지난 3개월 평균을 적어주십시오.)	원	원
6) 아이가 집에서 실외놀이활동을 하는 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이 됩니까?	아동 1일 평균	시간

4. 귀 자녀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다음 중 응답해주십시오.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5. 귀하의 남편(아이의 아버지)은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다음 중 응답해주십시오.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⑤ 비해당

6. 자녀의 (소극적·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보이지 않음	별로 보이지 않음	가끔 보이는 편	자주 보이는 편	비해당
1) 위축되거나 움츠리는 행동	①	②	③	④	
2) 특별한 목적없이 배회하는 행동	①	②	③	④	
3) 불안정하게 쳐다보거나, 초점없는 표정으로 응시하기	①	②	③	④	
4) 때때로 감정이나 반응이 없어 보임	①	②	③	④	
5) 배나 머리 등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해 함	①	②	③		
6) 잠을 짙 못 잡	①	②	③	④	
7) 반복적인 특정행동(소리) 및 틱장애 증상이 있음	①	②	③	④	
8) 손(톱) 물어뜯기나 뺏기	①	②	③	④	
9) 신체(몸, 손, 다리 등) 혼들기	①	②	③	④	
10) 자신의 몸, 머리를 때리는 행동	①	②	③	④	
11) 도망가거나 숨는 행동	①	②	③	④	
12) 특별한 이유없이 울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6번 계속)

13) 친구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적대 행동을 보임	①	②	③	④	
14) 언어적 적대감 및 거슬리는 말대꾸, 자신/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①	②	③	④	
15) 누군가 항상 옆에 있거나, 자신을 봐 주기를 원함	①	②	③	④	
16) 어른(부모 또는 교사)의 주의를 끌고자 함	①	②	③	④	
17) 무서운 이야기나 상황, 기억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18) 잘 놀란다	①	②	③	④	
19)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부모와 떨어져있다 다시 만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귀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래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해당칸에 ✓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상당히 지연됨	약간 지연됨	양호함-정상발달	발달이 빠름	비해당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④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④	
3) 인지발달	①	②	③	④	
4) 사회정서발달	①	②	③	④	
5) 기관에서의 적응	①	②	③	④	

V. 영유아기 육아지원기관의 적정 이용시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8. 취학전 영유아가 육아지원 서비스/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적정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 연령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바람직한 기관이용 시작 시기: 자녀가 _____년 _____개월 일 때

9. 취학전 영유아가 육아지원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적정시간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시간대와 시간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영아 적정이용시간: _____시 ~ _____시, 하루 약 _____시간, 1주 _____일

유아 적정이용시간: _____시 ~ _____시, 하루 약 _____시간, 1주 _____일

10. 영유아기 무상 보육교육 지원의 확대와 함께,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그 연령도 어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육아정책 방향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찬성하시는지 ✓ 표 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영유아의 기관이용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이용시간 설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지원이 되는 기본이용시간 (예: 오후 2~3시 귀가)을 정하고,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비용 부담하도록 학)	①	②	③	④
2) 취업모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3)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와 같은) 종일제 중심의 기관이용과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영유아가 기관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그 밖에 기관 이용시간 및 육아정책에 대해 의견이나 제언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12. 귀 댁의 자녀를 기준으로 동거하는 가족유형을 표시해 주십시오.

(※ ⑦,⑧로 답한 경우는 부모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임)

- | | | |
|---------------|--------------|----------------|
| ① 조부모+부모+자녀 | ② 조부모+한부모+자녀 | ③ 한조부모+부모+자녀 |
| ④ 한조부모+한부모+자녀 | ⑤ 부부+자녀 | ⑥ 한부모+자녀 |
| ⑦ (한)조부모+자녀 | ⑧ 친인척+자녀 | ⑨ 기타() |

*** 가구 특성**

응답자 연령	1) 20~25세 미만 4) 35~40세 미만 7) 기타(세)	2) 25~30세 미만 5) 40~45세 미만	3) 30~35세 미만 6) 45~50세 미만
월 가구 소득	1) 1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2) 100-2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부 최종학력	1) 중졸 이하 4) 4년제 대졸	2) 고졸 5) 대학원 이상	3) 2~3년제 초대졸
모 최종학력	1) 중졸 이하 4) 4년제 대졸	2) 고졸 5) 대학원 이상	3) 2~3년제 초대졸
부 취업여부	1) 전일제 취업중 4) 전업주부	2) 시간제 취업중 5) 휴직 및 출산휴가중	3) 학업 및 취업훈련중 6) 비해당
모 취업여부	1) 전일제 취업중 4) 전업주부	2) 시간제 취업중 5) 휴직 및 출산휴가중	3) 학업 및 취업훈련중 6) 비해당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연구보고 2012-09

아동발달관점에서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 스트레스호르몬 조사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22-0 93330